문학박사학위논문

전남 곡성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201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하 신 영

문학박사학위논문

전남 곡성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201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하 신 영

전남 곡성 지역어와 경남 창녕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지도교수 최 명 옥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하 신 영

하신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1월

위 원 장 송 철 의 

부위원장 김 성 규 

위 원 배 주 채 (인 

위 원 한 성 우 

위 원 최 명 옥 

<국문 초록>

전남 곡성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하신영

본고는 전라남도 곡성 지역어와 경상남도 창녕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두 지역어에 대한 공시 음운론적 대비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음운 목록의 대비, 어간 기저형의 어간말 형태 음소 목록의 대비, 음운 과정의 대비를 통하여 두 지역어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2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음소 목록을 확정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자음소 목록은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ㄱ, ㄲ, ㅋ, ㅁ, ㄴ, ㅇ, ㅎ, ㆆ'의 19개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모음소 목록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단모음소(單母音素)는 곡성 지역어에서는 '이, 에, 애, 오, 외, 으, 어, 아, 우, 위'의 10개의 단모음소(短母音素)와 '이:, 에:, 애:, 오:, 외:, 으:, 어:, 아:, 우:, 위'의 10개의 장모음소(長母音素)가 존재한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모음소 /에/와 /애/의 구분이 없고 /어/와 /으/의 구분이 없으며 /위/, /외/ 단모음소가 존재하지 않아 '이, 애(E), 오, 어(ᴲ), 아, 우'의 6개의 단모음소가 존재한다. 이중모음소 목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곡성 지역어에는 '여, 야, 예, 얘, 유, 요, 워, 와, 웨, 왜'의 10개 이중모음소가, 창녕 지역어에는 '여, 야, 애(yE), 유, 요, 워, 와, 왜(wE), 위(wi)'의 9개의 이중모음소가 있다. 곡성 지역어에는 '위(ü)'가 단모음소로 존재하고 이중모음소 '위(wi)'는 없는데 반해 창녕 지역어에는 이중모음소 '위(wi)'가 존재한다. 또한 곡성 지역어에서는 이중모음소 앞 초성에 자음이 위치할 수 있으나 곡성 지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3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곡용과 활용의 형태론에 대해 논하였다. 공시적인 음운 과정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될 때 관찰되므로 이 장에서는 음운 과정에 작용하는 어간말 형태음소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활용과 곡용 어간말 음소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곡성 지역어에서 10가지, 창녕 지역어에서 6가지이다. 즉, 각 지역어세 존재하는 모든 모음소가 어간말 음소로 존재한다. 자음소의 경우에는 두 지역어의 차이가 확연한데, 창녕 지역어의 어간말에 올 수 있는 자음소의 종류가 곡성 지역어에 비해 많다. 곡성 지역어 곡용 어간말에는 'ㅂ, ㅁ, ㅅ, ㄴ, ㄱ, ㅇ, ㄹ'가, 창녕 지역어 곡용 어간말에는 'ㅂ, ㅍ, ㅁ, ㅅ, ㄴ, ㅈ, ㄱ, ㄲ, ㅋ, ㅇ, ㄹ, ㅄ, ㄳ'가 올 수 있다. 복합기저형의 유형에서는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두 지역어 공통적으로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곡성 지역어는 7가지 유형 모두, 창녕 지역어는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복합기저형이 있다.

4장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 드러나는 음운과정에서의 두 지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두 지역어에서의 공통적인 음운과정에는 '평파열음소화, 비음소화, 원순모음소화, 어미초 /으(어1)/의 완전순행동화, 경음소화, 연구개음소화, 양순음소화, 유음소화'의 교체 현상과 '성문음소 탈락, 유음소 탈락, 어간말 /아/나 /어/ 탈락, 어간말 /으(어1)/탈락, 어미초 /으(어1)/ 탈락'의 탈락 현상이 있다. 차이가 나타나는 음운과정은 한 지역어에만 존재하는 경우와 두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환경이 다른 경우로 나뉜다.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하는 것에는 '전설고모음소화, /y/ 활음소 탈락, /y/ 활음소 삽입, /여/의 /에/화'가 있고 창녕 지역어에만 존재하는 음운과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 자음소군단순화, 유기음소화, 축약으로서의 경음소화'는 두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는 음운과정이나 그 적용환경이나 제약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주요어 : 곡성 지역어, 창녕 지역어, 음운론적 대비 연구, 음소목록, 어간의 기저형, 음운과정

학 번 : 2004-30011

목차

국문초록 i
목차 iii
범례 v

1. 서론 1
1.1. 연구 목적과 의의 1
1.2. 연구사 개관 3
1.3. 연구 대상 및 자료 4
1.4. 연구 방법 8
1.5. 논의의 구성 10

2. 음소 목록의 대비 12
2.1. 자음소 목록 12
2.2. 유음소 목록 17
2.3. 활음소 목록 19
2.4. 모음소 목록 22
2.5. 요약 30

3. 어간 기저형의 대비 34
3.1. 곡용 어간의 기저형 36
3.1.1. 단일 기저형 37
3.1.2. 복합 기저형 46
3.2. 활용 어간의 기저형 48
3.2.1. 단일 기저형 49
3.2.2. 복합 기저형 70
3.3. 요약 81

4. 음운과정의 대비 86
4.1. 교체 86
4.1.1. 자음소교체 86
4.1.1.1. 평파열음소화 86
4.1.1.2. 자음소동화 92
4.1.1.3. 경음소화 98
4.1.2. 모음소교체 101
4.1.2.1. 활음소화 101
4.1.2.2. 모음소동화 105
4.1.2.3. 단모음소화와 고조화 110
4.2. 탈락 111
4.2.1. 자음소탈락 111
4.2.1.1. 성문음소탈락 111
4.2.1.2. 자음소군단순화 112
4.2.2. 유음소탈락 115
4.2.3. 활음소탈락 115
4.2.4. 모음소탈락 116
4.2.4.1. 어간말 /아/나 /어/ 탈락 116
4.2.4.2. 어간말 /으/ 탈락 117
4.2.4.3. 어미초 /으/ 탈락 118
4.3. 삽입 119
4.4. 축약 120
4.4.1. 자음소축약 121
4.4.1.1. 유기음소화 121
4.4.1.2. 경음소화 122
4.4.2. 모음소축약 124
4.5. 요약 125

5. 결론 136

참고문헌 140
Abstract 147

<범례>

◎ 본고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 /　　　　기저형 또는 음소 표시

[ ]　　　　음성 표시

|　　　　기저형(형태소) 범주 표시

X, Y　　　　변항

C　　　　자음소 또는 자음

V　　　　모음소 또는 모음

/X{a~b}-/　　　　어휘화된 이형태 /Xa-/와 /Xb-/를 포함하는 복합기저형

a → b　　　　공시적 변동으로서 a는 b로 된다는 뜻

( )　　　　해당 예의 의미를 표준어 또는 한자로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의의

본고는 전라남도 곡성 지역어와 경상남도 창녕 지역어의 공시 음운론적인 대비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1] 공시 음운론적 연구를 통해 두 지역어의 음소 목록을 확정하고, 활용과 곡용 어간의 어간말 형태음소를 기준으로 어간의 유형을 밝히고,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경우의 공시적인 음운과정을 연구하여 두 지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의 방언 연구는 방언학적 연구보다 지역어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방언학적인 연구를 하려면 우선 방언 구획을 통해 개별 방언을 확인해야한다. 개별 방언이 확인되면 둘 이상의 방언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언 구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언간의 대비연구는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의 일부로서 두 지역어를 택하여 각 지역어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보고 음운론적 대비를 하고자 한다.

최근의 지역어 연구들을 통해 개별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두 지역어 간의 대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의 중심부에 위치한 두 지역어를 택하여 음운면에서 대비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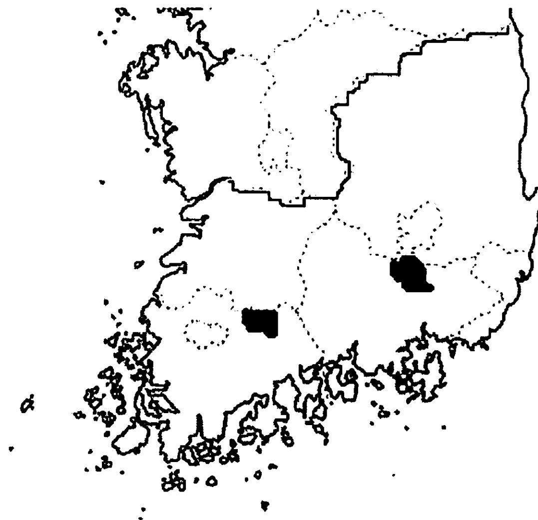
본고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를 선택하여 음운론적 대비 연구를 한다. 이 두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대비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로, 개별 지역어로서 전남 곡성 지역어와 경남 창녕 지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음운론적 연구를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언 연구에서 이

---

1) 대비방언론은 두 방언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 연구하는 방언학의 한 분야이다. 종래 대조방언론이 두 개별방언간의 차이점만을 강조하고 유사점을 소홀히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이점과 유사점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방언학의 체계에서 대비방언론이 가지는 위치와 그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최명옥(2005: 45-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들 지역어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곡성 지역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음운론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고, 창녕 지역어에 대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2)]

둘째로, 그들 두 지역어가 음운론적으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논의함으로써 좁게는 두 지역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넓게는 서남 방언과 동남 방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곡성과 창녕은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심에 위치하는데,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1> 전남 곡성과 경남 창녕의 위치

곡성과 창녕은 지리적으로 각각 서남 방언권과 동남 방언권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과 간략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3)]

먼저 곡성은 평균 500m 고도로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이다. 산맥이 종횡으로 지나면서 4개의 소지역으로 갈라 놓았다. 이들 소지역은 각각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이중 곡성은 지리산맥, 팔량치산맥(八良峙山脈), 육십치산맥(六十峙山脈) 사이에 있는 남원권에 속한다. 섬진강과 보성강, 기

2) 성인출(1984)의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가 창녕 지역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 유일하고, 그 외에는 특정 음소와 특정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3) 각 지역의 연혁과 지도는 각 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http://www.cng.go.kr)에서 참조하였다.

타 군소 하천이 이 유역의 평야를 관개한다. 평야 중에서 동북부 곡산을 중심한 곡산분지는 비교적 넓고 비옥한 편이다. 면적 547㎢, 인구 32,608명(2008년)이다.

창녕은 경상남도 중앙 북단에 위치하며 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과 인접하고, 동쪽은 산악을 경계로 경상북도 청도군과 경상남도의 밀양시가 접해 있으며, 서남은 낙동강을 사이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원시에 접하고 있다. 면적은 533.1㎢, 인구는 62,938명(2007년)이다.

1.2. 연구사 개관

방언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의 여러 지역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별 지역어별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둘 이상의 지역어를 대상으로 비교, 대조하는 대비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최명옥(1980)에서 경남 동해안 방언을 대상으로 반촌 지역와 민촌 지역의 말에 대한 대비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지역어 대비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한동안 지역어에 대한 대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수행된 지역어의 대비 연구 중에서 인접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김봉국(2002)와 이혁화(2005) 그리고 임석규(2007)이 있다. 먼저 김봉국(2002)는 강원도 남부지역의 '강릉, 삼척, 정선, 원주'를 대상으로 한 음운론적 연구이다. 태백산맥이라는 자연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강원도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의 방언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네 지역어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강원도 방언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 정밀화하였다. 어간 기저형에 있어서의 차이와 규칙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 등에 의해 네 지역어는 <삼척, 강릉, 정선>과 <원주>로 나누어지고, <삼척, 강릉, 정선>은 다시 운소적인 면에서 <삼척, 강릉>과 <정선>으로 나누어짐을 밝혔다.

이혁화(2005)는 같은 대방언권에 속하는 지역어가 아닌 '무주', '영동', '김천'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대비하는 연구이다. 이 세 지역은 각각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속한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각 대방언권의 성격도 지니면서 방언 접촉의 결과 공통점도 지니게 된다. 음운론적인 특징

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는데 세 방언 간에 차이가 있는 음운 현상으로 모음조화, 반모음화,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자음소군단순화, ‘ㄴ’탈락, ‘ㅇ’탈락, ‘ㅎ’탈락을 설정하여 그것을 대비하여 논하였다.

임석규(2007)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문경, 영주, 울진’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음운론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는 경상도 방언의 특징인 성조에 큰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방언 연구에서 성조란 음장 방언 지역에서의 장음에 해당하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 받고 성조로 인해 의미차이가 나는 몇몇 형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성조소의 설정과 성조 규칙의 정밀화에 중점을 두고 음소와 같은 비중으로 성조소를 다루고 있다. 특히 성조배열제약과 성조변동규칙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어의 특징을 논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인접 지역어간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접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방언간에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이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떨어진 지역간의 음운론적 대비연구를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인호(2004)이다. 정인호(2004)는 전남 화순 지역어와 평북 용천 지역어의 음운변화를 중심으로 한 대비연구이다. 이 연구가 앞의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것은, 두 지역어의 음운변화에 대한 대비연구라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대비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 곡성 지역어와 경남 창녕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자료

본고는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대방언권에 속하는 하위 지역어로서 창녕 지역어와 곡성 지역어를 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접하고 있는 다른 대방언권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을 선택하기 위하여, 경상도 중에서도 경상남도를,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남도를 택하였다. 또한 해안 지역이 아니라 내륙 지역을 택하고자 하였고 각각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와의 인접 지역을 선택하여 대방언권 전체의 중심 지역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창녕과 곡성이 선택되었는데, 이 두 지역이 방언 구획상 어떤 지역에 속하여 경남과 전남의 특징을 보여주는지 방언 구획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남 방언을 하위 구획하면 크게 서부와 동부로 나눌 수 있다. 이기갑(1982)에서는 문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전남방언을 하위 구획하고 받침소리의 특징과 불규칙 활용의 특징 등 일부 음운론적인 현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전남 방언을 서부와 동부로 구분하고 그 정확한 지역을 제시하였다. 광양과 여천이 동부 전남의 핵심지역이 되고 여기에 구례와 고흥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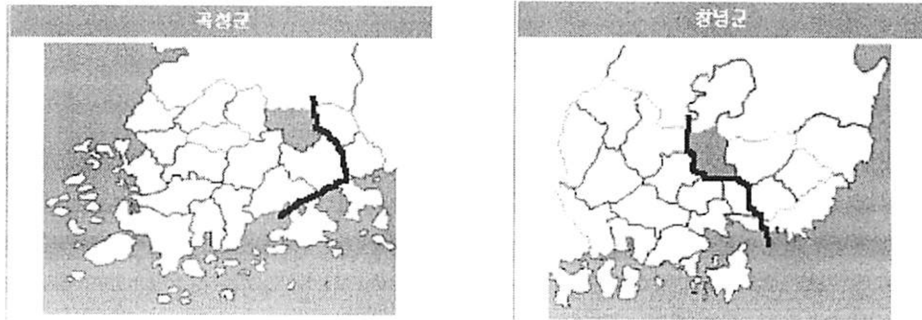
서부 전남방언권은 전라남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전남 방언의 전형을 보이나 동부 전남방언권은 인접하고 있는 경남방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곡성 지역어는 바로 이 서부전남방언에 속한다.

경남 방언도 하위 구획하면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동부 방언 지역을 다시 둘로 나누기도 하나 크게는 동서로 나누고 있다. 김영송(1963)에서 음운 관련 현상을 관찰하여 경남 방언을 동부와 서부로 구획했다. 김택구(1991)에서는 음운뿐만 아니라 어법, 어휘 등의 특징을 조사하여 등어선을 그려 지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부와 서부로 구획하였다. 박정수(1999)에서도 음운 현상을 하나하나 비교하여 경남 방언을 셋으로 구분하였는데, 경남 동부 방언과 경남 중부 방언, 그리고 경남 서부 방언으로 나뉜다. 최명옥(1994)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구별되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음운, 어법, 어휘를 종합하여 방언 구획을 시도하되, '체계적'인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남 방언은 크게 경남 동부 방언과 경남 중서부 방언으로 나누어진다. 동부 방언에는 창녕, 밀양, 울산, 양산, 김해가 포함된다.

여러 논의에서 동부 지역으로 구분되는 중방언권은 대표적으로 /ㅅ/과 /ㅆ/의 변별이 없고, /에/와 /애/, /으/와 /어/의 변별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일반적으로 경상도 방언의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운적 특징을 지닌 지역인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창녕 지역은 이상의 논의들에서 동부 방언에 속한다.

아래 지도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둘로 방언 구획했을 때 곡성과 창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각 전라도와 경상도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쪽의 하위방언권에 속해 있으며 그 방언권의 경계에 위치하고 북쪽의 도경계에도 맞닿아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방언권의 경계에 닿아 있다는 것은 인접 지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표성이 약하다

고 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인근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색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지도 4>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방언 구획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에서 조사한 방언 자료이다.4) 곡성 지역어는 2005년(연구 책임자: 이기갑, 연구 보조원: 오청진)에 조사되었고, 창녕 지역어는 2006년(연구 책임자: 김정대, 연구 보조원: 박근배)에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음성 자료이고, 하나는 텍스트 자료이다. 음성 자료는 자연발화 자료로서 총 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각 주제별로 약 2시간 가량의 자연발화가 웨이브(wave) 파일로 녹음되어 있다. 텍스트 자료는 질문지에 의한 항목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정리한 항목조사 자료와, 약 2시간 가량의 자연발화 전사 자료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성 자료와 텍스트 자료 중 자연발화 전사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항목조사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연구자들이 공감하듯이 항목조사의 경우 제보자들의 발화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구개음소화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곡성 지역어의 경우 어간말의 자음소가 어미초의 연구개음소와 만나면 연구개음소화가 적용된다. 즉 '/있]고/→[익꼬]'가 자연스러운 음운과정

---

4) 국립국어원의 지역어조사는 남과 북의 학자들이 모여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지역어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2004년에 예비 조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군단위로 지역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모아오고 있다. 남한의 경우 2007년까지 각 도별로 4개 군의 지역어가 조사되어 총 36개 군의 지역어 자료가 모였다.

이다. 그러나 항목 조사 자료에서는 이같은 음운과정이 반영된 자료는 50%도 되지 않는다. 항목 조사 자료만을 중시한다면 곡성 지역어에서 연구개음소화는 수의적인 음운규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발화 자료를 살펴 보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거의 모든 경우에 연구개음소화가 적용되어 관찰되는 것이다.

텍스트 자료 중 자연발화 전사 자료는 한글로 전사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간에 어느 발음을 어떤 한글 기호로 전사하느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자료를 바로 일대일로 비교하여 연구할 수는 없다. 모음소의 경우 창녕 지역어에는 '어'와 '으', '애'와 '에'의 구분이 없지만 전사 자료상에는 두 가지 모두 표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모음소가 구분되는 곡성 지역어의 자료와 바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외', '위'가 단모음소로 존재하는 곡성 지역어의 특징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사 자료에서 '웨, 왜'와 정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연발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조사를 마칠 때까지 발화의 자연스러움이 균일하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처음 조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아무래도 자연스러움이 덜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표준어형 어휘를 사용하거나 고상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그 지역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자와 제보자가 친밀한 상태가 된 후의 자료를 우선으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간의 차이를 고려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자료를 기본으로 삼아 자료를 정리하였다. 전사의 표기법을 통일하여 한글로 전사하여 본 연구에 적절하도록 정리하고, 음소 차원이 아니라 음성을 관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여 표기였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나 주변 지역어와의 비교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부자료로 사용하였다.

- ▸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상세한 조사 기간과 제보자의 정보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한다.

<곡성>
(1) 조사 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 1구
(2) 조사 기간 : 2005년 7월 14일-2005년 11월 18일
(3) 제보자 사항
① 주제보자
• 이름 : 서재경 (남) • 나이 : 80세(1926년생)
• 직업 : 농업 • 학력 : 없음
② 보조 제보자
• 이름 : 이삼순 (여) • 나이 : 74세(1934년생)
• 직업 : 농업 • 학력 : 무학

<창녕>
(1) 조사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2) 조사 기간 : 2006년 8월 1일 - 2006년 12월 7일
(3) 제보자 사항
① 주제보자 1
• 이름 : 성정영 (남) • 나이 : 73세(1934년생)
• 직업 : 농업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② 주제보자 2
• 이름 : 이순조 (여) • 나이 : 80세(1927년생)
• 직업 : 없음 • 학력 : 무학
(2) 보조 제보자
• 이름 : 노말조 (여) • 나이 : 67세
• 직업 : 농업

1.4. 연구 방법

본고는 일반언어학적인 음운론 연구 방법에 따라 각 지역어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취한다.[5]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를 독립적인 언어로 보고 음운론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이는 각 장과 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일반 언어학적인 공시음운론의 연구는 기저형에서 표면형까지의 음운론적 도출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음소 목록을 설정하여 그 지역어의 말소리의 특징을 찾고,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을 설정하여 화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의미가 어떤 소리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 기저형이 실제 발음으로 나오기까지 어떤 음운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관찰하여 정리하게 된다. 따라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 각각의 음소 목록, 기저형, 음운과정를 설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연구이다.

각 지역어의 특징이 밝혀지면 그 둘을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음소 목록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아주 분명한 방언의 차이를 낳는다. 한 지역어에는 있는 음소가 다른 지역어에는 없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다른 방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기저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형태소란 의미를 포함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확연히 다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다. 본고의 관심은 개별 형태소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를 보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적 비교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적인 기저형의 소리 체계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어간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기저형을 분류한다. 즉 어떤 두음이나 말음을 가진 형태소가 가능한지에 따라 기저형을 분류하고 서로 비교한다. 기저형의 특징이 밝혀지면 음운과정의 특징도 자연히 달라지게 된다. 기저형의 특징이란 음운 규칙의 적용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저형과 음운 규칙은 필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관계는 한국어와 영어와의 관계처럼 완전히 별개의 언어 관계가 아니다.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 안에 존재하는 방언의 하나로서 각 지역어는 필연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이는 "한 언어가 내적이거나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변화된 결과, 공간적으로 분화된 언어체계(최명옥,1990b:668)"를 지역 방언이라고 보는 방언학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5) 최명옥(1990b:668)의 구분과 같이 방언연구는 방언학적 방법과 일반 언어학적 방법으로 행할 수가 있는데 일반언어학적인 방법이란 방언을 하나의 언어로 보아 방언 자체의 내적 구조와 논리를 중시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비록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통시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표준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두 지역어의 관계를 보이고자 한다. 개별 지역어에 대한 국어사적인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논의는 할 수 없지만 국어의 일반적인 변화 양상에 준해 비교가 가능한 경우 표준어 및 여타 지역어의 자료와 비교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서남 방언과 동남 방언은 장단 언어와 성조 언어라는 큰 차이가 있다. 중세국어 자료를 통해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어휘도 있지만 공시적인 음운론적 논의에서 장단과 성조는 단순히 일대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본고의 기본 논의에서 운소적인 차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장단의 특징과 성조의 특징이 서로 대응되는 경우 모음의 성격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 특징을 언급하기로 한다.

1.5. 논의의 구성

본고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목적과 연구 의의를 밝히고 연구사를 간략히 정리한 후, 연구 방법, 자료 조사 등에 대하여 언급한다.

2장은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음소 목록을 확인하고 서로 대비한다. 음소 목록은 크게 자음소목록, 유음소목록, 활음소목록, 모음소목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두 지역어가 음소 목록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핀다.[6]

3장은 어간의 기저형에 대하여 살핀다. 곡용 어간과 활용 어간으로 나누어 살피게 되는데 어간 말음을 기준으로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 그리고 복합 기저형을 가지는 어간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는 4장에서 이루어질 음운현상에 대한 기초 작업이 됨과 동시에 각 지역어의 기저형의 음운론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확정한 어간의 기저형을 바탕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

6) 기존의 명칭인 '자음', '모음' 등이 아니라 '자음소', '모음소' 등을 사용하는 것은 최명옥(2004:27-28)의 논의를 따른 것으로, 음성과 관련된 현상과 음소와 관련된 현상을 구별하여 연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논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녕 지역어의 음운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음운과정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되는 음운과정을 논의한다. 각 음운과정마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비교를 통해 두 지역어의 음운 규칙에 차이가 없고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간단히 논의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좀더 자세히 논의를 진행한다.

5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한다.

2. 음소 목록

이 장에서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의 음소 목록을 확정하고 음소 체계를 정립한 후 두 지역어의 음소 목록을 비교한다. 두 지역어의 차이를 가져오는 첫 번째 요인으로서 음소는 어떤 대비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음소는 자음소, 유음소, 활음소, 모음소로 나누어 논의한다.7)

2.1. 자음소 목록

❶ 곡성

곡성 지역어에서는 19개의 자음소가 확인된다. 이를 조음 위치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곡성 지역어의 자음소 목록

① ㅂ, ㅃ, ㅍ, ㅁ

② ㄷ, ㄸ, ㅌ, ㄴ, ㅅ, ㅆ, ㅈ, ㅉ, ㅊ

③ ㄱ, ㄲ, ㅋ, ㅇ

④ ㅎ, ㆆ

이들은 다음의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① ㅂ : ㅍ : ㅁ		불(火) : 풀(草) : 물(水)
	ㅂ : ㅃ		배:-(密) : 빼:-(抽)
	② ㄷ : ㄸ : ㅌ : ㄴ		달(月) : 딸(女兒) : 탈(頉) : 날(日)
	ㅈ : ㅉ: ㅊ		지고(負) : 찌고(烝) : 치고(打)
	ㅅ : ㅆ		살(肉) : 쌀(米)

7) 이는 최명옥(2004)의 체계를 따른 것으로 [자음성], [모음성] 자질에 따라 한국어의 음소를 구분한 것이다.

③ ㄱ : ㄲ　　　　　기리고(畵) : 끼리고(使沸)
　ㅋ : ㄲ　　　　　크고(大) : 끄고(消)
　ㅇ : ㅁ　　　　　강(江) : 간(未)
④ ㅎ : ㅅ　　　　　히고(白) : 시고(酸)

①에서는 양순음소를 ②에서는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를 ③에서는 연구개음소를 ④에서는 성문음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ㅇ/은 초성 위치에 올 수 없는 음절구조제약에 의하여 종성 위치에서의 대립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초성에서 나타난 대립을 확인하였다.

곡성 지역어에서 성문음 /ㆆ/이 음소로 설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모음소 어미 앞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자음소 어미의 두음을 경음소화 시키는 어간이 있을 경우 /ㆆ/을 음소로 설정할 수 있다.[8] 대개 표준어의 'ㅅ' 불규칙 용언이나 'ㄷ' 불규칙용언의 경우 여러 지역어에서 그와 같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경우 /ㆆ/이 음소로 설정된다. 그러나 곡성 지역어의 예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3)　① 븟-(注): 부뜨라, 부서서, 부신다
　　　잇-(連): 이뜨라, 이서서, 이신다
　　　낫-(癒): 나뜨라, 나사서, 나사따
　　② 눓-(燋): 눌트라~눌뜨라, 누러서, 누른다
　　　싫-(載): 실트라~실뜨라, 시러서, 시른다
　　　걿-(步): 걸트라~걸뜨라, 거러서, 거른다
　　③ 짛-(作): 지트라, 지어서, 진다
　　④ 듣-~듫-(聞): 드뜨라, 드르니께, 드른다(~든는다)
　　　묻-~뭃-(問): 무뜨라, 무러따, 무른다

표준어의 'ㅅ' 불규칙 활용 어간의 경우 곡성 지역어에서 ①과 같이 /ㅅ/ 말음 어간으로 나타난다. 표준어의 '짓-'의 경우가 /ㅅ/ 말음이 아니라 ③의 /짛-/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불규칙 활용은 아니다. 표준어의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의 경우는 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눓-, 싫-, 걿-/ 등과 같

8) /ㆆ/으로 끝나는 어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최명옥(1978a:77-82), 최명옥(1988:29-30)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ㅀ/말음 어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ㄹㆆ/말음을 가지는 듯한 활용형을 관찰할 수 있다. [실뜨라]와 같은 표면형이 나온다는 것은 어간말의 /ㅎ/이 /ㆆ/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ㅎ/과 /ㆆ/의 음성적 유사성에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③과 같은 단순한 /ㅎ/말음 어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혼동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음성적인 특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9)

④의 예들을 관찰해 보면 /ㆆ/이 음소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④의 예는 복합 기저형을 가지는 어간의 활용형인데, ②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ㄹㆆ/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이 설정된다.10) 또한 '갈 곳, 먹을 것'에서 보이는 관형형 어미 '-을'의 기저형이 /-읋/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곡성 지역어에서 /ㆆ/을 음소로 잡을 근거가 더 마련된다.

❷ 창녕

창녕 지역어에서는 19개의 자음소가 확인된다. 이를 조음 위치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창녕 지역어의 자음소 목록

① ㅂ, ㅃ, ㅍ, ㅁ
② ㄷ, ㄸ, ㅌ, ㄴ, ㅅ, ㅆ, ㅈ, ㅉ, ㅊ
③ ㄱ, ㄲ, ㅋ, ㅇ
④ ㅎ, ㆆ

이들은 다음의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1)

(5)	① ㅂ : ㅁ		배가(船) : 매가(鞭)	(HH)
	ㅂ : ㅃ : ㅍ		비가(雨) : 삐가(骨) : 피가(血)	(HH)

9) 곡성과 접한 전라북도 남원 지역과 곡성의 남쪽인 보성과 고흥 일부 지역에서도 '싣고'에 해당하는 활용형이 [실꼬]로 발음되고 있어 /ㆆ/이 음소로 설정된다.

10) 이 어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논의한다.

11) 성조형을 보이기 위해 어간에 어미가 통합된 어형을 제시하였다. 곡용어간에는 주격 어미 '이'나 '가'가 통합된 형태를, 활용어간에는 어미 /-고/가 통합된 형태를 제시하였다. /ㅇ/은 성조형이 같은 최소 대립쌍을 찾을 수 없었으나 '강, 방' 등의 곡용 어간에서 나타난다.

② ㄷ : ㄸ : ㄴ	다리(月) : 따리(女兒) : 나리(日)	(HH)
ㄸ : ㅌ : ㅈ	띠고(走) : 티고(跳) : 지고(負)	(HL)
ㅉ : ㅊ	찌고(烝) : 치고(舞)	(HH)
③ ㄱ : ㅋ	가고(行) : 카고(~라고 하고)	(HL)
ㄱ : ㄲ	기고(匍) : 끼고(貫通)	(LH)
④ ㅎ : ㆆ	조코(好) : 조꼬(拾)	(LH)
⑤ ㅅ : ㅆ	시러따(厭) : 씨러따(掃)	(HHL)

창녕 지역어에서도 /ㆆ/이 음소로 설정된다. ④의 예에서 보듯 용언 어간이 활용할 때 뒤따르는 어미의 두음을 경음소화 시키느냐 유기음소화 시키느냐에 따라 뜻이 구분되는 어형들이 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이런 활용형이 발견되므로 /ㆆ/을 음소로 설정하기로 한다.

자음소 목록 중에서 /ㅅ/과 /ㅆ/을 구분하여 두 개의 음소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이 두 음소는 이음절 이하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단어에서 이음절 이하에 /ㅆ/을 음소로 지닌 것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음절 이하에서 /ㅅ/과 /ㅆ'/의 발음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합성어가 되거나 빠른 발화에서 두 어절이 연결되어 발음될 때를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발견하게 된다.

(6) 이음절 이하에서 /ㅅ/과 /ㅆ/의 발음

① 씬냉이 (쓴냉이)	[씬냉이]
② 칼씬냉이	[칼씬냉이~칼신냉이]
③ 쌀마서 (삶아서)	[쌀마서]
④ 안 쌀마서	[안쌀마서~안살마서]

①과 ③은 첫 음절에 /ㅆ/을 가진 단어로, 단독으로 발음하게 되면 /ㅆ/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②처럼 앞에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면 두 가지 발음이 수의적으로 발음되며, 이 둘은 의미의 차이를 전혀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④와 같이 부정어와 같이 연결되어 발음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창녕지역어의 /ㅅ/과 /ㅆ/은 이음절 이하에서는 음소로서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이 위치에서 [s']는 /ㅅ/의 이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12)]

그러나 어두에서는 /ㅅ/과 /ㅆ/이 음운론적으로 구분된다. 즉, '시러따(厭) : 씨러따(掃)'에서와 같이 이 두 음소로 인해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단어가 존재한다.13) 그러나 음성적으로는 다른 지역어에서와 같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다만 /ㅅ/보다 /ㅆ/이 약간의 소음성을 더 가지는 정도이다.

비록 어두 위치에서 이 두 음소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이 있다. 동남방언의 특성상 각 단어에는 개별적인 성조가 있는데, /ㅆ/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될 때 그 음소가 포함된 음절이 저조(L)의 성조를 지닌 단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지, -고, -나' 등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 항상 고조(H)로 실현되는 음절에 /ㅆ/가 포함되어 있다. /ㅅ/이 포함된 음절은 그러한 제약없이 다양한 성조형을 보인다.

(7) /ㅆ/ 포함 어형의 성조형

① 씨고(HL), 썬다(HL)	(불을 켜다)
② 시고(LH), 시인따(HLL)	(쉬다)
시고(LH), 시인따(HLL)	(수를 세다)
③ 씩꼬(HH), 씨번다(HHL)	(맛이 쓰다)
씩꼬(HL), 씨선따(HLL)	(씻다)
④ 싱꼬(LH), 시너따(HLL)	(신을 신다)
사고(HL), 산따(HH)	(물건을 사다)
⑤ 쌈찌(LH), 쌍꼬(LH)	(삶다)

①과 ②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같은 어미/-고/가 통합된 '씨고'와 '시고'라는 어절에서 /ㅆ/이 포함된 것은 성조형으로 구분이 된다. ③의 예에서도 /ㅆ/이 포함된 음절은 '-고' 앞에서 고조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④의 예들은 /ㅅ/이 포함된 음절은 고조로도 저조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⑤의 경우에는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원적으로 '삶-'에서 나

12) 정영주(1987:416)에서는 이런 현상을 '/s'/의 약한소리되기'라고 하여 음운 규칙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두 가지 소리가 모두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음운 규칙으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13) 성조형은 동일하므로 음소에 의해 음운론적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온 것이라고 보면 설명이 될 수 있다.14) 성조의 차이가 음소의 차이를 가져 왔는지, 음소의 차이 때문에 성조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ㅆ/의 분포에 규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ㅅ/의 경우에는 성조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두 소리가 음소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그러나 강조해서 발음할 때는 /ㅆ/가 다소 정확하게 발음되나 빠른 발화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현재 어두에서 발음되는 /ㅅ/과 /ㅆ/은 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녕 지역어를 조사한 여러 논의에서 학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15)

2.2 유음소 목록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유음소는 /ㄹ/ 하나이다. 이는 다음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어두 위치에는 올 수 없고 비어두 초성과 종성 위치에서 확인된다.

(8) 곡성의 유음소 최소 대립쌍

① 초성 ㄹ: ㄴ	지레(기구명) : 지네(蟲)	
② 종성 ㄹ: ㅇ	발(足) : 방(房)	

(9) 창녕의 유음소 최소대립쌍

① 초성 ㄴ : ㄹ	도니(錢) : 도리(石)	(LH)
② 종성 ㄷ : ㄹ	만도(萬) : 말도(言)	(LH)

이상에서 논의한 곡성과 창녕 지역어의 자음소와 유음소를 조음위치와

14) 현대 한국어의 음운 변화 중에서 어두의 경음화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더욱 그 경향성이 심한 것을 고려할 때 설명이 가능하다.

15) 'ㅅ'와 'ㅆ'의 대립에 의해서 방언 구획을 할 때 낙동강 오른쪽은 비변별적이고 낙동강 왼쪽은 변별적이라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나, 창녕 지역은 등어 지대에 속하여 논의마다 다르게 구분 지어진다. 음운면에서 본 경남 방언의 구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김정대(2000)을 참고할 수 있다.

조음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자음소와 유음소 목록

조음방법 \ 조음위치		양순음소		치경음소		경구개 음소		연구개 음소		성문음소	
파열음소	평음소	ㅂ	ㅂ	ㄷ	ㄷ			ㄱ	ㄱ	ㆆ	ㆆ
	경음소	ㅃ	ㅃ	ㄸ	ㄸ			ㄲ	ㄲ		
	유기음소	ㅍ	ㅍ	ㅌ	ㅌ			ㅋ	ㅋ		
마찰음소	평음소			ㅅ	ㅅ					ㅎ	ㅎ
	경음소			ㅆ	ㅆ*						
파찰음소	평음소					ㅈ	ㅈ				
	경음소					ㅉ	ㅉ				
	유기음소					ㅊ	ㅊ				
비음소		ㅁ	ㅁ	ㄴ	ㄴ			ㅇ	ㅇ		
유음소				ㄹ	ㄹ						
		곡	창	곡	창	곡	창	곡	창	곡	창

*: 일음절에서만 변별됨

정리하자면 곡성 지역어의 음소는 자음소 19개, 유음소 1개이고 창녕 지역어의 음소도 자음소 19개, 유음소 1개이다. 경상 방언 지역이 음소 수가 더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두 지역어의 자음소 수는 동일하다. /ㅆ/은 일음절에서만 변별된다는 제약이 있으나 음소로서의 지위는 확인되었다. /ㆆ/이 두 지역어에서 모두 음소로 설정되었다. 물론 많은 경상도 지역어들에서 /ㅆ/이 음소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전라도 지역어들에서도 /ㆆ/가 음소로 설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므로 이 결과는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 한정하자면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는 자음소의 수가 동일하다.

2.3. 활음소 목록

❶ 곡성

곡성 지역어의 활음소에는 /y/, /w/가 있다. 이는 다음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곡성 지역어의 활음소 최소대립쌍

y : ∅ 열:고(開) : 얼:고(凍)

w : ∅ 쉰:다(餿) : 신:다(掃)

(2) 곡성 지역어의 활음소 'y'가 포함된 어형

① 옆, 여그, 열, 여자, 여럿

② 여코(入), 열고(開), 영꺼서(編), 야트고(薄)

③ 쇠-(老) : 쇠야서, 쇠:드라

cf) 피:-(開) : 피:도, 피:서, 피:니까

페-(伸) : 페:도, 페:서, 페:니까

곡성 지역어에서 활음소 /y/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2)①②에서와 같이 곡용형과 활용형에서 여러 단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모음소 /이/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어X'와 만나 음운 현상을 겪은 후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는 /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곡성 지역어에서 이 경우에는 /에/로 단모음소화 되는 음운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16] (2)③과 같이 활음소 삽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실현될 수 있다. 표준어형에서 초성에 자음소를 지니고 모음에 /y/가 포함되어 있는 '피-'와 같은 어형들은 /페-/와 같이 그 어간이 이미 /에/로 재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음이 나타날 환경이 되지 않는다.

(3) 곡성 지역어의 활음소 /w/가 포함된 어형

① 나와서(出), 이뤄서(成)

② 눠서(臥), 꿔서(炙), 더롸서(汚)

16) 수의적으로 [펴서]가 발음되기도 하나 이는 표준어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페서]로 발음된다.

곡성 지역어에서 활음소 /w/는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현될 수 있다. (3)①과 같이 /오/나 /우/로 끝나는 어간형이 어미와 만날 때 활음소화 결과 나타나는 형태도 있고, (3)②와 같이 소위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형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형태도 확인된다.17) /w/의 경우 곡성 지역어에는 이와 관련된 단모음소화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현에 제약이 없고 여러 환경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❷ 창녕

창녕 지역어의 활음소에도 /y/와 /w/가 있다. 이는 다음의 최소대립쌍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창녕 지역어의 활음소 최소대립쌍

y : ∅	열고(開) : 얼고(凍)	(LH)
w : ∅	와(의문사 왜) : 아(감탄사)	

(5) 창녕 지역어의 활음소 /y/가 포함된 어형

① 여덜(八), 야시(狐), -야(호격 조사), 엳

② 열버서(薄), 야푸고(淺), 열고(開), 이야고(暗誦), 미야고(塡)

③ 엳따(이-얻따 戴)

③' 기이서(기-어서 匍腹), 디이서(디-어서 硬)

④ 구녕, 말랴(말리-어)

창녕 지역어에서도 활음소 /y/는 대부분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이는 곡용과 활용에서 마찬가지이다. 어간이 /이/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어X'와 만나 활용을 하면 (5)③과 같이 어간 모음소가 활음소화 되어 활음소 /y/가 실현된다. 그러나 이 또한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5)③'처럼 어미가 /이/로 완전순행동화 되어

---

17) 이 경우에 '누워서', '꾸워서', '더러와서'라는 활용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3)②와 같이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어간의 기저형을 '누{ㅂ~우}'로 설정할지 '누{ㅂ~∅}'로 설정할지가 문제가 되나 '누워서'라는 어형도 가능하고 '눠서'의 경우 일음절이 장모음소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ㅂ~우}'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된다. 어미가 /이/로 동화되므로 또한 활음이 나타날 환경이 되지 못한다.

(5)④의 예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음절 이하에서 /y/ 앞에 /ㄴ/이나 /ㄹ/이 선행될 경우, 구개음 [ɲ, ʎ]와 함께 /y/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한정하여 /y/가 초성 자음과 동시에 실현된다.

(6) 창녕 지역어의 활음소 /w/가 포함된 어형
① 왔따(오-앗-다 來), 도왔따(도오-앗-다 助),
쏘왔따(쏘오-앗-다 針), 배웠따(배우-앗-다 學)
② 개뤘따(개루-앗-다 競), 숭궜따(숭구-앗-다 植)

창녕 지역어에서 활음소 /w/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이는 (6)①에서 보는 것과 같다. 어간 마지막 음절 초성에 자음소가 있고 /우/나 /오/로 끝나는 어형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6)②와 같이 어미의 모음소는 완전순행동화 시켜서 발음하게 되므로 /w/가 나타날 환경이 되지 못한다.18)

<표 2>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활음소 실현 환경

환경 / 활음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			
	일음절		이음절 이하		일음절		이음절 이하	
y	o	o	o	o	x	x	o	△
w	o	o	o	o	o	x	o	x
	곡성	창녕	곡성	창녕	곡성	창녕	곡성	창녕

△: 자음소는 /ㄴ, ㄹ/에 한정됨.

18) 초성에 자음소가 있고 모음소 /우/나 /오/로 끝나는 어간이 항상 어미를 순행동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음절을 또박또박 발음 하고자 할 때는 활음소 /w/을 삽입하여 [두웠따]로 발음하기도 하며 /w/를 탈락시켜 [두엇따]로 발음하기도 한다. 또한 /누-/와 같은 특정한 어간의 경우에는 [놨따]처럼 단모음소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활음소 /w/이 발음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초성에 자음소를 포함한 음절을 발음하지는 않는다.

2.4. 모음소 목록

모음소의 목록은 단모음소와 이중모음소로 나누어 살펴본다. 곡성 지역어의 경우 어두에서 장음소(長音素)와 단음소(短音素)의 구분이 가능하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성조가 의미를 변별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본고에서는 창녕 지역어의 성조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일부 음운 현상에서 관찰되는 특징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4.1. 단모음소 목록

❶ 곡성

곡성 지역어의 단모음소는 모두 20개이다. 10개의 단(短)단모음소와 10개의 장(長)단모음소가 있어서 총 20개가 된다. 전남 방언을 단모음소 수에 의해 동서로 양분할 때 곡성이 속한 동부 전남 방언은 /에/와 /애/가 구분되는 10모음소 지역에 속한다.[19] 곡성 지역어의 단모음소 목록과 해당 모음소를 포함한 단어를 제시한다.

(1) 곡성 지역어의 단모음소 목록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2) 곡성 지역어의 단모음소를 포함한 단어의 예

띠(場所), 떼(群), 때(時), 쉬(蠅卵), 쇠(鐵),

틀(機), 털(毛), 탈(頉),국(羹), 곡(哭)

모음소 중에서 /에/와 /애/는 어두에서만 구분이 가능하다. 즉, 이음절 이하에서는 주의 깊은 발화일 경우를 제외하고, 두 모음소의 변별이 가능하지 않다.

❷ 창녕

19) 이기갑(1986:21-23)에서 전남 지역의 방언 구획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창녕 지역어의 단모음소는 모두 6개이다. 경남 방언은 단모음소의 수에 의해 나누면 6단모음소 체계를 가진 동남부 방언과 7단모음소 체계를 가진 서부 방언, 그리고 8단모음소 체계를 가진 서북부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20] 창녕은 이중 동남부 지역에 속한다. 창녕 지역어의 단모음소 목록과 그 최소 대립쌍은 다음과 같다.

(3) 창녕 지역어의 단모음소 목록

이, 애(E), 어(ᴈ), 아, 우, 오

(4) 창녕 지역어의 단모음소 최소대립쌍

① 이 : 애 띠(帶) : 때(時)

② 이 : 어 끼리서(使沸) :-거리서(접사) (HLL)

③ 아 : 오 살(肉)이 : 솔(松)이 (HH)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단모음소를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3> 단모음소 목록

혀의 위치	전설				후설			
입술 모양 / 혀의높이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이	이	위		으	어	우	우
중	에	애	외		어		오	오
저	애				아	아		
	곡성	창녕	곡성	창녕	곡성	창녕	곡성	창녕

현대 한국어에서 발음될 수 있는 최대의 단모음소를 모두 가진 곡성에

20) 김정대(2000:103-105)에서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외/와 /위/는 이중모음소로 발음되며, /에/와 /애/가 구분되면 7모음소 체계가 되고, /으/와 /어/가 구분되면 8모음소 체계가 된다.

비해 창녕은 최소의 단모음소를 가진다. 이는 이 두 지역어가 모음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모음에 적용되는 음운 규칙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하게 한다.

2.4.2. 이중모음소

이중모음소는 활음소와 단모음소의 결합체이다. 2.3.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활음소는 모든 환경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초성 위치 자음의 존재 여부와 어두인가 어중인가에 따라 실현 경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중모음소 역시 그러한 제약을 가지게 된다.[21)]

❶ 곡성

곡성 지역어에는 /y/계 이중모음소 6개, w계 이중모음소 4개로 총 10개의 이중모음소가 음소로 설정된다. /y/계 이중모음소부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곡성 지역어의 이중모음소
　① /y/계 이중모음소: 여, 야, 예, 얘, 유, 요
　② w계 이중모음소: 워, 와, 웨, 왜

(2) 곡성 지역어 /y/계 이중모음소의 예

① 여:	1음절	역(驛), 영ㄲ-(編),
	2음절 이하	안경, 무병허니, 성녕깐(대장간)
①' 성(형), 베(벼), 왕저(왕겨), 게론(결혼)		
② 야:	1음절	야우-(瘠), 야달(八)
	2음절 이하	기양(그냥), 외약쪽(왼쪽), -냐(어미), 대략, -랴(어미), 몰랴서(말려서)
②' 행(향), 성냥(성냥)		

21) 임석규(2007c)에서는 음절수가 음운과정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에 주목하여 부사형 어미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일음절 어간과 이음절 이상 어간에 대한 정밀한 논의를 통해 음절수가 음운과정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절에서 논의하는 이중모음소의 실현환경은 음운과정은 아니지만 음운론적인 실현에서 음절수가 중요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 시켜준다.

③ 예:	1음절	예(禮/例/대답), 예쩐에(예前에)
	2음절 이하	-
④ 얘:	1음절	얘(이 사람), 얘기(談)
	2음절 이하	-
⑤ 유:	1음절	육(六), 윤노리(윷놀이)
	2음절 이하	그뉵(筋肉)

⑤' 귀칙(규칙), 쉬일(휴일)

⑥ 요:	1음절	요리(이리), 요리찝(食堂), 교통(交通), 효자(孝子)
	2음절 이하	-머뇨(-면요), 학꾜

전체적인 숫자로 보아 /y/계 이중모음소 중에서 /여/와 /야/의 용례가 가장 많다. 다른 /y/계 이중모음과 달리 이들의 예는 용언 어간에서도 다양하게 발견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1음절 위치에서 초성의 자음소가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기원적으로 '여'나 '야'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들은 (2)①'이나 (2)②'처럼 단모음소화된 결과로 사용되고 있다. [결]이라는 발음을 할 수 있음에도 '결혼'과 같은 한자어가 발음이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초성이 있을 경우 /여/의 발음은 그리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2음절 이하에서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의 예는 관찰되는데, '안경', '무병'과 같은 한자어를 제외하면 구개음화된 /ㄹ/이나 /ㄴ/이 개재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22] 즉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여/와 /야/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와 이음절 이하에서 구개음 [ɲ]과 [ʎ]이 초성에 있는 경우에만 실현된다.

/예/, /얘/의 경우에는 (2)③④에서 보듯이 2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예는 찾을 수 없다. 1음절에서 실현되더라도 초성에 자음소가 오지는 않는다. '계획'과 같은 한자어의 경우 일음절의 모음소는 이중모음소가 아니라 단모음소로 실현되어 [게옥]으로 나타나고,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도 '옛날'은 /엔날/로, '예쁘-'는 /이삐-/로 사용되고 있다. 즉, /예/와 /얘/가 실현되

22) 이상신(2008:20-26)에서 기원적으로 단어 내부에 활음을 지녔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를 환경별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인근 영암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곡성 지역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는 하나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이 빈번하다고 할 수 없다.

/유/와 /요/의 경우에는 (2)④⑤에서 보듯이 몇 개의 곡용 어간에서 실현된다.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의 예도 확인되는데 이는 모두 한자어라는 특징이 있다. 한자어의 경우 기원적으로 '유'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들은 (2)⑤'처럼 단모음소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⑥의 /-며늬/와 (23)⑤의 /그늑/의 경우에는 구개음 [ɲ]이 발음되므로 발음상 실현이 쉬운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한자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유/와 /요/ 또한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곡성 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소를 살펴 보자. 곡성지역어에는 /워, 와, 웨, 왜/의 총 4개의 /w/계 이중모음소가 있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3) 곡성 지역어 w계 이중모음소의 예

①	워	1음절	원망(怨望), 권투(拳鬪),
		2음절 이하	두루눠서(드러누워서), 시비뤌(십일월)
②	와	1음절	왕(王), 과자(菓子)
		2음절 이하	당과서(담가서)
③	웨	1음절	웬닐, 퀘기(새꽤기), 궤짝, 뛔서(뛰어서)
		2음절 이하	-
④	왜	1음절	왜난(倭亂), 홰때(鷄架)
		2음절 이하	-

/워/와 /와/는 1음절과 2음절에서 모두 실현되며 자음소가 선행해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웨/와 /왜/는 그 예도 적을뿐더러 2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1음절에서 실현될 경우에는 자음소가 선행되는 예가 있다.

❷ 창녕

창녕 지역어에는 /y/계 이중모음소 5개, w계 이중모음소 4개로 총 9개의 이중모음소가 음소로 설정된다. /y/계 이중모음소부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창녕 지역어의 이중모음소

① /y/계 이중모음소: 여, 야, 얘(yE), 유, 요

② /w/계 이중모음소: 워, 와, 왜(wE), 위(wi)

(5) 창녕 지역어 /y/계 이중모음소의 예

① 여:	1음절	여코(入), 엳따(藏, 이-었-다),
	2음절 이하	자영(姊兄), 이중년(이 즈음),
		구녕(구멍), 숭년(흉년), 솔려(孫女)
①' 비룩(벼룩), 허용(形容 형용), 깅노당(敬老堂), 빙(病)		
② 야:	1음절	약(藥), 야푸-(淺)
	2음절 이하	모양, 미야-(塡), 하얗-(白),
		천냥, 냉냥고(냉장고), 싱냥(食糧),
		말랴(말리-어)
③ 얘:	1음절	얘(대답), 얘기
	2음절 이하	모얭(모양), 헤얘대고(헤야되고)
④ 유:	1음절	육(六), 윹(윷), 유멩(有名)
	2음절 이하	교육, 키율쩌개(키울적에)
		거눅(筋肉), 종뉴(種類), 말류마(말리면)
⑤ 요:	1음절	요쪼(이쪽), 욕심
	2음절 이하	모욕(목욕),
		-영교?(어미), 학교(學校), 항교(鄕校)
		담뇨(담요), 엄뇨수(음료수)

창녕 지역어의 /y/계 이중모음소는 /여, 야, 얘, 유, 요/의 5개가 있다. 단모음소에서 /애/와 /에/가 구별되지 않으므로 이중모음소에서도 /얘(yE)/ 하나가 설정된다. 이 다섯 개의 모음소는 모두 첫 번째 음절에서 실현될 때는 자음소를 선행 시키지 않는다. (5)①②의 예들에서 관찰되듯이 창녕 지역어에서도 곡성 지역어와 마찬가지로 이중모음소 /여/와 /야/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들 모음소는 곡용 어간에서 뿐만 아니라 활용 어간에서도 관찰된다. 그러나 일음절에서 자음소가 선행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데, 기원적으로 자음소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들은 (5)①'과 같이 단모음소화된 결과로 사용되고 있다.

/애/의 경우는 그 예가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2음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5)③에서와 같은 정도가 다인데 이 또한 수의적으로 나타나며 단모음소를 가진 발음 즉 [모앵], [해애대고]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와 /요/는 그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첫음절에서 쓰일 때는 자음소를 선행 시키지 않는다.[23] 이음절 이하에서 쓰이는 예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위의 예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 야, 요, 유/의 경우 이음절 이하에서 자음소가 선행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자음소는 대부분 구개음화된 /ㄴ/이나 /ㄹ/, 즉 [ɲ, ʎ]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곡성 지역어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곡성 지역어에서는 그러한 예가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창녕 지역어에서는 다양한 어형에서 발견된다. 여러 방언에서 이중모음소 앞에는 자음소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중모음소가 포함된 음절을 발음할 때 '자음-활음-모음' 연쇄의 발음이 한국어 화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런 경우에 가능한 자음소는 활음소 /y/와 조음위치가 비슷한 구개음 /ɲ, ʎ/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바로 이들 지역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창녕 지역어의 w계 이중모음소는 /워, 와, 왜, 위/의 4개이다. 아래 예에서 보듯이 /와/의 경우 /ㄱ/을 선행시키는 예를 제외하면 자음소를 선행시키는 경우는 없다. /왜/와 /위/의 경우 몇 가지 어형에서 발견되어 이중모음소로 설정하였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

(6) 창녕 지역어 w계 이중모음소의 예

① 워:	1음절	원망(怨望), 원간(워낙)
	2음절 이하	빙원(病院)
② 와:	1음절	왕(王), 과자(菓子), 과보(寡婦)
	2음절 이하	도왇따(助 도오-았-다)
③ 왜:	1음절	왜난~애난(倭亂), 왜럽-(孤)
	2음절 이하	-
④ 위:	1음절	위~이(참외), 위막(원두막), 위솔려(外孫女)
	2음절 이하	-

23) '휴일'의 경우 발음되기도 하나 [후일]로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이중모음소 목록은 그 실현 환경에 따라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두 지역어는 이중모음소의 목록에서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그 실현 환경에서도 차이가 난다. 같은 음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현되는 환경과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로 화자들이 느끼는 차이는 더 크리라 예상할 수 있다.

<표 4>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이중모음소 목록과 실현 환경

활음 \ 환경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			
	일음절		이음절 이하		일음절		이음절 이하	
여	o	o	o	o	x	x	o	△
야	o	o	o	o	x	x	o	△
예	o	o	x	△	x	x	x	x
애	o		x		x		x	
유	o	o	o	o	x	x	△	△
요	o	o	o	o	x	x	△	△
워	o	o	o	o	o	x	o	x
와	o	o	o	o	o	△	o	x
웨	o	o	x	x	o	x	x	x
왜	o		x		o		x	
위		o		x		x		x
	곡성	창녕	곡성	창녕	곡성	창녕	곡성	창녕

△: 예가 발견되기는 하나 수가 매우 적거나 선행자음소가 한정된 경우

2.5. 요약

본 2장에서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음소 목록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음소 목록을 단순히 비교하자면 두 지역어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차에 불과하다. 자음소의 수에서는 차이가 없고, '으/어', '애/에' 구분 여부에 의해 모음소 수에서 4개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 밖의 것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 결과, 단순히 목록을 비교해서는 두 지역어의 음소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은 음소가 공통적으로 관찰되더라도 그 실현 환경과 실현 빈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음소적인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자음소(유음소 포함)의 특징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는 19개의 자음소와 1개의 유음소가 있다. /ㅂ, ㅃ, ㅍ, ㅁ, ㄷ, ㄸ, ㅌ, ㄴ, ㅅ, ㅆ, ㅈ, ㅉ, ㅊ, ㄱ, ㄲ, ㅋ, ㅇ, ㅎ, ㆆ/와 /ㄹ/이 그것이다.

(1)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는 /ㆆ/이 음소로 설정된다. 창녕 지역어에서 /ㆆ/는 /퍻-/(吸煙), /좋-/(拾), /짛-/(作), /붛-/(腫)에서 확인된다. 곡성 지역어에서 /ㆆ/은 단일 어간의 기저형에서 관찰 할 수는 없으나 복합 기저형을 가지는 어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어의 '듣-'에 해당하는 곡성 지역어의 기저형은 /듣-~듫-/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기저형에서 /ㆆ/의 존재를 확인한다. 또한 /ㅀ/말음 어간을 가지는 /높-, 싫-, 끓-/ 등이 수의적으로 /높-, 싫-, 끓-/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ㆆ/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곡성과 접한 전라북도 남원 지역과 곡성의 남쪽인 보성과 고흥 일부 지역에서도 '싫고'에 해당하는 활용형이 [실꼬]로 발음되고 있어 전라도 지역어에서 /ㆆ/이 음소로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창녕 지역어에서 /ㅆ/는 음소로 설정되나 이음절 이하에서는 /ㅅ/과 변별되지 않는다. 즉, 일음절에서만 음소로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창녕 지역어에서는 일음절에서나 이음절 이하에서나 /ㅆ/이 변별적이므로

두 지역어의 자음소 음소목록은 동일하나 /ㅆ/에 한해서 그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창녕 지역어에서 /ㅅ/과 /ㅆ/이 일음절에서는 변별이 된다.

시러따(厭) : 씨러따(掃) (HHL)

그러나 이음절 이하에서는 변별되지 않는데 다음의 예에서 확인된다.

안 쌀마서 [안쌀마서~안살마서]

또한 /ㅆ/이 포함된 어간이 '-지, -고, -나' 등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 항상 고조(H)로 실현되는 음절에 /ㅆ/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씨고(HL), 썯다(HL)	(불을 켜다)
씩꼬(HH), 씨벋다(HHL)	(맛이 쓰다)
시고(LH), 시읻따(HLL)	(쉬다)

2 활음소의 특징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는 /y/와 /w/ 두 개의 활음소가 있다.

(1) 활음소 /y/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 음절에 관계없이 실현되지만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절 이하에서만 실현된다.

(2) 활음소 /w/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 음절에 관계없이 실현된다. 그러나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 곡성 지역어에서는 실현 가능하나 창녕 지역어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단 '구녕, 말랴'의 예에서와 같이 /ㄴ/과 /ㄹ/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한해 초성자음소 뒤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활음 \ 환경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			
	일음절		이음절 이하		일음절		이음절 이하	
y	o	o	o	o	x	x	o	△
w	o	o	o	o	o	x	o	x
	곡성	창녕	곡성	창녕	곡성	창녕	곡성	창녕

③ 단모음소의 특징

곡성 지역어에는 10개의 단(短)단모음소와 장(長)단모음소가 있어 총 20개의 단모음소가 있다. 창녕 지역어에는 6개의 단모음소가 있다.

(1) 곡성 지역어의 단모음소는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로 한국어의 최대 단모음소 목록을 지닌다.

(2) 창녕 지역어의 단모음소는 /이, 애(E), 어(Ǝ), 아, 우, 오/로 6개만이 단모음소로 존재한다.

④ 이중모음소의 특징

곡성 지역어에는 10개(여, 야, 예, 얘, 유, 요, 워, 와, 웨, 왜)의 이중모음소가 있고, 창녕 지역어에는 9개(여, 야, 얘, 유, 요, 워, 와, 왜, 위)가 있다.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는 두 지역어 모두에서 이중모음소의 실현이 자유로우나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 대부분 이중모음소의 실현이 어렵다. 곡성 지역어의 경우에도 창녕 지역어 보다는 실현될 수 있는 이중모음소의 수가 많기는 하나 제한된 이중모음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1) /y/계 이중모음소 중 /여, 야, 유, 요/는 그 예가 많다. 이들 이중모음소는 이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경우 초성에 /ㄴ/과 /ㄹ/이 있을 때만 실현가능하다. 이때의 /ㄴ/과 /ㄹ/은 구개음이다.

(2) /예, 얘/는 그 예가 적으며 두 지역어 모두 일음절에서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만 실현된다.

(3) w계 이중모음소 중에서는 /워/와 /와/의 예가 많은데,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는 음절에 관계없이 실현되나 자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곡성 지역어에서만 실현된다.

(4) /웨, 왜/는 일음절에서만 실현되며, 창녕 지역어에서는 초성에 자음소가 있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3. 어간의 기저형

본 장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한다.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음운론이 아니라 형태론적인 작업이다. 기저형을 설정한다는 것은 형태론의 논의 단위인 형태소를 설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공시적인 음운과정은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음운과정에 대한 음운론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저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생성 음운론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자면 당연히 이러한 기저형의 설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음운론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즉, 형태론적인 기저형 설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음운론적인 음운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24]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어간 형태론을 먼저 논의하고 이를 통해 4장에서 이루어질 음운과정에 대한 논의의 바탕을 삼는다.

어간에 대한 음운론적 논의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저형을 설정하는 타당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저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음성형으로부터 정확한 형태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여 설정된 기저형으로부터 그 기저형의 모든 교체형의 도출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의 논의에 적용되는 형태분석과 기저형 설정을 위한 기준은 최명옥(2008:41-59)를 따른다. 그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1: 어떤 음운론적 환경에서도 변화가 없는 형태는 그 자체가 형태소가 된다.

기준2: ㉮ 활용의 경우, 먼저 /ㄷ/나 /ㅈ/(/ㄱ/)로 시작하는 어미와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활용형을 분석한다.

㉠ 분석된 어간이 모두 자음(유음 포함)으로 끝나면, 어미 /-

24) 최명옥(2008:42f)는 생성 이론적 언어 연구를 하려면 '음운론'에서 '형태론'이 아니라 '형태론'에서 '음운론'으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본고의 연구도 그 연구 방향을 따른다.

{아,어}Y/와 통합하는 어간을 잠정 형태소로 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이형태의 도출을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써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잠정 형태소를 형태소로 정한다.

부칙: 어간의 형태소가 1음절인 경우, 어미 /-CY/와 통합하는 어간이 장모음(또는 상승조)을 가진다면, 결정된 형태소의 모음소를 장모음소(도는 상승조를 가진 모음소)로 표시해야 한다.

㉡ 분석된 어간이 모음소로 끝나면 /ㄷ/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형을 잠정 형태소로 정하고 그 합당성을 검토한다.

㉢ 분석된 어간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것은 모음소로 끝나고 /ㄷ/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것은 유기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유기음으로 끝나는 이형태를 잠정 형태소로 정하고 그 합당성을 검토한다.

부칙: 이음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음소는 해당 이음들 중의 어느 하나이거나 대상 언어의 음소목록에 있는 음소라야하며 음소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 이음들 모두를 어간말 음소로 인정해야 한다.

㉯ 곡용의 경우, 먼저 주격어미(-{이-가}/), 향격어미(/-으로/), 그리고 처격어미(/-에/)와 통합하는 어간을 분석한다.

㉠ 분석된 어간이 이형태를 가지지 않으면 그 자체를 형태소로 정한다.

㉡ 분석된 어간이 이형태를 가지면 이형태 상호간에 동일한 부분을 해당 형태소의 일부로 하고 차이를 보이는 음성들 즉, 이음들을 대상으로 음소를 정하여 형태소를 설정한다.

ⓐ 어간이 모두 자음소로 끝나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을 잠정 형태소로 정하고 그 합당성을 점검한다.

ⓑ 차이를 보이는 이음들로부터 형태음소를 설정할 수 없으면 그들 이음 모두를 어간말 음소로 인정해야 한다.

기준3: 기준2를 통해 /-ㄷY/, /-VY/와 통합한 음성형에서 분석된 어간의 이형태가 하나의 형태소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어미 /-ㄷY/와 통합한 어간이 자음소로 끝나고 어미 /-VY/와 통합한 어간이 유음으로 끝나는데도 유음 뒤에 어미초의 /으/가 칠현되어 있으면, 어미 /-VY/와 통합하는 어간의 이형태가 가진 어간말 음소나 음소군은, 한국어의 다른 방언에 해당 어간이 단일화된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의 어간말 음소나 음소군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어미 /-ㄷY/와 통합한 어간이 모음소로 끝나는데도 어미 /-어Y/와 통합한 어간이 자음소가나 유음으로 끝나면, 어미 /-어Y/와 통합하는 어휘화한 이형태는 모음소로 끝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해당 어간이 한국어의 다른 방언에 단일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어간말 음소나 음소군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해당 어간이 단일화한 것이 없으면, 그리고 그 어간이 변화를 겪은 것이라면, 해당 어간보다 앞 시기의 어간말의 음소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 그 합당성을 검증한다.

어미의 기저형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어미형태에 대한 논의는 깊게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제시하지 않는다.

3.1. 곡용 어간의 기저형

본 절에서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곡용 어간의 기저형을 단일 기저형과 복합 기저형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어간의 기저형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한 어미는 '/-{이-가}/, /-(으)로/, /-{을-를}/, /-에/, /-도/'이며 이는 곡성과 창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미이다.[25]

25) 창녕 지역어에서는 '으'와 '어'가 변별되지 않으므로 /-으로/의 경우는 /-어로/로, /-{을-를}/의 경우에는 /-{얼-럴}로 표기된다. 또한 창녕 지역어의 /-어로/는 처격 조사일 경우도 있고 도구격 조사일 수도 있으나 음운론적인 논의에서 의미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에'와 '애'의 변별도 없으므로 /-애/가 처격 조사로 사용된다.

3.1.1 단일 기저형

곡용 어간의 단일 기저형은 어간말 음소에 따라 자음소로 끝나는 것, 유음소로 끝나는 것, 모음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3.1.1.1.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은 단일자음소로 끝나는 것과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단일 자음소로 끝나는 기저형을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다.

❶ 곡성

먼저 양순음소로 끝나는 곡용 어간의 기저형을 살펴본다.

(1ㄱ)

① /Xㅂ/類: [지비, 지부로, 지베, 집또]
집-이, 집-우로, 집-에, 집-또
② /Xㅁ/類: [지미, 지무로, 지메, 짐도]
짐-이, 짐-우로, 짐-에, 짐-도

곡성 지역어의 곡용형을 분석하여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더 있다.

(1ㄴ)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ㅂ/類: 집(家), 입(口), 갑(價<값), 집(<짚), 숩(<숲)
② /Xㅁ/類: 봄(春), 짐(荷物), 놈(사람)

기원적으로 자음소군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갑/(값)은 자음소군단순화와 관련되어 재구조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집/(짚)과 /숩/(숲)처럼 /ㅍ/을 말음으로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들은 음절말 평파열음소화와 관련되어 재구조화된 것으로 생각된다.[26] 따라서 곡성 지역어에서는 양순음 /ㅍ/을

---

26) 영암 지역어의 예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며(이상신, 2008:34) 이는 전남 방언의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말음으로 가지는 곡용 어간은 없다.27)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은 /Xㅅ/류와 /Xㄴ/류 두 가지이다. 다음 (2ㄱ)에서 그 예를 확인 할 수 있다. (2ㄱ)①의 [옫또]는 평파열음소화와 경음소화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기저형은 /옷/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8) (2ㄱ)②는 어간이 이형태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대로 /돈/이 분석된다.

(2ㄱ)

① /Xㅅ/류: [오시, 오스로, 오세, 옫또]
옷-이, 옷-으로, 옷-에 옫-또
② /Xㄴ/류: [도니, 도느로, 도네, 돈도]
돈-이, 돈-으로, 돈-에, 돈-도

(2ㄴ)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ㅅ/류: 꼿(<꽃), 낫(鎌), 낫(<낮), 옷(衣服), 젓(<젖), 폿(<팥)
② /Xㄴ/류: 돈(錢), 논(畓), 미신(迷信), 안(內)

위의 예에서 보듯이 표준어형에서 /ㅈ,ㅊ,ㅌ/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형들은 모두 /ㅅ/을 말음을 가지는 기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재구조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살펴본다.

(3ㄱ)

① /Xㄱ/류: [구기, 구그로, 구게, 국또]
국-이, 국-으로, 국-에, 국-또
② /Xㅇ/류: [강이, 강으로, 강에, 강도]
강-이, 강-으로, 강-에, 강-도

---

27) '앞, 옆'에 해당하는 것은 /아페/', /여페/로 재구조화 되었다.

28) /옷/이 /-도/와 통합하여 [옫또]를 도출하고 그 이후에 [오또]라는 발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배주채(1996:131)에서는 '중복자음감축'이라는 음운과정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는 [옫또]와 [오또]의 발음이 확연히 구분되며, 음운론적으로 음소 하나가 탈락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논의의 대상인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그 두 발음이 구분되지 않으며, 음성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운론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고 여겨서 그 둘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물론 음운규칙으로 설정하지도 않는다.

이 경우에도 어간의 기저형을 /국/으로 잡는 것이 문제가 없다. /ㅇ/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분석된 어간 부분이 그대로 /강/으로 기저형으로 설정된다. 이 같은 예를 더 보면 다음과 같다.

(3ㄴ)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ㄱ/류: 국(羹), 속(內), 삭(賃金 <삯), 흑(<흙), 넉(<넋), 입싹(잎사귀)

② /Xㅇ/류: 강(江), 방(房), 성낭(성냥), 성(兄)

/ㄱ/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보면 /삭/, /흑/, /넉/처럼 표준어형에서 자음소군을 가진 어형들이 /ㄱ/만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는 자음소군단순화에 의해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두 개의 자음소 중에서 /ㄱ/이 남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곡성 지역어에서 유기음소 /ㅋ/로 끝나는 곡용 어간은 발견되지 않는다.[29]

곡성 지역어에서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곡용 어간은 없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자음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들은 모두 하나의 자음소를 말음으로 가진 것을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ㅌ, ㅋ, ㅍ/ 등의 유기음소를 말음으로 가진 기저형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❷ 창녕

창녕 지역어의 곡용 어간 중 양순음소로 끝난 것을 살펴보자.

(4ㄱ)

① /Xㅂ/류: [이비, 이부로, 이배, 입또]
입-이, 입-우로, 입-애, 입-또

② /Xㅍ/류: [이피, 이푸로, 이패, 입또]
잎-이, 잎-우로, 잎-애, 입-또

③ /Xㅁ/류: [보미, 보무로, 보매, 봄도]
봄-이, 봄-우로, 봄-애, 봄-도

29) '부엌'은 /정제/로 쓰이고, 방향을 나타내는 '녘'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ㄱ)의 곡용형들은 각각 /입/, /잎/, /봄/을 기저형으로 갖는다. 이 같은 예를 더 보면 다음과 같다.

(4ㄴ)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ㅂ/류: 입(口), 집(家), 헝겁
② /Xㅍ/류: 짚(藁), 잎(葉), 숲(林), 앞(前), 옆(側)
③ /Xㅁ/류: 봄(春), 짐(荷物), 버껌(거품), 버짐(癬)

그밖에 창녕 지역어에서 양순음소로 끝나는 곡용 어간에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다. '헝겁'처럼 표준어에서 /ㅍ/ 말음을 가진 어형이 /ㅂ/ 말음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4ㄴ)②와 같이 일음절 어간의 경우 대부분 /ㅍ/을 그대로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아래와 같이 /Xㅅ/류와 /Xㄴ/류의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는 곡성 지역어와 마찬가지이다.

(5ㄱ)
① /Xㅅ/류: [마시, 마서로, 마새, 맏또]
맛-이, 맛-어로, 맛-애, 맏-또
② /Xㄴ/류: [도니, 도너로, 도내, 돈도]
돈-이, 돈-어로, 돈-애, 돈-도

(5ㄴ)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ㅅ/류: 맛(味), 옷(衣服), 이웃(鄰), 못(鍊匠)
② /Xㄴ/류: 돈(錢), 논(畓), 방아깐, 반찬(飯饌), 보선(襪)

그러나 곡성 지역어와는 달리 경구개음소 /ㅈ/을 말음으로 가지는 곡용 어간이 있기 때문에 /Xㅅ/류 기저형의 수가 곡성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표준어의 /ㅊ/ 말음 어간 역시 복합 기저형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아래는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곡용예와 기저형이다.

(6ㄱ)

• /Xㅈ/류: [나지, 나저로, 나재, 낟또]

낮-이, 낮-어로, 낮-애, 낟-또

(6ㄴ)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 /Xㅈ/류: 낮(晝), 젖(乳)

다음으로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에 대해 살펴본다. 창녕 지역어에는 네 개의 연구개음소가 모두 곡용형 어간말에 올 수 있다.

(7ㄱ)

① /Xㄱ/류: [구기, 구거로, 구개, 국또]

② /Xㄲ/류: [바끼, 바꺼로, 바깨, 박또]

③ /Xㅋ/류: [다키, 다커로, 다캐, 닥또]

④ /Xㅇ/류: [강이, 강어로, 강애, 강도]

(7ㄱ)의 예들의 기저형은 [국], [밖], [닼], [강]으로 설정된다. 아래에는 그밖에 기저형의 예이다.

(7ㄴ)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ㄱ/류: 국(羹), 쏘옥(內), 싹(賃金),

② /Xㄲ/류: 밖(外)

③ /Xㅋ/류: 닼(鷄), 헠(土)

④ /Xㅇ/류: 강(江), 방(房), 구멍(穴), 딘장(된장), 떠꿍(뚜껑)

(7ㄴ)①의 /쏘옥/와 /싹/은 초성에 경음을 지니는 예이다. 앞서 창녕 지역어에서는 초성에서만 /ㅅ/과 /ㅆ/이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표준어형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에서 초성의 /ㅆ/이 발견된다. 경상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성의 경음화 현상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7ㄴ)③에서 보이는 어간은 표준어에서 /ㄺ/자음군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형들이다. 표준어에서 /ㅋ/을 말음으로 가지는 '부엌'은 '정기'로 쓰이고 있으므로 확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이 /ㄺ/자음군에 해당하는 어형들이 /ㅋ/ 말음 어간의 기저형

에 속한다.

창녕 지역어의 곡용형에는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이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8)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ㅄ/류: 값(價格)

[갑시, 갑서로, 갑새, 갑또]

② /Xㄳ/류: 넋(魂)

[넉시, 넉서로, 넉새, 넉또]

자음소군은 /ㅅ/으로 끝나는 경우만 발견된다. 표준어형에서 /ㄼ/이나 /ㄺ/류의 어형은 창녕 지역어에서는 단자음소로 발음된다.30) /ㅄ/과 /ㄳ/은 자음소군으로 남아 있는 것은 /ㅅ/이 마찰음이기 때문에 파열음과 모음소 사이에서 발음되기에 부담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31)

3.1.1.2.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는 모두 유음소로 끝나는 곡용 어간이 존재한다. 아래는 그 예이다.

(9ㄱ) 곡성 지역어의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 /Xㄹ/류: 발(足), 쌀(米), 야달(八), 폴(신체, 팔)

[바리, 바레, 발로, 발도]

(9ㄴ) 창녕 지역어의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 /Xㄹ/류: 돌(石), 발(足), 쌀(米), 여덜(八)

[도리, 도래, 돌로, 돌도]

위에서 살핀 자음소와 유음소로 끝나는 기저형의 특징을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를 서로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0) '여덟'은 창녕 지역어에서 /여덜/이고 '흙'은 /흑/으로 재구조화되었다.

31) 이때의 /ㅅ/은 표면형에서 실현될 경우 이음절에서 발음되므로 사실상 /ㅅ/과 /ㅆ/의 구분이 없다.

<표 5>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곡용 어간말 자음소와 유음소 유형

단일 자음소	양순음소	ㅂ	o	o
		ㅍ	x	o
		ㅁ	o	o
	치경음소	ㅅ	o	o
		ㄴ	o	o
	경구개음소	ㅈ	x	o
	연구개음소	ㄱ	o	o
		ㄲ	x	o
		ㅋ	x	o
		ㅇ	o	o
유음소		ㄹ	o	o
자음소군		ㅄ	x	o
		ㄳ	x	o
			곡성	창녕

3.1.1.3.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❶ 곡성

곡성 지역어에는 모음소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로 끝나는 기저형의 어간이 있다. 즉, 곡성 지역어의 모든 단모음소는 어간 말음소로 존재한다. 여기에서도 어간의 기정형은 최명옥(2008)에서 제시된 기저형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먼저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음성형에서 분석된 어간형을 어간의 기저형으로 간주한다. 그후 나머지 음성형이 이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기저형을 확정한다. 다음에 모음소별로 그 곡용형의 예를 하나씩 제시였다.

(10ㄱ) 곡성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곡용 예

① /X이/류: [가리가, 가리로, 가리에, 가리도] (가루, 粉)

② /X에/류: [떼가, 떼로, 떼에, 떼도] (무리, 群)

③ /X애/류: [때가, 때로, 때에, 때도] (시간, 時)
④ /X위/류: [귀가, 귀로, 귀에, 귀도] (귀, 耳)
⑤ /X외/류: [외가, 외로, 외에, 외도] (오이)
⑥ /X으/류: [거그가, 거그로, 거그서, 거그도[(거기, 場所)
⑦ /X어/류: [터가, 터로, 터에, 터도, 터부터) (터, 場所)
⑧ /X아/류: [내까가, 내까로, 내까에, 내까도] (냇가, 川邊)
⑨ /X우/류: [동우가, 동우로, 동우에, 동우도] (동이, 川器)
⑩ /X오/류: [소가, 소로, 소에, 소도) (소, 牛)

(10ㄱ)②와 (10ㄱ)③의 예는 최소 대립쌍을 조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하여 조사한 예이기 때문에 일음절에서 두 단어가 구분되어 발음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는 '떼'와 '때'가 단독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복합어나 구로 실현되기 때문에 음운론적 단어로 보면 이음절 이하에서 발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경우 '에'와 '애'는 구분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아래에 그밖에 조사 결과 관찰된 예들을 제시한다.

(10ㄴ) 곡성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예
① /X이/류: 고치(식물), 고치(누에), 여시(여우), 잘기(자루), 자리(장소), 고라니(동물), 돌씨(週歲), 낙씨(낚시), 새비(새우), 뚜깨비(두꺼비), 거마리(거머리), 뿌랭이(뿌리), 시리(시루)
② /X에/류: 떼(群), 하레(하루),
③ /X애/류: 때(時), 뉘애(누에), 수재(수저), 모심둘래(민들레), 잉애(잉아)
④ /X위/류: 쉬(蠅卵), 쥐(鼠)
⑤ /X외/류: 차뫼(참외), 사괴(사개, 건축용어)
⑥ /X으/류: 여그(여기), 저그(저기), 어느, 하우스(비닐하우스)
⑦ /X어/류: 머(뭐)
⑧ /X아/류: 내까(川邊), 한나(하나), 농사(農事),
⑨ /X우/류: 동우(동이), 배추, 무수(무), 나무~낭구(木), 짜구(자귀)
⑩ /X오/류: 소(牛), 벤소(便所)

곡용 어간의 경우 조사된 어형 중에서 /X이/류의 예가 다른 모음소로 끝나는 경우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시, 잘기, 새비, 시리'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표준어형의 /우/ 말음 어간이 대부분 /이/ 말음이며, 파생어미 '-이'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❷ 창녕

창녕 지역어에서도 단모음소 6개가 모두 곡용 어간말에서 발견된다. 아래는 그 곡용예와 어간 기저형의 예이다.

(11ㄱ) 창녕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곡용 예

① /X이/류: [가리가, 가리로, 가리애, 가리도] (가루, 粉)
② /X애/류: [개가, 개로, 개애, 개도] (개, 犬)
③ /X어/류: [저거가, 저거로, 저거는, 저거도] (저희)
④ /X아/류: [농사가, 농사로, 농사애, 농사도] (농사, 農事)
⑤ /X우/류: [누가, 누로, 누도] (누구)
⑥ /X오/류: [다노가, 다노로, 다노애, 다노도] (단오, 端午)

(11ㄴ) 창녕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예

① /X이/류: 가리(가루, 粉), 꼬치(고추), 무시(무), 여시(여우), 갱이(고양이), 염생이(염소)
② /X개/류: 개(犬), 소리개(솔개), 풍개(오얏), 장개(장가), 모래(모레), 아래(그저께), 할매(할머니), 할배(할아버지)
③ /X어/류: 저거(저희), 너거(너희)
④ /X아/류: 구루마(손수레), 감자(감자), 혼차(혼자)
⑤ /X우/류: 누(누구), 칭구(친구), 낙수(낚시), 처수(처남댁), 짝뚜(작두)
⑥ /X오/류: 다노(端午), 코(鼻), 소(牛), 삽초(나물 종류), 산초(酸草)

창녕 지역어도 곡성 지역어와 마찬가지로 /X이/류 어간이 많이 관찰된다. 그밖에 다른 모음소로 끝나는 어형도 다양하게 발견되나 (11ㄴ)③의

/X어/류는 조사된 자료에서는 위의 두 가지 예가 전부이다.

3.1.2. 복합 기저형

❶ 곡성

곡성 지역어의 복합 기저형 곡용 어간은 /X{ㅅ-ㅌ}/와 /X{ㅅ-ㅈ}/, 그리고 /X{ㄱ-ㅋ}/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 형태는 모두 곡용 어간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일부 어미와의 통합형이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서'와 '-으로' 등과 같은 처격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이전 시기의 형태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12ㄱ) /X{ㅅ-ㅌ}/형 곡용 어간의 예

① /바{ㅅ-ㅌ}/: [바시, 바슬, 바테서, 바트로, 받또]
밧-이, 밧-을, 밭-에서, 밭-으로, 받-또 (밭, 田)

② /베까{ㅅ-ㅌ}/: [베까시, 베까슬, 베까테서, 베까트로, 베깓또]
베깟-이, 베깟-을, 베깥-에서, 베깥-으로, 베깓-또 (바깥, 外)

(12ㄴ) /X{ㅅ-ㅈ}/형 곡용 어간의 예

• /나{ㅅ-ㅈ}/: [나시, 나슬, 나제는, 나스로, 낟또]
낫-이, 낫-을, 낮-에는, 낫-으로, 낟-또 (낮, 晝)

(12ㄷ) /X{ㄱ-ㅋ}/형 곡용 어간의 예

• /다{ㄱ-ㅋ}/: [다기, 다글, 다케, 다크로, 닥또]
닥-이, 닥-을, 닼-에, 닼-으로, 닥-또 (닭, 鷄)

배주채(1989:52)에서는 장소명사와 처격조사와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12ㄴ)이나 (12ㄷ)의 예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장소 명사에 한정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처격 어간과의 통합형에 옛 형태가 반영되는 현상에 대하여 김봉국(2002:69-70)에서는 처격조사는 생략되는 일이 거의 없어 처격형의 형태론적 구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렇게 밀접히 결합된 형태론적 구성에서 이전의 형식 또는 기저형이 유지됨은 자

연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곡성 지역어에도 그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복합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하나의 기저형으로는 서로 다른 이형태의 교체음을 공시적 음운규칙으로 합당하게 설명하여 도출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즉, 각 교체형의 선택 환경을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12ㄱ)①의 경우 /밧/은 /-이/와 /-을/와의 통합에서 선택되고, /밭/은 /-으로/와 /-에X/와의 통합형에서 선택된다. [받또]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 중 어느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ㅅ/과 /ㅌ/ 모두 평파열음소화 이후에는 /ㄷ/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하나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임의적이며 복수 기저형의 예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여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12ㄴ)의 경우에는 /-으로/와의 통합형에서도 기저형 /낫/이 나타나므로 [낟또] 역시 /낫-도/에서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된다.

/X{ㄱ-ㅋ}/형 곡용 어간의 예는 '닭'에 해당하는 위의 예 하나만이 관찰되었다. 표준어의 'ㄺ'말음 어간에 해당되는 '흙'은 /흑/으로 재구조화되었고 그밖에 다른 자음소군에 해당하는 어간들도 모두 단자음소를 가진 기저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만이 복합 기저형을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대부분의 다른 어형들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단일 기저형으로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12ㄱ)과 (12ㄴ)에서 관찰되는 복합 기저형을 음절말 자음소를 기준으로 볼 때 /ㅅ/이 아닌 자음소가 /ㅅ/으로 재구조화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즉, /밭/ 보다는 /밧/이 신형이며, /낮/ 보다는 /낫/이 신형이라는 뜻이다.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 /ㅅ/ 말음을 가진 어간형이 선택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12ㄷ)의 예는 이것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평자음소를 말음으로 가진 /닥/ 보다는 유기음소를 말음으로 가진 /닼/이 신형이 된다. 이전 시기에 /닭/을 기저형으로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어간은 /닥/으로 재구조화 되었을 것이다. 이후 /닼/이라는 어간형이 쓰이게 되었는데, 접촉에 의한 간섭의 결과로 보인다. '닭'에 해당하는 어간이 /닼/으로 쓰이는 것은 서남 경남 방언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❷ 창녕

창녕 지역어의 복합 기저형은 /X{ㅌ-ㅊ}/ 한 가지이다. 표준어에서 'ㅊ',

'ㅌ', 'ㅅ' 말음 어간 등에 해당하는 어형에서 발견된다. 공통적으로 어미 '-이' 앞에서는 /ㅊ/이 선택되고 나머지 어미 앞에서는 /ㅌ/이 선택된다. (13)과 같이 곡용하는 예들을 구개음소화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ㅌ/이 어미 /이/ 앞에서 /ㅊ/로 구개음소화된다고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본고는 공시적인 순수 음운 규칙으로 /ㅌ/에서 /ㅊ/을 도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복합 기저형을 설정하여 현상을 설명한다[32].

(13) /X{ㅌ-ㅊ}/형 곡용 어간의 예

① /꼬{ㅌ-ㅊ}/: [꼬치, 꼬틀, 꼬테서, 꼬트로, 꼳또]
꽃-이, 꽅-을, 꽅-에서, 꽅-으로, 꼳-또 (꽃, 花)

② /나{ㅌ-ㅊ}/: [나치, 나틀, 나테서, 나트로, 낟또]
낯-이, 낱-을, 낱-에서, 낱-으로, 낟-또 (낫, 鎌)

이 외에도 /나{ㅌ-ㅊ}/(낯), /바{ㅌ-ㅊ}/(밭), /파{ㅌ-ㅊ}/(팥) 등이 이와 같은 복수 기저형에 속한다.

3.2. 활용 어간의 기저형

본 절에서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활용 어간의 기저형을 단일 기저형과 복합 기저형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어간의 기저형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한 어미는 곡성 지역어의 '/-드라/, /-어서/, /-은다/, /-고/, /네/'와 창녕 지역어의 '/-더라/, /-어서/, /-엉깨/, /-고/, /-내/이다.[33] 해당 어미

---

32) 본고의 입장은 최명옥(1993)을 따른 것이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현대국어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이/ 앞에 /ㄷ/나 /ㅌ/가 분포될 수 있다. 창녕 지역어에서도 /디디-/(踏), /전디-/(忍) 등의 어간이 존재한다. 위 (13)의 예에서 기저형이 /꽅/이라고 한다면, 주격어미 /이/와 통합에서 [꼬티]로 실현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서남방언의 일부나 충청방언의 일부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밭/이 처격어미 /이/와 통합하면 [바티]로 실현된다. 따라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들을 고려할 때 이 지역어에서 구개음소화를 음운규칙으로 설정해야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33) 곡성 지역어에서 현재 시제 어미인 /-은다/는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도 통합된다. 즉, 표준어에서 '집에 간다'와 '밥을 먹는다'에 해당되는 곡성 지역어는 '집에 간다'와 '밥을 먹은다'가 된다. 수의적으로 '-는다'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은다'로 실현된다.

의 사용 예를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어미와의 통합형을 참고하기로 한다.

3.2.1 단일 기저형

3.2.1.1.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은 단일자음소로 끝나는 것과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단일 자음소로 끝나는 기저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에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기저형에 대해 논의한다.

❶ 곡성

조음점을 기준으로 어간말이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에서 성문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까지 논의한다. 이 경우의 기저형 설정은 앞 절에서 제시한 기저형 설정 기준에 따른다. 먼저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살펴보자.

(1ㄱ)

① /Xㅂ/류: [잡뜨라, 자바서, 자분다, 잡꼬, 잠네] (잡-, 執)
잡-드라, 잡-아서, 잡-운다, 잡-고, 잠-네

② /Xㅍ/류: [덥뜨라, 더퍼서, 더푼다, 덥꼬, 덤네] (덮-, 覆)
덥-뜨라, 덮-어서, 덮-운다, 덥-꼬, 덤-네

③ /Xㅁ/류: [남뜨라, 나마서, 나문다, 남꼬, 남네] (남-, 餘)
남-뜨라, 남-아서, 남-운다, 남-꼬, 남-네

위의 어간은 모두 자음소로 끝나므로 기저형을 각각 어미 /-어X/와 통합하는 교체형이라고 잠정 가정한다. 그러면 각 어간은 /잡-/, /덮-/, /남-/이 잠정 기저형이 된다. 이 기저형에 /-은다/가 통합된 경우에는 (1ㄱ)①처럼 [자분다]로 실현되거나 (1ㄱ)②처럼 [더푼다]로 (1ㄱ)③처럼 [나문다]로 실현되는데 이는 양순음소 아래에서 '으'가 '우'로 원순음소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잠정 기저형에 /-고/가 통합되면 어간말 /ㅂ/ 뒤에서 경음소화가 일어나고, /ㅍ/은 평파열음소화되어 /ㅂ/이 된 후, 역시 어미의 /ㄱ/을 경음소화시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ㅁ/ 말음 어간의 경우에도 어미의 /ㄱ/이

비음소 /ㅁ/ 뒤에서 경음소화 된다. 이같은 검증 결과 잠정 기저형들은 제시된 활용형의 어간 기저형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는 이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기저형의 예를 제시하였다.

(1ㄴ)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ㅂ/류: 잡-(잡-, 執), 뽑-(뽑-, 選), 씹-(씹-, 咀), 입-(입-, 衣), 좁-(좁-, 俠), 꼽-(꽂-, 揷)

② /Xㅍ/류: 덮-(덮-, 覆)

③ /Xㅁ/류: 감-(감-, 捲), 검-(검, 黑), 다듬-(다듬-, 整), 담-(담-, 盛), 씨다듬-(쓰다듬-, 撫)

/Xㅍ/류는 /덮-/ 하나만이 관찰되었는데 표준어에서 /ㅍ/ 말음 어간으로 제시되는 예들은 곡성 지역어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싶-'의 경우에는 /자{ㅂ~우}/라는 기저형으로 존재하며, '높-'은 /노푸-/로, '깊-'은 /기푸-/로 존재하기 때문에 /덮-/이 유일하리라 생각된다.

다음은 치경음소로 끝나는 경우를 본다. 곡성 지역어에서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2ㄱ)

① /Xㄷ/류: [얻뜨라, 어더서, 어든다, 억꼬, 언네] (얻-, 得)
얻-뜨라, 얻-어서, 얻-은다, 억-꼬, 언-네

② /Xㅌ/류: [붇뜨라, 부터서, 부튼다, 북꼬, 분네] (붙-, 附)
붇-뜨라, 붙-어서, 붙-은다, 북-꼬, 분-네

③ /Xㅅ/류: [붇뜨라, 부서서, 부슨다, 북꼬, 분네] (붓-, 腫)
붇-뜨라, 붓-어서, 붓-은다, 북-꼬, 분-네

④ /Xㅆ/류: [읻뜨라, 이써서, 읻따, 익꼬, 인네] (있-, 有)
읻-뜨라, 있-어서, 읻-따, 익-꼬, 인-네

⑤ /Xㄴ/류: [안뜨라, 아나서, 아는다, 안꼬, 안네] (안-, 抱)
안-뜨라, 안-아서, 안-은다, 안-꼬, 안-네

위의 어간은 모두 자음소로 끝나므로 기저형을 각각 어미 /-어X/와 통합하는 교체형이라고 잠정 가정한다. 그러면 각 어간은 /얻-/, /붙-/, /붓-/,

/있-/, /안-/이 잠정 기저형이 된다. 이 기저형에 /-드라/가 통합된 경우에 ②③④는 어미초 자음소 /ㄷ/ 앞에서 어간말의 자음소가 평파열음소화 되어 /ㄷ/이 되고 이어서 어미초의 자음소를 경음소화 시키면 해당 활용형이 도출된다. ①에서 ④의 어간에 어미 /-고/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평파열음소화 이후 연구개음소화가 적용되어 각 어간형이 [억-, 북-, 북-, 익-]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Xㅌ/류와 /Xㅆ/류는 그 예가 각각 하나씩만 관찰 된다. /Xㅌ/류의 경우 그 예가 될 수 있는 '맡-'은 /마뜨-/이고 '얕-'은 /야차{ㅂ~우}/로 존재한다. (1)에서 논의한 /ㅍ/ 말음 어간과 마찬가지로 /ㅌ/도 유기음소인데 유기음소를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은 대부분 재구조화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며 몇 가지 어간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ㄴ)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ㄷ/류: 얻-(얻-, 得), 뽄받-(본받-, 效), 닫-(닫-, 閉),
뜯-(뜯-摘)

② /Xㅌ/류: 붙-(붙-, 附)

③ /Xㅅ/류: 붓-(붓-, 腫), 잇-(잇-, 連), 솟-(솟-, 湧),
줏-(줍-, 拾)

④ /Xㅆ/류: 있-(있-, 有)

⑤ /Xㄴ/류: 안-(안-, 抱), 신-(신-, 履)

/Xㅅ/류에는 표준어에서 소위 'ㅅ'불규칙활용을 하는 어간이 포함된다. 곡성 지역어에서 'ㅅ'불규칙활용 현상은 없으며 해당 어간은 모두 /ㅅ/ 말음을 가지며 규칙 활용을 한다.

다음 (3)은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활용예이다.

(3ㄱ)

① /Xㅈ/류: [늗뜨라, 느저서, 늗따, 늑꼬, 는네] (늦-, 晩)
늗-뜨라, 늦-어서, 늗-따, 늑-꼬, 는-네

② /Xㅊ/류: [쫃뜨라, 쪼차서, 쪼친다, 쪽꼬, 쫀네]
쫃-뜨라, 쫓-아서, 쫓-인다, 쪽-꼬, 쫀-네

(3ㄴ)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ㅈ/류: 늦-(늦-, 晩), 찾-(찾-, 搜), 잊-(잃-, 失),
맺-(맺-, 結),

② /X/ㅊ/류: 쫓-(쫓-, 追)

(3ㄱ)②의 [쪼친다]의 경우에는 경구개음소 /ㅊ/ 뒤에서 어미의 모음소 /-으/가 전설모음소화되어 /이/로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3ㄱ) ①의 경우에는 /늦-/이 형용사여서 [늗따]로 활용되나 다른 동사 어간과 통합된 경우에는 역시 어미 모음소가 전설모음소화된다. 나머지도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면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곡성 지역어에서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은 /Xㄱ/류 하나뿐이다. (4ㄱ)의 [죽뜨라], [죽꼬]는 경음소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 기저형은 /죽-/으로 설정할 수 있다. /ㄲ/으로 끝나는 어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어간들은 모음소 /으/를 첨가하여 재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한다.34) /ㅋ/나 /ㅇ/으로 끝나는 어간은 발견되지 않는다.

(4ㄱ)

• /Xㄱ/류: [죽뜨라, 죽거서, 주근다, 죽꼬, 중네] (죽-, 死)
죽-뜨라, 죽-어서, 죽-은다, 죽-꼬, 중-네

(4ㄴ)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 /Xㄱ/류: 죽-(죽-, 死), 썩-(썩-, 腐), 뽀식-(빻-, 粉碎),
끄식-(끌-, 引)

곡성 지역어의 성문음소는 /ㅎ/ 하나이므로 기저형의 형태도 /Xㅎ/류 하나이다. 이는 아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5ㄱ)

• /Xㅎ/류: [여터라, 여:서, 연다, 여코, 연네] (넣-, 入)

---

34) '꺾-'은 /끙끄-/, '볶-'은 /보꾸-/, '묶-'은 /뭉끄-/로 존재한다. /보꾸-/의 경우에는 '으'가 첨가된 형태로 재구조화된 뒤 다시 앞음절의 '오'의 영향으로 원순모음소화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옇-터라, 여-서, 연-다, 옇-코, 연-네

[여터라, 여코]는 유기음소화로 설명할 수 있고, [여:서]는 /ㅎ/ 탈락과 어간말 '어'탈락으로, [연다]는 /ㅎ/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기저형은 /옇-/으로 설정할 수 있다.

(5ㄴ) 성문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 /Xㅎ/류: 옇-(넣-, 入), 좋-(좋-, 好), 찧-(찧-, 搗), 닿-(닿-, 接), 낳-(낳-, 産), 땋-(땋-, 辮), 놓-(놓-, 放)

다음으로는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살펴 본다.[35)]

(6ㄱ)

① /Xㄻ/류: [곰뜨라, 골마서, 골문다, 곰꼬, 곰네] (곪-, 膿)
곰-뜨라, 곪-아서, 곪-운다, 곰-꼬, 곰-네
② /Xㄼ/류: [봅뜨라, 볼바서, 볼분다, 봅꼬, 봄네] (볿-,踏)
봅-뜨라, 볿-아서, 볿-운다, 봅-꼬, 봄-네
③ /Xㄺ/류: [국뜨라, 굴거서, 굴근, 국꼬, 궁네] (굵-, 太)
국-뜨라, 굵-어서, 굵-은, 국-꼬, 궁-네
④ /Xㅄ/류: [업뜨라, 업써서, 업따, 업꼬, 엄네] (없-, 無)
업-뜨라, 업ㅆ-어서, 업-따, 업-꼬, 엄-네
⑤ /Xㅀ/류: [골트라, 고라서, 고른다, 골코, 골레] (곯-, 餓)
곯-드라, 골-아서, 골-은다, 곯-고, 골-레

(6ㄱ)①의 활용형에서 [곰뜨라]와 [곰꼬]는 자음소군단순화로 인해 /ㄹ/이 탈락된 후 경음소화가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골문다]는 양순음소 아래에서 어미의 모음소 /으/가 /우/로 원순모음소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어간의 기저형은 /곪-/으로 설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설정된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의 예이다.

---

35) '유음소+자음소'도 자음소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6ㄴ)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ㄻ/류: 곪-(곪-, 膿), 굶-(굶-, 飢), 닮-(닮-, 似)

② /Xㄼ/류: 볿-(밟-, 踏), 떫-(떫-, 澁)

② /Xㄺ/류: 굵-(굵-, 太), 늙-(늙-, 老), 맑-(맑-, 淸),
읽-(읽-, 讀)

③ /Xㅄ/류: 업ㅆ-(없-, 無)

④ /Xㅀ/류: 곯-(곯-, 蝦), 끓-(끓-, 沸), 눓-(눋-, 燋),
싫-(싫-, 屑), 싫-(신-, 載), 앓-(앓-, 痛), 걿-(걷-, 步)36)

/Xㅄ/류에는 /업ㅆ-/만이 관찰된다. 이 예만 제외하면 곡성 지역어에서는 /ㄹX/형태의 자음소군만이 용언의 기저형 말에서 실현 가능하다.

❷ 창녕

창녕 지역어에서도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에는 /Xㅂ/류, /Xㅍ/류, /Xㅁ/류의 세 가지가 있다. 다음은 그 활용예이다.

(7ㄱ)

① /Xㅂ/류: [입뜨라, 이버서, 이붕께, 익꼬, 임내] (입-, 衣)
입-뜨라, 입-어서, 입-웅께, 익-꼬, 임-내

② /Xㅍ/류: [덥뜨라, 더퍼서, 더풍께, 덕꼬, 덤내] (덮-,覆)
덥-뜨라, 덮-어서, 덮-웅께, 덕-꼬, 덤-내

③ /Xㅁ/류: [깜뜨라, 까마서, 까뭉께, 깡꼬, 깜내] (감-, 洗髮)
깜-뜨라, 깜-아서, 깜-웅께, 깡-꼬, 깜-내

(7ㄱ)①의 활용형을 살펴 보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음 /ㅂ/이 관찰 되므로 잠정 기저형을 /입-/으로 잡을 수 있다. [입뜨라]는 /ㅂ/ 뒤에서 평파열음 /ㄷ/이 경음소화를 거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익꼬]의 경우에는 연구개음소 /ㄱ/ 앞에서 어간말음이 연구개음소화를 거치고, 어미는 경음화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기저형은 /입-/

36) /걿-/의 활용상을 보면 [걸트라~걸뜨라, 걸어서, 거른다]로 나타난다. 이때 [걸뜨라]를 중시하게 되면 /걿-/을 인정해야 하나 곡성 지역어에서 'ㆆ'은 음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ㅌ/과 /ㄸ/의 음성상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ㄱ)②의 활용형의 기저형은 /덮-/으로 설정된다. [덥뜨라]는 어간말음이 평파열음소화되고 어미초 자음소는 경음화된 것으로 설명된다. [더풍께]에서는 양순음소 /ㅍ/아래에서 어미초 모음소 /으/가 /우/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양순음소화로 설명이 된다. [덕꼬]는 어간말음 /ㅍ/이 평파열음소화된 후 다시 연구개음소화를 거친 것이고 어미초의 /ㄱ/은 경음소화되었다.

(7ㄱ)③의 활용형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깜뜨라]에는 경음소화가 [깡꼬]에는 연구개음소화와 경음소화가 적용된 것으로 기저형은 /깜-/으로 설정된다. 아래에는 그밖에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제시하였다.

(7ㄴ)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ㅂ/류: 입-(입-, 衣), 잡-(잡-, 執), 뽑-(뽑-, 選),
　　씹-(씹-, 咀), 경거럽-(가렵-, 瘙), 꿉-(굽-, 炙)
　　집-(깁-, 縫), 눕-(눕-, 臥), 밉-(밉-, 憎), 숩-(쉽-, 易)
　　아깝-(아깝-, 惜), 아섭-(아쉽-, 不滿), 웨럽-(외롭-, 孤)
　　짭-(짜-, 鹽), 맵-(맵-, 辛), 찹-(차갑-, 寒), 춥-(춥-, 寒)
　　미끄럽-(미끄럽-, 滑), 누룹-(마렵-, 오줌),
　　떠겁-(뜨겁-, 熱), 방갑-(반갑-, 歡)

② /Xㅍ/류: 덮-(덮-, 覆)

③ /Xㅁ/류: 깜-(감-, 洗髮), 감-(감-, 捲), 따덤-(다듬-, 整),
　　담-(담-,盛), 씨다덤-(쓰다듬-, 撫), 숨-(숨-, 隱),
　　더덤-(더듬-, 摸)

창녕 지역어에서는 표준어에서 소위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들이 대부분 'ㅂ' 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ㅂ/으로 끝나는 기저형의 수가 상당히 많다. /Xㅍ/류는 /덮-/만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곡성 지역어와 마찬가지 결과이다. /ㅍ/말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간들은 모두 다른 형태로 재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살펴보자. 창녕 지역어에는 /ㄷ, ㅌ, ㅅ, ㄴ/의 네 개의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이 존재한다.

(8ㄱ)

① /Xㄷ/류: [얻떠라, 어더서, 어덩깨, 억꼬, 언내] (얻-, 得)
얻-떠라, 얻-어서, 얻-엉깨, 억-꼬, 언-내

② /Xㅌ/류: [맏떠라, 마타서, 마틍깨, 막꼬, 만내] (맡-, 任)
맏-떠라, 맡-아서, 맡-엉깨, 막-꼬, 만-내

③ /Xㅅ/류: [벋떠라, 버서서, 버승깨, 벅꼬, 번내] (벗-, 脫衣)
벋-떠라, 벗-어서, 벗-엉깨, 벅-꼬, 번-내

④ /Xㄴ/류: [안떠라, 아나서, 아능깨, 앙꼬, 안내] (안-, 抱)
안-떠라, 안-아서, 안-엉깨, 앙-꼬, 안-내

(8ㄱ)①의 활용형에서 모음소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잠정 기저형 /얻-/을 얻을 수 있다. [얻뜨라]는 경음소화로 [억꼬]는 연구개음소화와 경음소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②의 활용형에서는 /맏-/이 기저형이 되는데 [맏뜨라]는 경음소화로 [막꼬]는 연구개음소화와 경음소화로 설명된다. ③도 마찬가지로 /벗-/이 도출되며 ④도 /안-/을 설정할 수 있다. 아래에는 그밖에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제시하였다.

(8ㄴ)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ㄷ/류: 얻-(얻-, 得), 뽄받-(본받-, 效), 닫-(닫-, 閉),
떧-(뜯-摘), 묻-(묻-, 埋)

② /Xㅌ/류: 맡-(맡-, 任), 붙-(붙-, 附), 밭-(뱉-, 唾)

③ /Xㅅ/류: 벗-(벗-, 脫衣), 붓-(붓-, 腫), 잇-(있-, 有),
솟-(솟-, 湧), 젓-(젓-, 搒), 짓-(짖-, 吠), 쫏-(쪼-, 啄),
빗-(빗-, 梳)

④ /Xㄴ/류: 안-(안-, 抱), 신-(신-, 履)

곡성 지역어와는 /ㅆ/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곡성 지역어에서도 해당 어간은 /있-/ 하나뿐이었다. 창녕 지역어에서 이 어간은 /잇-/으로 존재한다. 이는 창녕 지역어에서 이음절 이하에서 /ㅆ/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므로 사실상 치경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의 유형은 같다고 할 수 있다.

/Xㅌ/류는 곡성 지역어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표준어에서도 /ㅌ/말음 어간은 원래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창녕 지역어에서 이 유형은

거의 표준어에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Xㅅ/류에도 역시 'ㅅ' 불규칙 어간이 포함된다. /Xㄴ/류의 예는 위 두 가지뿐이다.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Xㅈ/과 /Xㅊ/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Xㅊ/형 어간에는 /쫓-/만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그 활용예이다.

(9ㄱ)

① /Xㅈ/류: [늗떠라, 느저서, 느정깨, 늑꼬, 는내] (늦-, 晩)
늗-떠라, 늦-어서, 늦-엉깨, 늑-꼬, 는-내

② /Xㅊ/류: [쫃떠라, 쪼차서, 쪼청깨, 쪽꼬, 쫀내] (쫓-, 追)
쫃-떠라, 쫓-아서, 쫓-엉깨, 쪽-꼬, 쫀-내

(9ㄴ)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ㅈ/류: 늦-(늦-, 晩), 잊-(잊-, 忘), 맺-(맺-, 結),
꽂-(꽂-, 揷)

② /Xㅊ/류: 쫓-(쫓-, 追)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에는 /Xㄱ/류와 /Xㄲ/류가 있다. 모음소 어미와의 통합형을 기준으로 기저형을 잡으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0ㄱ)

① /Xㄱ/류: [죽떠라, 주거서, 주겅깨, 죽꼬, 중내] (죽-, 死)
죽-떠라, 죽-어서, 죽-엉깨, 죽-꼬, 중-내

② /Xㄲ/류: [씩떠라, 씨꺼서, 씨껑깨, 씩꼬, 씽내] (씻-, 洗)
씩-떠라, 씪-어서, 씪-엉깨, 씩-꼬, 씽-내

[죽뜨라]와 [죽꼬]는 어미에 경음소화가 적용된 것이고, [씩뜨라]와 [씩꼬] 역시 경음소화가 적용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기저형은 각각 /죽-/과 /씪-/으로 분석된다. 아래에는 그밖에 기저형을 제시하였는데, 곡성 지역어와는 달리 /ㄲ/말음 어간이 다수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10ㄴ)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ㄱ/류: 죽-(죽-, 死), 썩-(썩-, 腐), 뽀식-(빻-, 粉碎),

② /Xㄲ/류: 씪-(씻-, 洗), 볶-(볶-, 炒), 꺾-(꺾-, 折)

다음은 성문음소로 끝나는 어간을 살펴본다. 창녕 지역어에는 /ㅎ/와 /ㆆ/의 두 가지 성문음소가 있는데, 이 둘은 모두 활용 어간말에 올 수 있다.

(11ㄱ) 성문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ㅎ/류: [여터라, 여어서, 여엉깨, 여코, 연내] (넣-, 入)
옇-더라, 여-어서, 여-엉깨, 옇-고, 연-내
② /Xㆆ/류: [푸떠라, 푸어서, 푸웅깨, 푸찌, 푼내] (피우-, 吸煙)
푸ㆆ-떠라, 푸-어서, 푸-웅깨, 푸ㆆ-지, 푼-내

(11ㄱ)①의 활용형을 보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는 유기음소로 실현되고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아무런 자음소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우리는 어간말에 /ㅎ/을 음소로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ㅎ/이 단독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자음소를 유기음소화 시키고 모음사이에서는 탈락되는 성질은 가진 음소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1ㄱ)②의 활용형을 보면 자음소 어미를 경음소화 시키고 모음소 사이에서 탈락하는 성질을 가진 /ㆆ/을 음소로 설정할 수 있다.

(11ㄴ) 성문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ㅎ/류: 옇-(넣-, 入), 좋-(좋-, 好), 끟-(긋-, 劃),
놓-(낳-, 産), 놓-(놓-, 放)
② /Xㆆ/류: 풓-(피우-, 吸煙), 좋-(줍-, 拾), 징-(짓-, 作),
붕-(붓-, 腫)

다음으로 자음소군을 말음으로 가진 활용 어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창녕 지역어에서 활용 어간말의 자음소군은 다음 일곱 가지로 관찰된다. 곡성 지역어와 비교했을 때 아주 다양한 편이며 그 해당 예 또한 많다. 곡용 어간에서도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창녕 지역어에서 자음소군을 말음으로 가지는 것은 특별한 어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이라 할 것이다.

(12ㄱ)

① /Xㄵ/류: [안떠라, 안자서, 안정깨, 앙꼬, 안내] (앉-, 坐)
안-떠라, 앉-아서, 앉-엉깨, 앙-꼬, 안-내

② /Xㄶ/류: [껀터라, 꺼너서, 꺼넝깨, 껑코, 껀내] (끊-, 切)
껂-터라, 껀-어서, 껀-엉깨, 껑-코, 껀-내

③ /Xㄻ/류: [쌈떠라, 쌀마서, 쌀뭉깨, 쌍꼬, 쌈내] (삶-, 烹)
쌈-떠라, 쌂-아서, 쌂-웅깨, 쌍-꼬, 쌈-내

④ /Xㄼ/류: [발떠라, 발바서, 발붕깨, 발꼬, 발래] (밟-, 踏)
발-떠라, 밟-아서, 밟-웅깨, 발-꼬, 발-래

⑤ /Xㄺ/류: [발떠라, 발가서, 발겅깨, 발꼬, 발래] (밝-, 明)
발-떠라, 밝-아서, 밝-엉깨, 발-꼬, 발-래

⑥ /Xㅀ/류: [알터라, 아라서, 아렁깨, 알코, 알래] (앓-, 痛)
앓-더라, 알-아서, 알-엉깨, 앓-코, 알-래

⑦ /Xㅄ/류: [업떠라, 업서서, 업성깨, 억꼬, 엄내] (없-, 無)
업-떠라, 없-어서, 없-엉깨, 억-꼬, 엄-내

⑧ /Xㅇㅎ/류: [땅트라, 땅아서, 땅엉깨, 땅코, 땅내] (땅-, 辮)
땋-더라, 땅-아서, 땅-엉깨, 땋-코, 땅-내

(12ㄱ)은 형태분석을 통하여 어간이 자음소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안따/와 통합한 어간형태를 잠정 기저형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위의 어형을은 각각 /앉-/, /껂-/, /쌂-/, /밝-/, /밟-/, /앓-/, /없-/, /땋-/을 잠정 기저형으로 가지게 된다.

이중 먼저 ①③④⑤⑦의 활용형의 잠정 기저형에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드라/가 통합되는 경우에 어미초의 /ㄷ/ 앞에서 자음소군이 단순화된다. 즉 어간말 자음소군 /ㄵ, ㄻ, ㄼ, ㄺ, ㅄ/이 /ㄴ,ㅁ,ㄹ,ㄹ,ㅂ/로 된다. 이렇게 형성된 어간말의 자음소는 어미초의 /ㄷ/을 경음소화하여 /ㄸ/로 되게 한다. 그 다음 어간말 자음소는 더 이상의 음운과정을 거칠 것이 없으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다음으로 어간의 잠정 기저형에 어미 /-고/가 통합하면, 어미초의 /ㄱ/ 앞에서 자음소군이 단순화된다. 즉 어간말 자음소군 /ㄵ, ㄻ, ㄼ, ㄺ, ㅄ/는 /ㄴ, ㅁ, ㄹ, ㄹ, ㅂ/로 된다. 이렇게 형성된 어간말의 /ㄹ/는 어미초의 /ㄱ/를 경음소화하여 /ㄲ/로 되게 하고 /ㄴ, ㅁ, ㅂ/는 먼저 연구개음소화하여

각각 /ㅇ, ㅇ, ㄱ/로 되고 다시 어미초의 /ㄱ/를 경음소화하여 모두 /ㄲ/로 되게 한다. 그 다음 어간말의 자음소는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이같은 검증 결과, 어간의 잠정 기저형은 그대로 위 활용형의 어간 기저형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⑥⑧의 잠정 기저형에는 /ㅎ/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활용형의 잠정 기저형에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드라/나 /-고/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어미초의 /ㄷ/와 /ㄱ/가 유기음소화하여 /ㅌ/와 /ㅋ/로 된다. [껑코]의 경우에는 유기음소화 뒤 /ㅋ/ 앞에서 /ㄴ/이 연구개음소화하여 /ㅇ/으로 실현된다.

이들 어간이 잠정 기저형에 어미 /-엉깨/나 /-아서/가 통합하면, 두 모음소 사이에서 어간말의 /ㅎ/가 탈락한다. 그 다음에 어간은 더 이상의 음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음성으로 실현된다. 이상과 같은 검증 결과 설정한 기저형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간말에 자음소군을 가지는 기저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2ㄴ)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ㄵ/류: 앉-(앉-, 坐), 얹-(얹-, 載)

② /Xㄶ/류: 끊-(끊-, 切)

③ /Xㄻ/류: 쌂-(삶-, 烹), 굶-(굶-, 飢), 닮-(닮-, 似)

④ /Xㄼ/류: 떫-(떫-, 澀), 뚧-(뚧-, 穿), 밟-(밟-, 踏),
엷-(엷-, 薄), 읇-(읊-, 詠)

④ /Xㄺ/류: 밝-(밝-, 明), 굵-(굵-, 太), 넑-(늙-, 老),
맑-(맑-, 淸)

⑤ /Xㅀ/류: 앓-(앓-, 痛), 끓-(끓-, 沸), 싫-(싫-, 屑),
꿇-(꿇-, 跪), 닳-(닳-, 磨), 딿-(따르-, 隨),
잃-(잃-, 失), 홇-(핥-, 舐), 깨닳-(깨닫-, 覺),
끼엃-(게으르-, 怠)

⑥ /Xㅄ/류: 없-(없-, 無)

⑦ /Xㅇㅎ/류: 땋-(땋-, 辮), 찧-(찧-, 搗)

3.2.1.2.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❶ 곡성

곡성 지역어의 유음소 /ㄹ/로 끝나는 활용 어간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3ㄱ)

• /Xㄹ/류: [불더라, 부러서, 분다, 불고, 부네] (불-, 吹)
불-더라, 불-어서, 분-다, 불-고, 부-네

모음소 어미 /-어서/와 통합하는 어간 /불-/을 기저형으로 잡을 수 있다. [분다]의 경우 잠정 기저형 /불-/에 어미 /-은다/가 통합하면, 어간말 /ㄹ/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고 다시 어미초의 /ㄹ/ 앞에서 어간말의 /ㄹ/가 탈락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아래에는 곡성 지역어의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제시하였다.

(13ㄴ)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 /Xㄹ/류: 불-(불-, 吹), 가물-(가물-, 旱), 궁글-(구르-, 轉),
기울-(기울-, 傾), 까불-(까불-, 箕), 뚜들-(두르리-, 敲),
드물-(드물-, 稀) 맹길-(만들-, 作), 머물-(머물-, 留),
알-(알-, 知), 서틀-(서투르-, 未熟), 비틀-(비틀-, 捻),
빨-(빨-洗), 씰-(씰-, 掃), 어질-(어지르-, 散),
얼-(얼-, 凍), 울-(울-, 泣), 일-(일-淘), 줄-(줄-, 短縮),
질-(질-, 泥), 팔-(팔-, 賣)

❷ 창녕

창녕 지역어어의 유음소 /ㄹ/로 끝나는 활용 어간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4ㄱ)

• /Xㄹ/류: [알드라, 아라서, 앙깨, 알고, 아내] (알-, 知)
알-드라, 알-아서, 앙-깨, 알-고, 아-내

마찬가지로 모음소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알-/을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래에는 창녕 지역어의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제시하였다.

(14ㄴ)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 /Xㄹ/류: 알-(알-, 知), 가물-(가물-, 旱), 골-(곯-, 瘕),
  구불-(구르-, 轉), 기울-(기울-, 傾), 까불-(까불-, 箕),
  껄-(끌-, 引), 더물-(드물-, 稀), 맨들-(만들-, 作),
  말-(말-, 捲), 머물-(머물-, 留), 불-(불-, 吹),
  비털-(비틀-, 捻), 빨-(빨-洗), 빼떨-(빼앗-, 奪),
  씰-(씰-, 掃), 어질-(어지르-, 散), 얼-(얼-, 凍),
  울-(울-, 泣), 일-(일-淘), 자불-(졸-, 睡),
  줄-(줄-, 短縮), 질-(질-, 泥), 팔-(팔-, 賣)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 모두에서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의 수가 다른 어떤 유형보다 가장 많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전체적으로도 활용 어간말에는 유음소를 가진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음소와 유음소를 포함하여 활용 어간말에 종성을 가지는 경우의 유형을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자음소와 유음소로 끝나는 활용 어간의 유형

단일 자음소	양순음소	ㅂ	o	o
		ㅍ	o	o
		ㅁ	o	o
	치경음소	ㄷ	o	o
		ㅌ	o	o
		ㅅ(ㅆ)	o	o
		ㄴ	o	o
	경구개음소	ㅈ	o	o
		ㅊ	o	o
	연구개음소	ㄱ	o	o
		ㄲ		o
	성문음소	ㅎ	o	o
		ㆆ	x	o
유음소		ㄹ	o	o
자음소군		ㄵ	x	o
		ㄶ	x	o
		ㄻ	o	o
		ㄼ	o	o
		ㄺ	o	o
		ㅀ	o	o
		ㅄ(ㅂㅆ)	o	o
		ㅇㅎ	x	o
			곡성	창녕

3.2.1.3.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❶ 곡성

곡성 지역어에는 모음소 '이, 에, 애, 위, 외, 으, 아, 우, 오'로 끝나는 기저형의 어간이 있다. 이는 곡성 지역어의 모든 단모음소 중에서 '어'를 제외한 9개의 모음소가 어간 말음소로 존재하는 것이다. 기저형 설정의 기준에 따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음성형에서 분석된 어간형을 어간의 기저형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음성형이 이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기저형을 확정한다. 다음에 모음소 별로 그 곡용형의

예를 하나씩 제시였다.

(16ㄱ) 곡성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활용 예

① /X이/류: [댕기드라, 댕게서, 댕긴다, 댕기고] (다니-, 行)
② /X에/류: [세:드라, 세:서, 센:다, 세:고] (세-, 算)
③ /X애/류: [빼:드라, 빼:서, 뺀:다, 빼:고] (빼-, 拔)
④ /X위/류: [휘드라, 휘여서, 휜다, 휘고] (휘-, 曲)
⑤ /X외/류: [쇠드라, 쇠야서, 쇤다, 쇠고] (쇠-, 老)
⑥ /X으/류: [따르드라, 따라서, 따른다, 따르고] (따르-, 注)
⑦ /X아/류: [사드라, 사서, 산다, 사고] (사-, 買)
⑧ /X우/류: [꾸드라, 꿔서, 꾼다, 꾸고] (꾸-, 夢)
⑨ /X오/류: [쏘드라, 쏴서, 쏜다, 쏘고] (쏘-, 針)

(16ㄱ)①은 /이/로 끝나는 어간의 활용예이다.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기저형 /댕기-/를 설정할 수 있다. 어간의 기저형이 어미 /-어서/와 통합하면 활음소화가 되고 다시 '여'의 '에'화가 적용되어 [댕게서]가 실현된다. 어간이 어미 /-은다/와 통합되면 어간의 모음소 뒤에서 어미초 /으/가 탈락되어 [댕긴다]가 실현된다. 따라서 어간의 기저형 /댕기-/는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ㄱ)②③⑦의 경우에는 각각 /세:-/와 /빼:-/, /사-/가 기저형으로 설정된다. 어간이 어미 /-어서/와 통합하면 어미초의 /어/탈락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어간이 어미 /-은다/와 통합되면 어간의 모음소 뒤에서 어미초 /으/가 탈락되어 [센:다], [뺀:다], [산다]가 실현된다. 따라서 어간의 기저형 /세:-/와 /빼:-/, /사-/는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ㄱ)④⑤의 경우에는 /휘-/와 /쇠-/가 기저형으로 설정된다. 어간이 어미 /-어서/와 통합하면 활음소 /y/가 삽입되어 [휘여서]와 [쇠야서]가 실현된다. 어간이 어미 /-은다/와 통합되면 어간의 모음소 뒤에서 어미초 /으/가 탈락되어 [휜다], [쉰다]가 실현된다. 따라서 어간의 기저형 /휘-/와 /쉬-/는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ㄱ)⑥는 /으/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이다.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기저형 /따르-/를 설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면 어미 /-아서/와 통합될 때 어간말의 모음소 /으/가 탈락되어 [따라서]로 실현된다. /-은다/

와의 통합형에서는 어간의 모음소 뒤에서 어미초 /으/가 탈락되므로 [따른다]가 실현된다. 따라서 어간의 기저형 /따르-/는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ㄱ)⑧⑨는 /우/와 /오/로 끝나는 어간이다. 기저형은 각각 /꾸-/와 /쏘-/로 잡을 수 있다. 어미 /-어서/와 통합되면 어간말의 모음소가 /w/로 활음소화 되어 [꿔서]와 [쏴서]가 실현되며 어미 /-은다/와의 통합형에서는 어간의 모음소 뒤에서 어미초 /으/가 탈락되므로 [꾼다]와 [쏜다]가 실현된다. 따라서 어간의 기저형 /따르-/는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의 예를 제시하였다.

(16ㄴ) 곡성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이/류: 댕기-(다니-, 行), 갈치-(가르치-敎),
게우리-(게으르-, 怠), 고치-(고치, -改), 괴피-(괴-, 渟),
기리-(그리-, 劃), 끼리-(끓이-, 使沸), 찌-(끼-, 揷),
찌-(끼-, 안개), 냉기-(남기-, 使餘), 내리-(내리-, 降),
자빡씨리-(넘어뜨리-, 使倒), 뉘비-(누비-, 縫),
느리-(느리-, 緩), 다치-(다치-, 傷), 달리-(달리-, 走),
때리-(때리-, 打), 따시-(따뜻하-, 溫), 마시-(마시-, 飮),
마치-(마치-, 終), 몬지-(만지-, 揗), 문치-(무치-, 나물),
분지러지-(부러지-, 被切), 쇠기-(속이-, 欺),
씨-(쓰-, 苦), 제리-(절이-, 鹽), 저시-(젓-, 搒),
자우리-(졸-, 睡), 찌-(찌-, 烝), 히-(희-, 白)

② /X에/류: 세:-(세-, 算), 데:-(데우-, 焐)

③ /X애/류: 빼:-(빼-, 拔), 깨:-(깨-, 覺), 놀래-(놀라-, 驚),
달개-(달래-, 撫), 매-(매-, 除草),
모지래-(모자라-, 不足), 포개-(포개-, 重)

④ /X위/류: 휘-(휘-, 曲), 뀌:-(뀌-, 屁), 뛰-(뛰-, 走),
쉬-(쉬-, 饐), 쉬-(쉬-, 休), 튀-(튀-, 跳)

⑤ /X외/류: 쇠-(쇠-, 老), 되-(되-, 硬), 쐬:-(쐬-, 曬),
외-(외우-, 暗誦)

⑥ /X으/류: 따르-(따르-, 注), 갈그-(긁-, 搔), 무드-(묻-, 埋),

뿌시그-(부수-, 碎), 야트-(엷-, 薄), 쓰-(켜-, 發火),
크-(크-, 大), 스-(서-, 立)

⑦ /X아/류: 사-(사-, 買), 자-(자-, 宿), 차-(차-, 蹴), 타-(타-乘)

⑧ /X우/류: 꾸-(꾸-, 夢), 누:-(누-, 尿), 두-(두-, 置),
쑤:-(쑤-, 造粥), 주-(주-, 與), 거두-(거두-, 收),
전주-(겨누-, 照準), 저루-(겨루-, 競), 나누-(나누-, 分),
누루-(누르-, 壓), 떨추-(떨어뜨리-, 使落),
마추-(맞추-, 組合), 메우-(메우-, 塡), 보꾸-(볶-, 炒),
시쿠-(식히-, 使冷), 야우-(야위-, 瘠),
치우-(치우-, 除去), 키우-(키우-, 飼育)

⑨ /X오/류: 쏘-(쏘-, 針), 고:-(고-, 煮), 꼬:-(꼬-, 索)

/X이/류와 /X우/류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에/ 말음 어간은 일음절인 경우만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이음절 이하에서 /에/와 /애/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음절 이하에 /에/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형들은 모두 /애/말음에 넣었기 때문이다. 활용 어간의 말모음소로 /어/는 관찰되지 않는다. 표준어의 '서-'에 해당하는 어간은 /스-/로 존재하고 있다.

❷ 창녕

창녕 지역어에는 모음소 '이, 애, 어, 아, 우, 오'로 끝나는 기저형의 어간이 있다. 이는 창녕 지역어의 모든 단모음소 6개의 모음소가 어간 말음소로 존재하는 것이다. 기저형 설정의 기준에 따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음성형에서 분석된 어간형을 어간의 기저형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음성형이 이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기저형을 확정한다. 다음에 모음소 별로 그 곡용형의 예를 하나씩 제시였다.

(17ㄱ) 창녕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활용 예

① /X이/류: [기더라, 기이서, 깅깨, 기고] (기-, 匍腹)

② /X에/류: [깨더라, 깨애서, 깽깨, 깨고] (깨-, 破)

③ /X어/류: [서더라, 서서, 성깨, 서고] (서-, 立)

④ /X아/류: [가더라, 가서, 강깨, 가고] (가-, 去)

⑤ /X우/류: [바꾸더라, 바까아서, 바꿍께, 바꾸고] (바꾸-, 換)
⑥ /X오/류: [오더라, 와서, 옹께, 오고] (오-, 來)

(17ㄱ)의 ①②는 /이/와 /에/로 끝나는 어간의 활용예이다.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기저형 /기-/와 /깨-/를 설정할 수 있다. 어간의 기저형이 어미 /-었따/와 통합하면 어미초 모음소 /어/가 어간말 모음에 완전순행동화 되어서 [기이따], [깨에서]가 실현된다. 어간이 어미 /-엉께/와 통합되면 어간의 모음소 뒤에서 어미초 /으/가 탈락되어 [깅께], [깽께]가 실현된다. 따라서 어간의 기저형 /기-/와 /깨-/는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ㄱ)③④는 /어/와 /아/로 끝나는 어간의 활용예이다.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기저형 /서-/와 /가-/를 설정할 수 있다.

(17ㄱ)⑤⑥는 /우/와 /오/로 끝나는 어간이다. 기저형은 각각 /바꾸-/와 /오-/로 잡을 수 있다. /바꾸-/는 어미 /-어서/와 통합되면 어간말의 모음소가 /w/로 활음소화 되고 자음소 뒤에서 활음소가 탈락되어 [바까]가 실현된다. [와서]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으므로 활음소 탈락을 겪지 않고 그대로실현된다.

아래에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의 예를 제시하였다.

(17ㄴ) 창녕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① /X이/류: 댕기-(다니-, 行), 가러치-(가르치-敎),
갈기-(갈기-, 打), 전디-(견디-, 忍), 기-(기-, 匍腹),
꼬시-(고소하-, 香味), 공기-(곪-, 膿), 곤치-(고치, -改),
고이-(괴-, 渟), 거리-(그리-, 劃), 끼리-(끓이-, 使沸),
찌-(끼-, 揷), 찌이-(끼-, 안개), 낭기-(남기-, 使餘),
내리-(내리-, 降), 너머떠리-(넘어뜨리-, 使倒),
니비-(누비-, 縫), 너리-(느리-, 緩), 다치-(다치-, 傷),
달리-(달리-, 走), 대이-(닿-, 接), 떤지-(던지-, 投),
디-(되-, 硬), 띠-(뛰-, 走), 때리-(때리-, 打),
떠시-(따뜻하-, 溫), 마시-(마시-, 飮), 마치-(마치-, 終),
만지-(만지-, 摠), 무치-(무치-, 나물), 비-(베-, 斬),
뿌라아지-(부러지-, 被切), 뿌시-(부수-, 碎),

시-(쉬-, 休), 쏘기-(속이-, 欺), 아니-(아니-不제),
저리-(절이-, 鹽), 지-(쥐-, 握), 지-(지-, 負),
쩔기-(지리-, 오줌) 찌-(찌-, 烝), 티-(튀-, 跳),
히-(희-, 白)

② /X에/류: 깨-(깨-, 破), 꾸개-(구기-, 皺), 빼-(빼-, 拔),
놀래-(놀라-, 驚), 달개-(달래-, 撫), 매-(매-, 除草),
모지래-(모자라-, 不足), 포개-(포개-, 重)

③ /X어/류: 서-(서-, 立), 써-(켜-, 發火), 써-(쓰-, 書),
퍼-(푸-, 汲), 커-(크-, 大), 푸러-(푸르-, 靑)

④ /X아/류: 가-(가-, 去), 사-(사-, 買), 자-(자-, 宿),
차-(차-, 蹴), 타-(타-乘), 거다아-(거두-, 收),
여자아-(견주-, 比), 나나아-(나누-, 分),
마차아-(마추-, 組合), 볼가아-(바르-, 摘出),
이아-(외우-, 暗誦), 이사아-(잇-, 連), 조아-(죄-, 締)

⑤ /X우/류: 바꾸-(바꾸-, 換), 꾸-(꾸-, 夢), 누-(누-, 尿),
주-(주-, 與), 개루-(겨루-, 競), 두-(두-, 置),
숭구-(심-, 植), , 배우-(배우-, 學), 키우-(키우-, 飼育)

⑥ /X오/류: 오-(오-, 來), 쏘오-(쏘-, 針), 꼬-(꼬-, 索),
도오-(돕-, 助), 보-(보-, 見), 쏘-(쏘-, 射)

곡성 지역어와 비교하여 /아/말음 어간의 수가 많은데 (17ㄴ)④의 예를 살펴보면 이전에 /우/나 /으/ 말음어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형들이 /아/말음형으로 재구조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유형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모음소로 끝나는 활용 어간의 유형

이	o	o
에	o	o
애	o	
위	o	
외	o	
으	o	o
어	x	
아	o	o
우	o	o
오	o	o
	곡성	창녕

모음소로 끝나는 활용 어간의 유형을 살펴 보면 두 지역 모두 그 지역어의 단모음소로 존재하는 모음소가 대부분 활용 어간말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곡성 지역에서 /어/로 끝나는 활용 어간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 지역어에서 /어/가 어간말에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우연한 공백으로 본다. 이 지역어에서 표준어의 'X하-'형 어간은 'X허-'로 존재하는데 이 유형의 어간은 복합 기저형을 갖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된 것이다. 실제 활용형상에서는 [심시머다](심심하다)와 같이 어간말에 [어]가 발음될 수 있다.

2장에서 살핀 음소 목록을 비교해 보면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가장 큰 차이는 모음소와 자음소 수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곡성 지역어에는 모음소가 다양하게-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대의 경우로-나타나며 창녕 지역어에서는 모음소의 수는 최소이나 자음소의 수는 최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특징은 어간의 기저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정된 수의 음소를 가지고 한국어에 존재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소를 조합하여 소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론적

(4) 복합 기저형은 곡용 어간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일부 어미와의 통합형이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처격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이전 시기의 형태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곡성 지역어에는 /X{ㅅ-ㅌ}/와 /X{ㅅ-ㅈ}/, 그리고 /X{ㄱ-ㅋ}/형이 있고, 창녕 지역어에는 /X{ㅌ-ㅊ}/형이 있다.

표준어 어형	곡성 지역어	창녕 지역어
꽃	꽃	/꼬{ㅌ-ㅊ}/
낫	낫	/나{ㅌ-ㅊ}/
밭	/바{ㅅ-ㅌ}/	/바{ㅌ-ㅊ}/

창녕 지역어의 X{ㅌ-ㅊ}형 복합 기저형은 구개음소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어에의 /ㅈ/ 말음 어간은 /X{ㄷ-ㅈ}/와 같은 복합기저형을 보이지 않고 '디디다'와 같은 어형에서 모음소 /이/ 앞에서 /ㄷ/이 발음 되고 있는 것 등의 증거로 보아 구개음소화가 공시적인 음운 규칙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2] 활용 어간 기저형의 특징

(1) 자음소(유음소 포함)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곡성과 창녕에서 유사한 유형을 보인다. 창녕 지역어에 /ㄲ/말음과 /ㆆ/말음의 유형이 더 있는 정도이다.

(2)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곡용 어간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곡성 지역어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가 유일한 /업ㅆ-/을 제외하면 모두 /ㄹX/형이다. 창녕 지역어에는 /ㅄ/과 /ㄹX/형 외에도 /ㄵ, ㄶ, ㅇㅎ/ 유형이 있어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3) 어간이 모음소로 끝날 때는 곡용 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단모음소로 존재하고 있는 모음소가 대부분 위치할 수 있다. 곡성 지역어에서의 /어/만이 예외이다.

(4) 활용 어간에서 복합 기저형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곡성 지역어에는 7가지 유형이 모두 관찰되나 창녕 지역어에서는 5가지 유형만이 관찰된다.

모두 'ㅂ'말음 용언으로서 규칙활용을 하기 때문에 C유형에 해당하는 복합 기저형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조사된 예들도 'ㅂ' 말음 어간으로서 활용할 때도 있고 복합 기저형 어간으로서 활용할 때도 있으므로 이를 수의적인 현상으로 보고 복합 기저형의 예를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하면 창녕 지역어에서 C유형의 복합 기저형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D유형은 소위 'ㄷ' 불규칙 용언의 복합 기저형인데 곡성과 창녕 모두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원래 이 유형에 해당되는 어간의 수가 적은데다가 곡성에서는 /듣-~듫-/ 하나만이 창녕에서는 /듣-~듫-/, /걷-~겲-/, /묻-~묺-/의 세 개 어간만이 이 유형에 속하고 있다. 표준어에서 'ㄷ'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는 용언들은 곡성 지역어에서는 대게 'ㅀ'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있다

E유형은 소위 '르' 불규칙 용언의 복합 기저형이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 모두에서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어간은 그 수가 많다. B유형과 더불어 곡성과 창녕의 공통적인 복합 기저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어간에 포함된 교체 모음소의 종류가 /이/와 /으/로 다른 것이 차이점이다.

F유형은 기원적으로 'ᄒᆞ-'가 포함된 용언들의 복합 기저형이다. 곡성은 세 가지 유형을, 창녕은 네 가지 유형의 복합 기저형을 가진다. F-1의 경우에는 어간의 교체 모음소가 /어/와 /아/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곡성 지역어에서는 '하-'에 해당하는 어간이 /허-/로 존재하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하-/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F-2의 경우에는 해당 예가 /같-~가태-/뿐이라는 것도 동일하다. F-3은 기원적 'ᄒᆞ-'가 'ㅎ'으로 어간 말에 존재하는 어형에 해당한다. '귀찮-', '괜찮-'의 해당 예는 두 지역어에 공통적으로 이 유형의 복합 기저형에 해당된다. '빨갛-', '노랗-' 등과 같은 색채어의 경우에는 곡성 지역어에서는 F-1 유형에 해당하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F-4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르다.

3.3. 요약

본 3장에서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어간 형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어간 말음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는 어간의 말음과

어미의 두음이 만나서 통합될 때 음운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곡성 지역어에 비해 창녕 지역어의 어간말 음소의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에는 두 지역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모음소가 어간말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음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2장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두 지역어의 자음소의 수에는 차이가 없는데, 어간말에 올 수 있는 자음소의 유형에서는 창녕 지역어가 다양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즉, 곡성 지역어와는 달리 경음소도 어간말에 위치할 수 있으며 곡용 어간말에도 유기음소가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창녕 지역어에서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곡성 지역어에서 어간말 자음소의 유형이 적다는 것은 창녕 지역어에 비해 어간의 재구조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자음소군 말음이었던 것은 단자음소로, 유기음소이나 경음소 말음이었던 것은 평음소로 혹은 평음소 말음이었던 것은 모음소를 말음으로 가지는 방향으로 재구조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복합 기저형의 유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복합 기저형의 경우 곡성 지역어가 창녕 지역어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A의 경우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두 지역어의 특징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곡용 어간 기저형의 특징

(1) 자음소(유음소 포함)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곡성 지역어의 경우 7유형(ㅂ,ㅁ,ㅅ,ㄴ,ㄱ,ㅇ,ㄹ)이 있고 창녕 지역어의 경우 11유형(ㅂ,ㅍ,ㅁ,ㅅ,ㄴ,ㄱ,ㄲ,ㅋ,ㅇ,ㄹ)이 있다. 곡성 지역어의 어간말에는 유기음소나 경음소를 가진 유형은 존재하지 않아 창녕 지역어에 비해 그 유형이 단순한데, 이는 어간말 자음소가 재구조화된 결과로 생각된다. 일부 복합 기저형의 형태에 어간말 자음소의 옛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을 보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는 표준어 어형과 비교하여 해당 지역어의 곡용 어간말 자음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제시하였다.

표준어 어형	곡성 지역어	창녕 지역어
짚	집	짚
숲	숩	숲
잎	입	잎
낮	/나{ㅅ-ㅈ}/	낮
젖	젓	젖
밖	/베까{ㅅ-ㅌ}/	밖

표준어 어형에서 양순음소를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은 창녕 지역어에서는 그 형태가 동일하나 곡성 지역어에서는 모두 /ㅂ/말음 어간으로 나타난다. 치경음소의 경우 /ㅈ/ 말음 어간은 창녕 지역어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나, 곡성 지역어에서는 대개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나{ㅅ-ㅈ}/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어간의 복합 기저형에 /ㅈ/이 남아 있는 것은 이전 시기에 /ㅈ/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창녕 지역어에서

(2) 곡성 지역어에서 자음소군을 지녔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간은 모두 단자음소를 가진 것으로 재구조화되어 있다. 창녕 지역어에는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이 있는데 /ㅄ, ㄳ/이 그에 해당한다. /Xㅅ/형의 자음소군만이 남아 있고 그외의 자음소군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형은 재구조화 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 어형	곡성 지역어	창녕 지역어
흙	흑	헉
닭	/다{ㄱ-ㅋ}/	닥
값	갑	값
넋	넉	넋

(3)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유형은 해당 지역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모음소의 유형과 일치한다. 즉, 곡성 지역어에는 10가지 유형이, 창녕 지역어에는 6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모음소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4) 복합 기저형은 곡용 어간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일부 어미와의 통합형이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처격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이전 시기의 형태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곡성 지역어에는 /X{ㅅ-ㅌ}/와 /X{ㅅ-ㅈ}/, 그리고 /X{ㄱ-ㅋ}/형이 있고, 창녕 지역어에는 /X{ㅌ-ㅊ}/형이 있다.

표준어 어형	곡성 지역어	창녕 지역어
꽃	꽂	/꼬{ㅌ-ㅊ}/
낫	낫	/나{ㅌ-ㅊ}/
밭	/바{ㅅ-ㅌ}/	/바{ㅌ-ㅊ}/

창녕 지역어의 X{ㅌ-ㅊ}형 복합 기저형은 구개음소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어에의 /ㅈ/ 말음 어간은 /X{ㄷ-ㅈ}/와 같은 복합기저형을 보이지 않고 '디디다'와 같은 어형에서 모음소 /이/ 앞에서 /ㄷ/이 발음 되고 있는 것 등의 증거로 보아 구개음소화가 공시적인 음운 규칙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2 활용 어간 기저형의 특징

(1) 자음소(유음소 포함)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곡성과 창녕에서 유사한 유형을 보인다. 창녕 지역어에 /ㄲ/말음과 /ㆆ/말음의 유형이 더 있는 정도이다.

(2)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곡용 어간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곡성 지역어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가 유일한 /업ㅆ-/을 제외하면 모두 /ㄹX/형이다. 창녕 지역어에는 /ㅄ/과 /ㄹX/형 외에도 /ㄵ, ㄶ, ㅇㅎ/ 유형이 있어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3) 어간이 모음소로 끝날 때는 곡용 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단모음소로 존재하고 있는 모음소가 대부분 위치할 수 있다. 곡성 지역어에서의 /어/만이 예외이다.

(4) 활용 어간에서 복합 기저형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곡성 지역어에는 7가지 유형이 모두 관찰되나 창녕 지역어에서는 5가지 유형만이 관찰된다.

유형		복합 기저형	곡성	창녕
A		/Xㅅ{∅-이}-/	o	x
B		/XC{으(어)-우}-/	o	o
C	1	/X{ㅂ-우}-/	o	x
	2	/Xㄹ{업-우}-/	o	x
D		/X{ㄷ-ㄹㅎ}-/	o	o
E	1	/Xㄹ{이-르}-/	o	x
	2	/Xㄹ{어-러}-/	x	o
F	1a	/X{어-애}-/	o	x
	1b	/X{아-애}-/	x	o
	2	/Xㅌ{∅-애}-/	o	o
	3	/Xㅎ{∅-애}-/	o	o
	4	/X{앟-∅-애}-/	x	o

모음소 /이/에 의해 어간이 확장된 유형인 A유형 /Xㅅ{∅-이}-/ 복합 기저형과 소위 /ㅂ/ 불규칙활용에 해당하는 용언의 복합 기저형인 C유형의 경우 곡성 지역어에서만 관찰된다. 표준어의 '기쁘다'와 '높다' 등의 어형에 해당하는 어간의 복합 기저형이 B 유형과 소위 /ㄷ/ 불규칙활용에 해당하는 용언의 복합 기저형인 D 유형은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소위 /르/ 불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의 복합 기저형인 E유형도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인데, 다만 곡성 지역어에서는 기저의 모음이 /이/와 /르/이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으/와 /러/라는 것이 차이이다. 가장 많은 세부 유형을 보이는 F 유형은 '호-'와 관련된 어간들의 복합 기저형이다. 모두 4가지 하위 유형을 가지는데, F-1과 F-2, F-3 유형은 공통적이고, F-4 유형은 창녕 지역어에서만 관찰된다.

4. 음운과정

이 장에서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두 지역어가 음운규칙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같고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알아보기로 한다. 음운과정은 음운의 변동 양상에 따라 크게 '교체, 탈락, 삽입, 축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도 이와 같이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각 음운과정마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자료를 통해 규칙을 설정하고 두 지역어에 공통적인 규칙이 존재할 경우 규칙의 구체적인 모습과 적용환경 등의 제약에 차이점은 없는지 대조해 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4.1. 교체

'교체'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 형태소 경계에 있는 음소가 다른 음소로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교체'는 크게 자음소교체와 모음소교체로 구분되는데 먼저 자음소교체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4.1.1. 자음소교체

4.1.1.1. 평파열음소화

한국어에서는 음절구조제약에 따라 종성에 /ㄱ,ㄴ,ㄷ,ㄹ,ㅁ,ㅂ,ㅇ/의 7개의 자음소만이 올 수 있다. /ㄴ,ㄹ,ㅁ,ㅇ/으로 끝나는 어간은 그 자체로 발음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외의 자음들은 /ㄱ,ㄷ,ㅂ/ 중의 하나로 소리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평파열음소화라고 한다. 비음소를 제외한 어간말 양순음소, 치경음소, 경구개음소, 연구개음소는 자음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ㅂ/, /ㄷ/, /ㄱ/ 중의 어느 한 음소로 된다. 성문음소의 경우에는 유기음소나 경음소를 대립의 짝으로 가지지 않는 음소, 즉, /ㄴ,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평파열음소화하여 /ㄷ/로 교체

된다.[44] 모든 자음소의 교체는 평파열음소화 이후에 일어나므로 이 교체현상을 먼저 살펴 본다.

(1)에 제시된 자료들은 어간말의 양순음소가 평파열음소화하는 예이다.

(1ㄱ) 곡성

• 활용: /덮-드라/ → [덥뜨라]

(1ㄴ) 창녕

• 활용: /덮-더라/ → [덥떠라]
• 곡용: /잎-도/ → [입또]

곡성에는 곡용 어간말에 양순음소 /ㅍ/가 없으므로 평파열음소화의 적용예가 없고 활용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창녕에서는 곡용 어간과 활용 어간말음소 /ㅍ/가 자음소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ㅂ/로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간말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의 예를 보자. 어간말에서 평파열음소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치경음소에는 /ㅅ,ㅆ,ㅌ,ㄸ/가 있고 경구개음소에는 /ㅈ,ㅉ,ㅊ/가 있다. 이 중에서 기저형의 어간말에 존재하는 음소는 곡성에서는 /ㅅ,ㅆ,ㅌ,ㅈ,ㅊ/, 창녕에는 /ㅅ,ㅌ,ㅈ,ㅊ/가 있다. 곡성 지역어에는 곡용 어간말에 올 수 있는 해당 자음소는 /ㅅ/밖에 없으나 활용 어간말에는 /ㅅ,ㅆ,ㅌ,ㅈ,ㅊ/가 있기 때문에 평파열음소화를 확인할 수 있다.

(2ㄱ) 곡성

① ㅅ→ㄷ:
• 활용: /붓-드라/ → [붇뜨라]
• 곡용: /꼿-도/ → [꼳또]

② ㅆ→ㄷ:
• 활용: /있-드라/ → [읻뜨라]

③ ㅌ→ㄷ:
• 활용: /붙-드라/ → [붇뜨라]

---

44) 곡용 어간의 경우 홀로 발음될 수 있으므로 어미와 통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평파열음소화가 적용되나 본장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의 음소 교체를 다루고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④ ㅈ→ㄷ:
• 활용: /늦-드라/ → [는뜨라]
⑤ ㅊ→ㄷ:
• 활용: /쫒-드라/ → [쫀뜨라]

(2ㄴ) 창녕
① ㅅ→ㄷ:
• 활용: /벗ㅣ더라/ →[벋떠라]
• 곡용: /옷ㅣ도/ → [옫또]
② ㅌ→ㄷ:
• 활용: /맡ㅣ더라/ →[맏떠라]
③ ㅈ→ㄷ: /
• 활용: /꽂ㅣ더라/ → [꼳떠라]
• 곡용: /낮ㅣ도/ → [낟또]
④ ㅊ→ㄷ: /
• 활용: /쫒ㅣ더라/ → [쫃떠라]

다음으로 연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예를 보자. 어간말에서 평파열음소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음소에는 /ㄲ,ㅋ/가 있다. 이 중에서 기저형의 어간말에 존재하는 음소는 창녕에는 /ㄲ,ㅋ/가 있으나 곡성 지역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활용 어간에서 표준어의 /ㄲ/말음 어간에 해당되는 예는 모두 /ㅻ/말음으로 재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곡성 지역어에서 연구개음소의 평파열음화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자음의 행동과 비교해서 특별히 존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규칙의 적용 환경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3) 창녕
① ㄲ→ㄱ:
• 활용: /꺾ㅣ더라/ → [꺽떠라]
• 곡용: /밖ㅣ도/ → [박또]
② ㅋ→ㄱ:
• 활용: /헠ㅣ도/ → [헉또]

다음으로 성문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예를 보자. 어간말에서 평파열음소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성문음소에는 /ㅎ,ㆆ/가 있다. 이 중에서 기저형의 어간말에 존재하는 음소는 창녕 지역어에는 /ㅎ,ㆆ/가 있고 곡성 지역어에서는 /ㅎ/가 있다. 두 지역 모두 활용 어간에서만 발견된다.

성문음소 /ㅎ/는 뒤에 오는 자음소가 유기음소와 짝이 있는 평음소일 경우에는 축약되어 유기음소로 실현되고 /ㆆ/는 경음소와 짝이 있는 평음소와 만나면 경음소로 실현되기 때문에 평파열음소화의 환경에 제약이 있다. /ㅎ/뒤에 위치하여 축약의 환경이 되지 않는 자음소는 이론상 /ㄲ, ㄸ, ㅉ, ㅃ, ㅆ/ 등 경음소와 /ㄴ,ㅁ,ㅇ/ 등의 비음소와 /ㄹ,ㅅ/가 있다. 이 중에서 활용 어미초의 자음에 존재하는 것은 곡성 지역어의 어미 /-냐/, /-네/, 세/, /-습니다/, /-소/ 등에 포함된 /ㄴ,ㅅ/과 창녕 지역어의 어미 /-나/, /-노/, /-넌다/, /-넌구먼/, /-네/, /-섬니더/, /-소/ 등에 포함된 /ㄴ,ㅅ/이다.

창녕 지역어에는 성문음소에 /ㆆ/도 있는데 활용 어간말에서 발견된다. /ㆆ/ 뒤에 위치하여 축약의 환경이 되지 않는 자음소 중에서 활용 어미초에 존재하는 것은 /ㄴ/이 된다. /ㅅ/의 경우 /ㆆ/와 통합되면 경음소화가 적용되어 /ㅆ/으로 실현되나 창녕 지역어에서 /ㅅ/와 /ㅆ/은 이음절 이하에서 변별적이지 않으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

(4ㄱ) 곡성

• ㅎ→ㄷ:

활용: /옇 | 네/ → [연네] /옇 | 소/ → [여쏘]

(4ㄴ) 창녕

① ㅎ→ㄷ:

• 활용: /옇 | 는/ → [연는] /옇 | 소/ → [여쏘]

② ㆆ→ㄷ:

• 활용: /풓 | 는/ →[푼는]

먼저 어미초 /ㄴ/와 통합할 경우를 보자. (4)의 자료의 어간말 성문음소 /ㅎ/와 /ㆆ/는 /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음성형에서 [ㄴ]로 실현되기 때문에 평파열음소화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어

미말의 성문음소가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하여 /ㄷ/로 된 다음 다시 어미초의 /ㄴ/ 앞에서 동화되어 /ㄴ/로 되는 음운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45] 특별한 조음 위치를 가지지 않는 /ㅎ/가 평파열음화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ㄴ/으로 동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46]

어간말 /ㅎ/와 /ㅅ/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통합형의 경우 [옏쏘]가 아니라 [여쏘]로만 발음이 실현된다. 이 경우 평파열음소화된 /ㄷ/ 뒤에서 어미의 /ㅅ/가 경음소화된 뒤, /ㄷ/를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ㄷ/이 다시 /ㅆ/로 동화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ㄷ/이 탈락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다른 음소와는 달리 /ㄷ/만이 경음소 앞에서 탈락해야 한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또한 /ㄷ/가 /ㅆ/로 동화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평파열음화를 거친 다른 자음들과는 달리 왜 /ㄷ/만이 마찰음소인 /ㅆ/로 동화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본고에서는 /ㅅ/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어간말 /ㅎ/이 통합될 때 /ㅎ/과 /ㅅ/이 축약되어 /ㅆ/으로 실현된다고 보기로 한다. /ㅎ/이 /ㅅ/과 통합되는 과정을 축약으로 본 연구에는 이승재(1980)과 김경아(1997)이 있다. 두 논의에서는 /ㅎ/이 /ㄷ/으로 평파열음소화(중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바로 축약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김경아(1997)에서는 그에 대한 음성학적인 논의를 통해 /ㅎ+ㅅ/ 연쇄가 /ㅆ/으로 축약된다는 것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ㅎ/이 /ㄷ/으로 평파열음소화되는 것은 후행 자음의 위치 자질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보므로 /ㅆ/의 경음화의 경우에 한정하여 위의 연구들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47]

---

45) /ㅎ/말음 어간의 경우 /ㄷ/으로 평파열음소화 되지 않고 바로 /ㄴ/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들 견해에 대한 연구사와 평가는 송철의(1990:30)과 배주채(1992:190-195)를 참조할 수 있다.

46) /옇]만/이라는 연쇄가 가능하다면 한국인이라면 [연만]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이는 /ㅎ/이 바로 비음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파열음소화를 거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47) 이와 같은 입장은 /ㅎ/의 변별자질 중에서 위치 자질을 배제한 결과이다. 이진호(2003)에서 /ㅎ/의 위치자질은 후행하는 자음소로부터 물려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의 경우 음절말에서 [+유기성]과 [+지속성]이 제거되어 /ㄷ/로 평파열음소화가 된 후 /ㅅ/이 /ㅆ/으로 경음소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권창섭(2009)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를 수용해서 [+SG]와 [+CG]가 음절말에서 제거되어 무표적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는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 /ㄷ/가 중간과정에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음운과정이 진행되니 축약의 과정으로 보는 본고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평자음소의 경우 유기음소가 되는 짝이 있을 때 /ㅎ/와 축약하여 유기음소가 된다. 이는 /ㅎ/의 자질 [+지속성, +긴장성, +유기성]에서 [+긴장성, +유기성]이 평음소에 더해지면 유기음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ㅅ/의 경우 유기음소의 짝이 없으므로 /ㅎ/와 축약되어도 유기음소로 실현될 수가 없다. 대신 /ㅅ/에 /ㅎ/의 자질 중에서 [+지속성, +긴장성]이 더해지면 /ㅆ/의 자질과 같아지므로 /ㅆ/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표면형은 [여쏘]이므로 중간 단계에 /ㄷ/으로의 평파열음소화를 설정하는 것보다 바로 /ㅆ/로 축약된다고 보는 것이 덜 추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복합 기저형 어간에서도 평파열음소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곡성 지역어에서는 평파열음소화의 적용환경이 될 수 있는 복합 기저형의 종류에 다음 네 가지가 있다.

(5ㄱ) 곡성

① /X{ㅅ~ㅌ}/형: [바시, 바슬, 바테서, 바트로, 받또]

② /X{ㅅ~ㅈ}/형: [나시, 나슬, 나제는, 나스로, 낟또]

③ /Xㅌ{∅~애}-/형: [갇뜨라, 가태서, 가트머, 갇따]

④ /X{ㄱ~ㅋ}/형: [다기, 다글, 다케, 다크로, 닥또]

(5ㄱ)①②의 경우에는 어미/-도/와의 통합형이 평파열음소화를 거친 표면형으로 실현된다. 복합 기저형이기 때문에 어간말의 두 개의 음소 중 어느 것과 어미가 통합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ㅅ/이든 /ㅈ/이나 /ㅌ/이든 평파열음소화의 결과 /ㄷ/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복합 기저형이라는 것이 구형에서 신형으로의 재구조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특정한 어미와의 통합형 외의 경우에는 신형인 /ㅅ/과 어미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ㄱ)③에서는 어미 /-다/ 앞에서 어간말의 /ㅌ/가 /ㄷ/로 평파열음화 되었다. (5ㄱ)④에서는 복합 기저형 어간말에 /ㄱ/와 /ㅋ/가 존재하는데, 어미 /-도/와의 통합형에서는 /ㄱ/가 선택되었다고 보면 평파열음소화를 거칠 필요없이 [닥또]가 실현될 것이고 /ㅋ/가 선택되었다고 보면 /ㅋ/가 /ㄱ/로 평파열음소화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5ㄴ) 창녕

① /X{ㅌ-ㅊ}/형: [꼬치, 꼬털, 꼬태서, 꼬터로, 꼳또]

② /Xㅌ{∅~애}-/형: [각꼬, 갇떠라, 가텅거, 가탣따]

창녕 지역어에서는 복합 기저형의 종류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평파열음소화의 환경이 될 만한 경우는 위의 두 가지이다. (5ㄴ)①의 경우에는 통시적인 구개음소화와 관련된 예이므로 곡용 어미 /-이/ 앞에서만 어간말의 /ㅊ/가 선택되고 /-도/와의 통합형에서는 /ㅌ/이 선택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꼳또]는 평파열음소화를 거친것으로 보인다. (5ㄴ)②의 경우에는 어미 /-고/와 /-더라/와의 통합형에서 평파열음소화를 거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다.

평파열음화는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음운과정이다. 음절구조제약과 관련하여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 두 지역어에서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곡성 지역어에서는 어간이 /ㄲ/나 /ㅋ/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서 표면형에서 /ㄱ/으로의 평파열음화를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 이는 어간 유형에 따른 우연한 공백일 뿐이고 전체적인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평파열음소화
◆ 어간말의 자음소가 그 위치에서나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 /ㅂ/, /ㄱ/, /ㄷ/로 교체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함

4.1.1.2. 자음소동화

자음소동화란 어간말의 형태음소인 자음소가 어미초의 형태음소인 자음소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음소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자음소동화에는 비음소화, 연구개음소화, 양순음소화, 유음소화가 있는데, 곡성과 창녕 지역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비음소화

비음소화는 비음소가 아닌 어간말의 자음소가 어미초의 비음소에 동화되

어 비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운과정은 활용과 곡용에 다 존재한다.

(6ㄱ) 곡성

① ㅂ→ㅁ:

• 활용: /뽑 | 네/ → [뽐네]　　/덮 | 네/ → [덤네]

• 곡용: /입 | 만/ → [임만]

② ㄷ→ㄴ:

• 활용: /얻 | 네/ → [언네]　　/붙 | 네/ → [분네]

/있 | 네/ → [인네]　　/늦 | 네/ → [는네]

/놓 | 네/ → [논네]

• 곡용: /꽃 | 만/ → [꼰만]

③ ㄱ→ㅇ:

• 활용: /죽 | 네/ → [중네]

• 곡용: /국 | 만/ → [궁만]

(6ㄴ) 창녕

① ㅂ→ㅁ:

• 활용: /꼽 | 내/ → [꼼내]　　/덮 | 내/ → [덤내]

• 곡용: /입 | 만/ → [임만]　　/앞 | 만/ → [암만]

② ㄷ→ㄴ:

• 활용: /닫 | 내/ → [단내]　　/같 | 내/ → [간내]

/낫 | 내/ → [난내]　　/넣 | 내/ → [넌내]

/쫓 | 내/ → [쫀내]　　/놓 | 내/ → [논내]

/푸ㅎ | 내/ → [푼내]

• 곡용: /옷 | 만/ → [온만]　　/낮 | 만/ → [난만]

③ ㄱ→ㅇ:

• 활용: /막 | 내/ → [망내]　　/뿍 | 네/ → [뿡내]

• 곡용: /국 | 만/ → [궁만]　　/밖 | 만/ → [방만]

/닭 | 만/ → [당만]

곡용의 경우 어간말 자음소인 양순음소들은 어미초의 /ㅁ/ 앞에서 모두

[ㅁ]으로 실현된다. /ㅍ/은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하여 /ㅂ/로 되고 다시 어미초의 비음소에 동화되어 /ㅁ/가 된다. 활용형에서도 어미초의 비음 /ㄴ/ 앞에서 어간말 양순음소들은 [ㅁ]으로 실현된다.

어간말음소가 치경음소이거나 경구개음소, 성문음소인 경우에는 먼저 어미초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된 후 /ㄴ/으로 비음화 된다. 활용의 경우에는 어미초 자음소 /ㄴ/ 앞에서, 곡용의 경우에는 어미초 자음소 /ㅁ/ 앞에서의 예를 확인 할 수 있다.

어간말음소가 연구개음소인 경우에는 /ㅇ/으로 비음소화된다. 곡성 지역어의 경우에는 어간말 연구개음소에 /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ㅇ/으로 교체되며, 창녕 지역어의 경우에 어간말음소 /ㄲ/, /ㅋ/는 역시 평파열음소화하여 /ㄱ/으로 교체된 후 비음소화를 겪는다.

비음소화 ◆ 그 자체나 일정한 음운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간말 자음소 /ㅂ/, /ㄷ/, /ㄱ/이 어미초의 비음소 /ㅁ,ㄴ/ 앞에서 각각 동일 조음위치의 비음소로 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함

[2] 연구개음소화

연구개음소화란 연구개음소가 아닌 어간말의 자음소가 어미초의 연구개음소에 동화되어 연구개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운과정은 곡용과 활용에 다 존재한다.

(7ㄱ) 곡성

① ㅂ→ㄱ:

• 활용: /잡 | 고/ → [작꼬] /덮 | 고/ → [덕꼬]

② ㄷ→ㄱ:

• 활용: /있 | 고/ → [익꼬] /짓 | 고/ → [직꼬]

• 곡용: /꽂 | 가치/ → [꼭까치]

③ ㅁ→ㅇ:

• 활용: /다듬 | 고/ → [다둥꼬]

• 곡용: /봄 ǀ 까지/ → [봉까지]
④ ㄴ→ㅇ:
• 활용: /앉 ǀ 고/ → [앙꼬]
• 곡용: /돈 ǀ 가꼬/ → [동가꼬]

곡성 지역어에서 /ㄴ/말음 활용 어간은 기저형의 수가 적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앉-/의 경우 /앙그-/가 일반적인 기저형이나 /앉-/으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항상 [앙꼬]와 같이 연구개음소화를 거친 표면형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비록 그 수는 적지만 /ㄴ/말음 어간의 활용형에서도 연구개음소화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창녕 지역어에서도 다음과 같이 연구개음소화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7ㄴ) 창녕
① ㅂ→ㄱ:
• 활용: /밉 ǀ 고/ → [믹꼬]　　/덮 ǀ 고/ → [덕꼬]
• 곡용: /일곱 ǀ 까지/ → [일곡까지]
② ㄷ→ㄱ:
• 활용: /닫 ǀ 고/ → [닥꼬]　　/맡 ǀ 고/ → [막꼬],
　　/낫 ǀ 내/ → [낙꼬]　　/넞 ǀ 내/ → [넉꼬]
• 곡용: /옷 ǀ 까지/ → [옥까지]
③ ㅁ→ㅇ:
• 활용: /숨 ǀ 고/ → [숭꼬]　　/담 ǀ 고/ → [당꼬]
• 곡용: /봄 ǀ 까지/ → [봉까지]
④ ㄴ→ㅇ:
• 활용: /신 ǀ 고/ → [싱꼬]　　/꼲 ǀ 고/ → [꽁코]
• 곡용: /돈 ǀ 까지/ → [동까지]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 공통적으로 곡용형에서 연구개음소화가 적용되지 않는 어형이 관찰된다.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창녕 지역어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숫자라 규칙 적용의 필수성에 영향을 주지 못할 듯하나, 곡성 지역어에서는 그 예가 많다. 즉, 곡성 지역어의 활용형에서는 해당 환경에서 연구개음소화의 적용이 필수적이나 곡용의 경우에는 수의적이

라고 할 수 있다.48) 연구개음소화의 범위가 넓은 창녕 지역어에서도 곡용형의 경우에는 이 음운과정이 적용되지 않은 예가 가끔 발견되는데, 홀로 쓰일 수 없는 활용 어간과는 달리 곡용 어간은 어미 없이 홀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자들에게 어간말의 음소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49)

연구개음소화
◆ 그 자체나 일정한 음운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간말 자음소가 어미초의 연구개음소에 동화되어 연구개음소로 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함

3 양순음소화

양순음소화란 치경음소나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말의 자음소가 어미초의 양순음소에 동화되어 양순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이다. 두 지역어에서 양순음소로 시작되는 활용 어미는 없으므로 곡용형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8ㄱ) 곡성

① ㄴ→ㅁ:

• 곡용: /간 | 마춰/ → [감마춰]

② ㄷ→ㅂ:

• 곡용: /여럿 | 보덤/ → [여럽뽀덤]

(8ㄴ) 창녕

① ㄴ→ㅁ:

• 곡용: /돈 | 만/ → [돔만]

---

48) 영암 지역어를 논의한 이상신(2008:78-79)에서는 곡용보다는 활용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연구개음소화를 수의적인 현상으로 처리하였다. 본고의 논의에서는 곡용과 활용을 구분하여 논의하므로 적어도 활용에서는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9) 박경래(2003:31)에서는 형태소 경계에 발화의 단절을 나타내는 연접(juncture)이 있느냐와 음장을 개재시키느냐에 따라 연구개음화의 실현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곡용형의 경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연접을 인식하느냐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② ㄷ→ㅂ:

• 곡용: /옷ㅣ보고/ → [옵뽀고]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ㄴ/과 /ㄷ/이 양순음소화의 적용 환경이 된다. (8ㄱㄴ)②의 경우 어간말 /ㅅ/이 평파열음소화를 거쳐 /ㄷ/이 된 후 /ㅂ/ 앞에서 양순음소화된 것이다.

양순음소화
◆ 그 자체나 일정한 음운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간말 자음소(치경음소나 경구개음소)가 어미초의 양순음소에 동화되어 양순음소로 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함

④ 유음소화

유음소화란 어간말 자음소군 /ㄹC/로 끝나는 어간과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자음소군단순화에 의해 'C'가 탈락된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초의 /ㄴ/이 /ㄹ/로 되는 음운현상이다.50) 최명옥(2005)에 따르면 유음소화는 그 기능이 음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인 것으로 앞서 살핀 '비음소화, 양순음소화, 연구개음소화'와 구별된다. 즉, 유음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간말 /ㄹC/와 어미초 /ㄴ/이 만날 때인데 이때 우선 'C'의 탈락이 일어난 뒤, 국어의 정상적인 음운과정인 /ㄹ/의 탈락이 일어나면 의미의 파괴가 따르므로 탈락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서 선행하는 /ㄹ/에 후행하는 /ㄴ/이 동화되는 것이다. 다음에 재시되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운과정은 활용에만 존재한다.51)

(9ㄱ) 곡성

• ㅀ자음소군 어간: /끓ㅣ네/ → [끌레]

50) 최명옥(2006d:185)에 따른 것이다.

51) /ㄴ/로 시작하는 곡용어미가 없기 때문에 유음소화가 곡용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ㄴ/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다면 유음소화가 적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9ㄴ) 창녕

- ㅀ 자음소군 어간: /싫ㅣ내/ → [실래]
- ㄼ 자음소군 어간: /밟ㅣ내/ → [발래]
- ㄺ 자음소군 어간: /밝ㅣ내/ → [발래]

곡성 지역어에서는 /ㄹC/자음소군에서 'C'이 탈락되는 경우는 /ㅀ/ 자음소군 어간밖에 없다.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많지 않고 그 활용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음소화의 예가 많지는 않으나 (9ㄱ)의 예에서 곡성 지역어의 유음소화를 확인할 수 있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ㄹC/자음소군에서 'C'이 탈락되는 경우는 /ㅀ, ㄼ, ㄺ/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각각의 경우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두번째 자음소가 탈락하고 /ㄹ/이 남는다. 이후 어미초의 /ㄴ/과 만나 유음소화가 적용되는데 (9ㄴ)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음소화
◆ /ㄹC/로 끝나는 어간에서 자음소군단순화에 의해 'C'가 탈락된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초의 /ㄴ/이 /ㄹ/로 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함

4.1.1.3. 경음소화

경음소화는 일정한 환경에서 어미 초의 평음소가 경음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경음소화의 환경이 되는 앞 음절 종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는 평파열음소 뒤에서의 경음소화이고, 둘째는 비음소 /ㄴ,ㅁ/ 뒤에서의 경음소화이고 셋째는 자음소군단순화 이후 /ㄹ/ 뒤에서의 경음소화이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차례로 논의한다.

[1] 평파열음소 뒤 경음화

먼저 평파열음소 뒤에서 어미두음이 경음소로 바뀌는 경우를 살펴 보자.

(10ㄱ) 곡성

① 활용:

- 'ㅂ' 뒤 /뽑 | 고/ → [뽁꼬]
  /덮 | 고/ → [덕꼬]
- 'ㄷ' 뒤 /얻 | 고/ → [억꼬]
  /붙 | 고/ → [북꼬]
  /있 | 고/ → [익꼬]
  /늦 | 고/ → [늑꼬]
- 'ㄱ' 뒤 /죽 | 고/ → [죽꼬]

② 곡용:

- 'ㅂ' 뒤 /입 | 도/ → [입또]
- 'ㄷ' 뒤 /꽃 | 도/ → [꼳또]
- 'ㄱ' 뒤 /국 | 도/ → [국또]

(10ㄴ) 창녕

① 활용:

- 'ㅂ' 뒤 /꿉 | 고/ → [꾹꼬]
  /덮 | 고/ → [덕꼬]
- 'ㄷ' 뒤 /닫 | 고/ → [닥꼬]
  /같 | 고/ → [각꼬]
  /낫 | 고/ → [낙꼬]
  /넛 | 고/ → [넉꼬]
- 'ㄱ' 뒤 /막 | 고/ → [막꼬]
  /빢 | 고/ → [빡꼬]

② 곡용:

- 'ㅂ' 뒤 /입 | 도/ → [입또]
  /앞 | 도/ → [압또]
- 'ㄷ' 뒤 /옷 | 도/ → [옫또]
  /낮 | 도/ → [낟또]
- 'ㄱ' 뒤 /국 | 도/ → [국또]
  /밖 | 도/ → [박또]
  /닭 | 도/ → [닥또]

평파열음소 뒤에서의 경음화는 활용과 곡용에서 모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어간말 모음소가 원래 평파열음소였을 때는 바로 그 뒤에서, 그렇지 않으면 평파열음소화를 겪은 후에 어미초의 자음소를 경음화 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성문음소 /ㅎ/과 /ㆆ/말음 어간의 경우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ㆆ/이 어미초의 자음과 통합할 때 후행 자음소가 경음소화 되는 것은 축약현상이므로 뒤에서 다루게 된다. /ㅎ/가 /ㅅ/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될 경우에도 우리는 /ㅅ/가 /ㅆ/로 경음소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본고는 /ㅎ/과 /ㅅ/이 만나면 /ㅆ/으로 바로 축약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경음소화의 예에서 빠지게 된다.

2 비음소 뒤 경음소화

(11ㄱ) 곡성

• 'ㅁ' 뒤	/감 ǀ 고/ → [감꼬]
	/곪 ǀ 고/ → [곰꼬]
• 'ㄴ' 뒤	/안 ǀ 고/ → [안꼬]

(11ㄴ) 창녕

• 'ㅁ' 뒤	/담 ǀ 고/ → [담꼬]
	/닮 ǀ 고/ → [담꼬]
• 'ㄴ' 뒤	/신 ǀ 고/ → [싱꼬]
	/앉 ǀ 고/ → [앙꼬]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비음소 뒤의 평음소가 경음소로 바뀌는 현상으로서 활용에서만 일어나는 경음소화이다. 곡성과 창녕에서 모두 적용되는 현상으로 /곪 ǀ 고/ → [곰꼬]와 같이 자음소군단순화 이후 남은 비음소 /ㅁ/ 뒤에서도 적용된다.

3 자음소군단순화 이후 /ㄹ/ 뒤 경음소화

(12ㄱ) 곡성

/굵 ǀ 고/ → [국꼬]

(12ㄴ) 창녕

/굵ㅣ고/ → [굴꼬]

/밟ㅣ고/ → [발꼬]

곡성 지역어에서는 /ㄺ/, /ㄼ/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될 때 /ㄹ/이 탈락되기 때문에 남은 자음소 뒤에서 경음소화가 일어나는 것에 문제가 없다.52) 그러나 창녕 지역어의 경우 같은 환경에서 /ㄹ/이 남고 뒷 자음소가 탈락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ㄹ/ 뒤에서 경음소화가 일어나게 된다.53)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음소군단순화보다 경음소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ㄹ/ 뒤에서 경음소화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최명옥(2004:166-170)의 논의에 따라 자음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입장을 취한다. 최명옥(2004:166-170)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발화 순서로는 어미초 /ㄱ/나 /ㅈ/의 경음소화가 일어나기 전에 자음소군의 단순화가 일어나며 이것은 평파열음소 뒤 경음소화에 해당하는 어간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 어간말 자음소의 평파열음소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하다.

경음소화
◆ 일정한 환경(평파열음소 뒤, 비음소 뒤, 자음소군단순화 이후 /ㄹ/ 뒤)에서 어미 초의 평음소가 경음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함

4.1.2. 모음소교체

4.1.2.1. 활음소화

활음소화란 /이/나 /오,우/로 끝나는 어간에 /-어X/ 어미가 통합할 때 단모음소 연쇄를 피하기 위하여 선행모음소 /이/가 활음소 /y/로 되고, 선행모음소 /오,우/는 활음소 /w/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54) 활음소화는 /이,오,

---

52) '홅-'의 경우 /훌트-/로 재구조화되어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53) /ㄹC/형의 어간말 자음소군은 활용 어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은 활용형이 된다.

우/ 등으로 끝나는 개음절 어간은 물론 어간말에 성문음소를 가지는 어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ㅎ,ㆆ/ 말음 어간에 이러한 활음소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간말의 /ㅎ, ㆆ/이 모음소 사이에서 탈락하면서 단모음소 연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w/로의 활음소화를 살피고 /y/로의 활음소화를 살피기로 한다.

[1] /w/ 활음소화

어간말 /우, 오/는 어미초 /아/나 /어/와 통합하여 /w/로 바뀌는 활음소화를 겪는다. 이 음운과정은 활용에서만 관찰된다.

(13ㄱ) 곡성

① /고] 아서/ → [과서]	/꾸] 어서/ → [꿔서]
② /배우] 아서/ → [배와서]	/보꾸] 아서/ → [보꽈서]
③ /매우] 어서/ → [매워서]	
④ /놓] 아서/ → [놔서]	/좋] 아서/ → [조아서]

곡성 지역어에서는 어간말의 /오/나 /우/가 어미초 /아/나 /어/와 통합하면 예외 없이 어간말 모음소가 /w/로 활음소화한다. (13ㄱ)①에서 보듯 이는 활음소 앞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에도 실현되며, ②와 같이 이음절 이하에서도 실현된다. ③의 예는 소위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이 복합 기저형을

54) 본고에서 사용하는 /-어X/ 어미는 '어'나 '아'로 시작하는 어미의 형태를 대표하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모음조화 또는 '어'의 '아'화 등으로 부르는 현상의 적용을 받는 어미들이다. 본고에서는 이 어미의 기저형을 /-어X/나 /-아X/ 하나로 잡지 않고 /-{어~아}X/로 본다. 다시 말해서 복수기저형을 가지는 어미로 보는 것이다.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 모음소 /아/와 /어/가 어떠한 자연부류를 대표하는 성질을 가진 것도 아니며 음성학적으로도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간말 모음소가 /아/인 경우와 /오/인 경우에 어미의 /아/가 선택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어/가 선택된다. 이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는 그 실현 양상이 복합하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선택의 문제이지 도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마치 [꼬치, 꼬슬, 꼬테, 꼬트로]와 같이 곡용하는 어간의 기저형을 /꽃/이나 /꽅/ 중 어느 하나로 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격 곡용 어미 /-{이~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미도 기저형을 /-{어~아}X/로 잡고 어간 모음의 조건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음운 규칙으로 설정될 필요가 없다. 기저형을 모두 밝혀 적는 것이 번거러우므로 /-어X/ 어미로 대표하여 표기한다. 물론 음운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현상이므로 어미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음운론 논의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본고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마다 언급하기로 한다.

가진 경우인데, 이 때에도 활음소화는 적용된다.

④의 예는 어간말에 /ㅎ/이 있는 경우이다. 어간말 자음소가 /ㅎ/이고 /오/나 /우/ 모음소를 가진 활용어간은 /놓-/과 /좋-/이 있는데, 이 경우 /ㅎ/이 탈락된 후에 활음소화의 환경이 되면 /놓-/은 활음소화가 되나 /좋-/ 활음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55) /놓-/의 경우에도 주동사로서 개별적으로 쓰이면 활음소화가 적용되어 위 ④와 같이 실현되나 '-어 놓아'의 구성처럼 보조동사로써 쓰일 때는 /-어나/로 굳어져서 쓰이므로 활음을 확인할 수 없다.

(13ㄴ) 창녕

① /오 | 았따/ → [왔따]

② /꼬 | 았따/ → [꼬았따] /꾸 | 어따/ → [꾸었따]

③ /바꾸 | 았따/ → [바까았따]

/숭구 | 아도/ → [숭구도]

/게루 | 았따/ → [게루운따]

④ /좋 | 아서/ → [조아서]

/푸ㅎ | 었따/ → [푸었따]

/놓 | 았따/ → [노았따]

창녕 지역에서도 /w/활음소화는 적용된다. 그러나 활음소 앞에 자음소가 없을 때에만 활음소화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13ㄴ)①에서처럼 어간말의 /오/의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는 /w/로 활음소화가 적용되어 [와]로 표면형이 실현된다. 그러나 ②에서처럼 자음소가 있는 경우에는 활음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음절 어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여 그대로 실현된다. ③에서는 이음절 어간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이 관찰된다. [바까았따]는 어간말 모음소가 어미초 /아/에 동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숭구도]와 [게루운따]는 어미의 모음소가 어간말 모음에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④의 '좋-' 해당 어형은 곡성과 마찬가지로 활음소화 되지 않으며 나머지 어형들의 경우에도 창녕 지역어에서 성문음소의 탈락 이후 활음소화는

55) 어간 '좋-'이 활음소화의 예외가 되는 것은 여러 지역어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w/활음소화

◆ 어간말 모음소 /우, 오/가 어미초 /아/나 /어/와 통합하여 /w/로 교체되는 음음과정. 활용에서만 관찰됨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창녕 지역어에서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일음절 어간 /오-/의 경우에만 적용됨

[2] /y/ 활음소화

어간말 /이/는 어미초 /아/나 /어/와 통합하여 /y/로 바뀌는 활음소화를 겪는다. 이는 활용에서만 관찰된다. 곡성 지역어에서는 /이/로 끝나는 어간이 이음절 이상일 경우 /y/활음소화가 적용된 뒤 모음소축약을 거쳐 /에/로 실현된다. 일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이/에 선행하는 자음소가 경구개음소일 경우에 활음소화가 적용된 후 활음탈락이 일어난다. 경구개음소 이외의 자음소가 선행할 경우에는 활음삽입이 일어난다. 창녕 지역어에서 /이/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초 /어/를 만나면 어미초의 /어/가 /이/로 순행동화되므로 /y/활음소화의 환경이 없다. 단지 일음절 어간 /이-/(戴)의 경우에만 [여]로 활음소화가 적용되어 실현된다.

(14ㄱ) 곡성

① /지 | 어/ → [저] (負, 지-)
/씨치 | 어/ → [씨처] (洗, 씻-)
② /이 | 어/ → [이여] (蓋, 이-)
/외 | 어/ → [외야] (暗誦, 외-)
/기 | 어/ → [기여] (匍腹, 기-)
③ /죄이 | 어/ → [죄여] (締, 죄-)
/느리 | 어/ → [느레] (緩, 느리-)
/휘비 | 어/ → [휘베] (乼, 후비-)
/보시 | 어/ → [보세] (照, 부시-)
④ /쪼시 | 어/ → [쪼사] (啄, 쪼-)
/저시 | 어/ → [저서] (漕, 젓-)

(14ㄴ) 창녕
- /이 | 어/ → [여]

(14ㄱ)①은 활음소화 이후 경구개음소 앞에서 /y/이 탈락되어 실현된 것인데, 어간의 음절수와 상관없이 /y/탈락이 적용된다. ②는 일음절 어간의 예들인데, 경구개음소 이외의 자음소가 선행하거나 선행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 /y/가 삽입되는 것을 보여준다. ③은 이음절 어간의 경우이다. 이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간말 음절 모음의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음절 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음소가 삽입이 된다. 어간말 음절 모음의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에는 /y/활음소화 이후 /에/로 모음소가 축약되어 실현된다. ④의 예는 활음소화가 적용되지 않는데, 해당 어간들은 모두 어간말에 /이/가 더하여져 재구조화된 예들로서, 복합 기저형으로 잡아 처리하므로 활음소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곡성 지역어에서는 활음소화가 생산적인 음운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14ㄴ)의 예가 유일한 창녕 지역어에서는 /y/ 활음소화를 규칙으로 삼아야 하는 데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y/활음소화

◆ 어간말 모음소 /이/가 어미초 /아/나 /어/와 통합하여 /y/로 교체되는 음운과정. 활용에서만 관찰됨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환경에 차이가 있음.

- 곡성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음절 초성에 경구개음소가 있는 경우나, 이음절 이상의 어간말 음절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창녕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음절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일음음절 어간(이-)의 경우에만 적용됨

4.1.2.2. 모음소동화

모음소동화란 어미초의 모음소가 어간말의 모음소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음소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와 모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 두 가지로 구

분하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동화에는 원순모음소화와 전설고모음소화가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동화에는 어미초 /으(어1)/의 완전순행동화, 원순모음소화, 어미초 /아/의 완전 순행동화가 있다.

Ⅰ 어미초 /으(어1)/의 완전순행동화

어미초 /으/의 완전순행동화란 어미초의 /으/가 어간말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는 어간말의 /ㅎ/가 탈락된 뒤 어간말의 모음소로 동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표면형에 장모음소로 실현되는 것을 완전순행동화로 파악하는 것이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장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조를 지닌 개별 음절로 발음되므로 완전순행동화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15ㄱ) 곡성
/놓ǀ으먼/ → [노:먼~노오먼]

(15ㄴ) 창녕
/낳ǀ어먼/ → [나아먼]

창녕 지역어에서는 음소로서 모음소 /어(ə)/가 있다. 이 모음소는 곡성 지역어나 표준어의 /어/와 /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와 [으]라는 음성이 변별적이지 않으므로 모음소는 /어/ 하나로 잡는 것이 당연하나, 음운과정의 적용을 관찰할 때는 기원적으로 /으/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어(ə)/와 /어/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어(ə)/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미의 형태 중에서 /-어먼/, /-어니깨/ 등에 포함된 /어/는 표준어형에서 /으/에 해당하는데 이들 /어/를 편의상 /어1/로 잡고 논의를 하기로 한다. 표준어에서 /-어X/형 어미에 해당하는 어미와 /-으X/형 어미에 해당하는 어미가 음운 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5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미초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현상은 /어1/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어미초 /으(어1)/의 완전순행동화 ◆ 어간말의 /ㅎ/가 탈락된 뒤 어미초의 /으/가 어간말의 모음소로 동화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

2 원순모음소화

원순모음소화는 자음소에 의한 것과 모음소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먼저 자음소에 의한 것은 활용형과 곡용형에서 관찰된다.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으(어1)/와 만나면 양순음소의 자질에 동화되어 어미모음소가 /우/로 원순모음소화된다.

(16ㄱ) 곡성

① ㅁ 뒤에서: /남 ǀ 은다/ → [나문다]
/짐 ǀ 으로/ → [지무로]
② ㅂ 뒤에서: /씹 ǀ 은다/ → [씨분다]
/집 ǀ 으로/ → [지부로]

(16ㄴ) 창녕

① ㅁ 뒤에서: /깜 ǀ 엉께/ → [까뭉께]
/짐 ǀ 어로/ → [지무로]
② ㅂ 뒤에서: /맵 ǀ 엉께/ → [매붕께]
/집 ǀ 어로/ → [지부로]
③ ㅍ 뒤에서: /덮 ǀ 엉께/ → [더풍께]
/앞 ǀ 어로/ → [아푸로]

곡성 지역어에는 /ㅍ/ 말음 어간은 없으므로 양순음소 중 /ㅁ/과 /ㅂ/ 뒤에서 어간모음소 /으/가 /우/로 원순모음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ㅁ/, /ㅂ/, /ㅍ/의 양순음소 뒤에서 역시 원순모음소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용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기원적으로 모음소 '어'에 해당했을 /어2/는 원순모음소화의 적용환경에서 제외된다. 즉, 어미 /-어서/와의 통합형에서는 창녕 지역어에서 원순모음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56]

모음소에 의한 원순모음소화는 어미초의 /으/가 어간말음절의 원순모음소가 가지고 있는 자질의 영향을 받아 원순모음소 /우/로 되는 것을 말한다. 모음소에 의한 원순모음소화는 간접동화로 동화주인 /우/와 피동화주인 /으/ 사이에 자음소가 끼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적용된다.

원순모음소화
◆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으(어1)/와 만나면 양순음소의 자질에 동화되어 어미모음소가 /우/로 교체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

③ 전설고모음소화

전설고모음소화는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 뒤에 있는 후설 평순고모음소 /으/가 전설평순고모음소 /이/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곡성 지역어의 활용에서만 관찰된다.

(17) 곡성

① ㅅ 뒤에서

/잇 ǀ 은다/ → [이신다]
/빗 ǀ 은다/ → [비신다]
/솟 ǀ 은다/ → [소슨다]

② ㅆ 뒤에서

/업ㅆ ǀ 으니께/ → [업씨니께]

(17)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곡성 지역어의 전설 고모음소화는 선행하는 자음소가 치경음소 /ㅅ/과 /ㅆ/일 경우에만 관찰된다.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어간의 예가 많지 않은 까닭도 있으나 경구개음소로 끝나는 /잊-/, /늦-/의 활용형에서는 전설고모음소화가 적용된 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56) 동사 /접-/과 어미 /-어서/가 통합되면 [저버서]로 실현되지, [저부서]로 실현되지 않는다.

(17)①의 첫번째와 두번째 예는 어간의 모음소가 /이/일 경우에 전설고모음소화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번째 예는 /ㅅ/에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소가 /오/인데 이 경우에는 전설고모음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17)①의 예를 통해서만 보면 [이신다]에서 어미의 모음소가 어간의 모음에 동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음소를 개재하고 모음의 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곡성 지역어의 음운현상에서 보편적인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17)②의 예에서는 어간 모음소가 /어/인데도 전설고모음소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ㅅ/과 /ㅆ/ 뒤에서 어미의 모음소 /으/는 /이/로 전설모음소화를 겪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전설고모음소화
◆ 전설고모음소화는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 뒤에 있는 음소 /으/가 /이/로 교체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

④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는 어미초의 /아/나 /어/가 그 앞 어간말의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이다. 곡성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모음소가 /애/나 /에/일 때만 이 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창녕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모음소가 /이/일 때에도 적용된다.

(18ㄱ) 곡성

① /애/ 말음 어간

/깨: | 어서/ → [깨:서]

/달개 | 어서/ → [달개서]

② /에/ 말음 어간

/데: | 어서/ → [데:서]

(18ㄴ) 창녕

① /애/ 말음 어간

/깨 | 어서/ → [깨애서]

/포개 | 어서/ → [포개서]

② /이/ 말음 어간

/기] 어서/ → [기이서]

/댕기] 어서/ → [댕기서]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규칙의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으나 이음절 이상의 어간의 경우 완전순행동화된 어미 모음소가 탈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음장 지역에 속하는 곡성 지역어에서는 이음절 이하에서 음장이 변별적이지 않으므로 장음이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8ㄴ)에서 보듯이 창녕 지역어에서는 일음절 어간의 경우 완전순행동화된 어미의 모음소가 발음되고 있으나 이음절 어간의 경우 셋째음절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미모음소는 실현되지 않는다. 동일모음소가 탈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

◆ 어미초의 /아/나 /어/가 그 앞 어간말의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환경에 차이가 있음.

- 곡성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모음소가 /애/나 /에/일 때만 이 규칙이 적용됨
- 창녕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모음소가 /에/일 때나 /이/일 때에 적용된다.

4.1.2.3. 단(短)모음소화와 고조소화

곡성 지역어의 장•단모음소와 창녕 지역어의 성조형을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창녕 지역어의 성조 규칙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음운 현상을 관찰해 보면 모음소의 장단과 성조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ㄱ) 곡성 지역어의 단모음소화(短母音素化) 현상

줄:고, 줄어서, 줄:먼

쉬:고, 쉬어서, 쉬:먼

(19ㄴ) 창녕 지역어의 성조 변동 현상
줄고(LH), 줄어서(HLL), 줄먼(LH)
시고(LH), 시이서(HLL), 시먼(LH)

곡성 지역어의 어간 /줄-/(短縮)과 /쉬:-/(休)의 활용과 창녕 지역어의 어간 /줄-/(短縮)과 /시-/(休)의 활용형을 비교해 보면 어간의 장모음소와 저조소가 대응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형에서는 장모음소와 저조소가 그대로 유지되어 [줄:고]와 [줄고(LH)]로 실현된다. 그러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형에서는 장모음소가 단모음소화 되고, 저조소는 고조소로 변동된다.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형에서 장모음소가 유지되고 성조에서도 저조소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57]

단(短)모음소화
◆ 어간말의 장모음소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될 때 단모음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

고조소화
◆ 어간말의 저조소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될 때 고조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 ◆ 창녕 지역어에만 존재

4.2. 탈락

4.2.1. 자음소탈락

4.2.1.1. 성문음소탈락

성문음소 탈락이란 유성음소 사이에서 어간말의 성문음소 /ㅎ,ㆆ/이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57) 저조와 장모음소와 관련된 음운 현상 외에 장단과 고저에서 또 다른 대응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ㄱ) 곡성

① /ㅎ/ 탈락　　/옇ㅣ어서/ → [여어서]
　　　　　　　/좋ㅣ아서/ → [조아서]

② /ㆆ/ 탈락　　/듫ㅣ어서/ → [드러서]

(1ㄴ) 창녕

① /ㅎ/ 탈락　　/놓ㅣ아서/ → [노아서]
　　　　　　　/옇ㅣ어서/ → [여어서]

② /ㆆ/ 탈락　　/푸ㆆㅣ어서/ → [푸어서]

(1)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문음소 탈락은 곡성과 창녕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음운과정이다.

성문음소 탈락
◆ 유성음소 사이에서 어간말의 성문음소 /ㅎ,ㆆ/이 탈락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

4.2.1.2. 자음소군단순화

자음소군단순화란 음절말과 음절초에서 하나의 자음소만 음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에, 자음소군에서 자음소가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는 물론 자음소군을 가지며,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도 자음소군이 발생한다. 또한 /ㄹ/로 끝나는 어간과 /으/로 시작하는 폐음절 어미가 통합하여 어미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에도 자음소군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자음소군을 이루는 자음소 중에서 하나가 탈락하게 되는데 어떤 자음소가 탈락하느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 보자.

곡성 지역어에는 활용 어간말에 /ㄻ/, /ㄺ/, /ㅄ/, /ㅀ/의 네 가지 자음소군이 존재한다. 이들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ㅀ/의 경우에는 /ㅎ/가 뒷 자음소와 축약되어 유기음소화나 경음소화를 일으키므로 자음소군단순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을 살펴 본다.

(2ㄱ) 곡성

① /Xㄻ/류: [곰뜨라, 골마서, 골문다, 곰꼬] (곪-, 膿)
곰-뜨라, 곪-아서, 곪-운다, 곰-꼬

② /Xㄼ/류: [봅뜨라, 볼바서, 볼분다, 봅꼬] (볿-, 澀)
봅-뜨라, 볿-아서, 볿-운다, 봅-꼬

③ /Xㄺ/류: [국뜨라, 굴거서, 굴근, 국꼬] (굵-, 太)
국-뜨라, 굵-어서, 굵-은, 국-꼬

④ /Xㅄ/류: [업뜨라, 업써서, 업따, 업꼬] (없-, 無)
업-뜨라, 업ㅆ-어서, 업-따, 업-꼬

어미 /-고/와 /-드라/와의 통합형을 살펴보면 /ㄹX/ 자음소군에서는 X가 /ㄱ/과 /ㅂ/일 경우에는 /ㄹ/이 탈락되며, /ㅄ/ 자음소군에서는 /ㅆ/이 탈락됨을 알 수 있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활용 어간말에 총 8개의 자음소군 유형이 있는데, 이 중 /ㅎ/로 끝나는 것을 제외한 5가지의 활용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ㄴ) 창녕

① /Xㄵ/류: [안떠라, 안잗따, 안징께네, 앙꼬, 안내] (앉-, 坐)
안-뜨라, 앉-앋따, 앉-잉께네, 앙-꼬, 안-내

② /Xㄻ/류: [쌈떠라, 쌀맏따, 쌀뭉께, 쌍꼬, 쌈내] (쌂-, 烹)
쌈-떠라, 쌂-앋따, 쌂-웅께, 쌍-꼬, 쌈-내

③ /Xㄼ/류: [발떠라, 발받따, 발붕께, 발꼬, 발래] (밟-, 踏)
발-떠라, 밟-앋따, 밟-웅께, 발-꼬, 발-래

④ /Xㄺ/류: [발떠라, 발갇따, 발경께, 발꼬, 발래] (밝-, 明)
발-떠라, 밝-앋따, 밝-엉게, 발-꼬, 발-래

⑤ /Xㅄ/류: [업떠라, 업섣따, 업성께, 억꼬, 엄내] (없-, 無)
업-떠라, 없-얻따, 없-엉께, 억-꼬, 엄-내

어미 /-고/와 /-더라/와의 통합형을 살펴보면 /ㄹX/ 자음소군에서는 /ㄻ/을 제외하면 항상 /ㄹ/이외의 자음소가 탈락되며, /ㅄ/ 자음소군에서는 /ㅅ/이 탈락됨을 알 수 있다. /ㄵ/ 자음소군에서는 /ㅈ/이 탈락한다. 창녕 지역어에는 곡용 어간에도 자음소군이 있는데 아래 두 가지 유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ㅅ/이 탈락한다.

(2ㄷ) 창녕-곡용

① /Xㅄ/류: 값(價格)

[갑시, 갑세, 갑서로, 갑또, 감만]

② /Xㄳ/류: 넋(魂)

[넉시, 넉세, 넉서로, 넉또, 넝만]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자음소군단순화 과정에서 /ㄹX/ 자음소군의 탈락 양상이 서로 반대인데, /ㄻ/의 경우에는 두 지역어에서 같은 활용형을 보이나 그외의 경우에는 곡성 지역어에서는 /ㄹ/을 탈락 시키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ㄹ/를 유지 시키는 결과를 보이며, 이는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Xㅅ/류 자음소군의 경우에는 /ㅅ/이 탈락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자음소군단순화

◆ 음절말과 음절초에서 하나의 자음소만 음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에, 자음소군에서 자음소가 탈락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규칙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

- 활용 어간말에 /ㄹX(ㄺ, ㄼ)/ 자음소군이 있는 경우
  곡성 지역어에서는 항상 /ㄹ/이 탈락되나 창녕 지역어에서는 항상 /X/가 탈락됨
- 활용 어간말에 /ㅄ(ㅄ)/ 자음소군이 있는 경우
  두 지역에서 모두 /ㅂ/이 남음
- 창녕 지역어에서 곡용 어간말에 /Xㅅ/ 자음소군이 있는 경우
  /ㅅ/가 탈락됨

4.2.2. 유음소탈락

유음소탈락이란 기저형의 어간말음 /ㄹ/가 음성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유음소 탈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으로 어간말의 /ㄹ/이 어미초의 /ㄴ,ㅅ,ㄷ/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고 하나는 음절구조제약에 의한 것으로 자음소군단순화와 관련된 것이다. 후자의 탈락 현상은 자음소군단순화에서 논의되므로 여기에서는 전자의 탈락만을 논의한다.

(3ㄱ) 곡성

① /알 ǀ 니꺄/ → [아니까]

② /알 ǀ 은다/ → [안다]

(3ㄴ) 창녕

① /알 ǀ 나/ → [아나]

② /알 ǀ 엉깨/ → [앙깨]

위의 예에서 보듯이 유음소 탈락은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모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유음소 탈락

- 어간말의 /ㄹ/이 어미초의 /ㄴ,ㅅ,ㄷ/ 앞에서 탈락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

4.2.3. 활음소탈락

활음소탈락이란 활음소화에 의해 형성된 활음소 /y/나 /w/가 일정한 자음소 뒤에서 다시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활음소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중모음소에는 /와, 워, 여/가 있다. 이 이중모음소는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고 활음소가 탈락하기도 하고 단모음소로 축약되기도 한다. 곡성 지역어에

서는 /w/활음소가 탈락되는 현상이 없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w/활음소가 /오-/의 활용형 [와]에서만 실현되고 이 때는 탈락되지 않으므로 두 지역어에서 /w/활음소 탈락은 음운규칙으로 설정되지 않는다.

● /y/ 탈락

/y/탈락은 /이/가 활음소화하여 /y/로 바뀜으로써 형성된 이중모음소 /여/에서 활음소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곡성 지역어에서 이중모음소 /여/는 경구개음소가 선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로 축약된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이-/어간을 제외하고는 어간이 /y/로 활음소화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y/탈락의 환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5) 곡성 지역어의 경구개음소 뒤에서 /y/ 탈락

/찌 | 어서/ → [쩌서]

/문치 | 어서/ → [문처서]

/자빠지 | 어서/ → [자빠저서]

/y/활음소 탈락
◆ 활음소화에 의해 생성된 활음소 /y/가 경구개음소 뒤에서 탈락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

4.2.4. 모음소탈락

4.2.4.1. 어간말 /아/나 /어/ 탈락

어간말 /아/나 /어/ 탈락이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 위치의 /아/나 /어/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활용에서만 나타난다. /아/로 끝나는 어간은 우선 어간말 모음소 /아/ 뒤에서 어미 /아X/가 선택되고 다시 동일모음소 탈락에 의해 어간말 /아/가 탈락된다. /어/로 끝나는 어간도 어간말 모음소 /어/ 뒤에서 어미 /어X/가 선택되고 어미 /어/가 탈락된다.58)

58) 이 경우 창녕 지역어의 /어(ㅓ)/는 표준어의 /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니께/ 등의 /어/

(6)

① /아/탈락:

/가 | 아도/ → [가도] (곡성, 창녕)

/치아 | 아도/ → [치아도] (除去) (창녕)

/널짜아 | 아도/ → [널짜아도](使落) (창녕)

② /어/탈락:

/서 | 어도/ → [서도] (창녕)

곡성 지역어에는 /어/로 끝나는 어간이 없으므로 어간말 /어/탈락은 확인할 수 없으나 어간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본다. 어간말 /아/나 /어/탈락 현상은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절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어간말 /아/나 /어/ 탈락
◆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아/나 /어/가 탈락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

4.2.4.2. 어간말 /으(어1)/ 탈락

어간말 /으/탈락은 활용에서 어간말 음절 위치에 있는 /으/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어간말의 /으/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활용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곡성 지역어에서 이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한국어 일반적인 규칙으로 보아 문제가 없으나 창녕 지역어의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창녕 지역어에서는 모음소 /으/와 /어/의 구분이 없으므로 표면형으로 실현되는 어미는 [ɜ(어/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위에서 살핀 어간말 /어/ 탈락의 경우와 여기서 살필 어간말 /으/ 탈락의 경우 탈락되는 음소는 /어/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칙의

(7) 어간말 /으/ 탈락

/크 | 어도/ → [커도] (곡성)

/커 | 어도/ → [커도] (창녕)

와 구분된다. 굳이 표시 하자면 /어2/로 할 수 있으나 /어1/과 헷갈리지 않는 경우에는 서술에서 그냥 /어/로 표시한다.

어간말 /으(어1)/ 탈락

◆ 활용 어간말 음절의 /으(어1)/가 /어(어2)/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어간말의 /으(어1)/가 탈락하는 현상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

4.2.4.3. 어미초 /으(어1)/ 탈락

어미초 /으(어1)/탈락이란 [+모음성] 자질을 가진 음소, 즉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어간과 /으(어1)/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경우에 어미의 /으(어1)/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곡용와 활용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활용의 경우 어미가 /으(어1)/로 시작하면 모두 적용되나 곡용의 경우 개음절 어미 /으(어1)X/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을(얼)'과 같은 폐음절 어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현상도 곡성과 창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8ㄱ) 곡성

① 모음소어간 /모더ǀ은다/ → [모던다]
/모더ǀ으믄/ → [모더믄]

② 유음소어간 /알ǀ은다/ → [안다]
/알ǀ으믄/ → [알믄]

(8ㄴ) 창녕

① 모음소어간 /보ǀ엉깨/ → [봉깨]
/보ǀ어마/ → [보마]

② 유음소어간 /갈ǀ엉깨/ → [강깨]
/갈ǀ어마/ → [갈마]

(9ㄱ) 곡성

① 모음소어간 /나무ǀ으로/ → [나무로]

② 유음소어간 /쌀ǀ으로/ → [쌀로]
/쌀ǀ을/ → [싸를] (탈락되지 않음)

(9ㄴ) 창녕

① 모음소어간 /나무 | 어로/ → [나무로]

② 유음소어간 /술 | 어로/ → [술로]

/술 | 얼/ → [수럴] (탈락되지 않음)

어미초 /으(어1)/ 탈락
◆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어간과 /으(어1)/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경우에 어미의 /으(어1)/가 탈락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

4.3. 삽입

한국어의 음운과정 중에서 삽입은 그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모음소가 삽입되는 경우는 없고 자음소 중에서는 '먹은 약/이 [머근냑]으로 발음될 때와 같은 경우 /ㄴ/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고는 어간과 어미가 통합되는 환경에서의 음운과정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ㄴ/ 삽입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활음소의 삽입만을 다룬다.

◆ 활음소 /y/ 삽입

활음소 /y/의 삽입을 규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곡성 지역어에서 다음과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1) 곡성 지역어 /위/, /외/ 말음 어간의 /y/활음소 삽입

① /뀌 | 어서/ → [뀌여서] /쇠 | 아서/ → [쒸야서]

/비 | 어서/ → [비여서] /기 | 어서/ → [기여서]

② /찌 | 어서/ → [쩌서] /치 | 어서/ → [처서]

③ /찧 | 어서/ → [찌여서~찌어서]

곡성 지역어의 어간말음 /위/와 /외/가 어미의 모음소 /어/나 /아/와 통합될 때 /y/삽입이 적용된다. 이는 예외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외에 활음소 삽입이 기대되는 환경, 즉 /이/ 말음 어간의 경우에는 경구개

음소 이외의 자음소가 선행할 경우에만 활음삽입이 일어난다. 다른 경우, /이/ 말음 어간은 어미와 통합될 때 활음소화되거나 활음소화 후 모음소가 축약되어 음절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②의 예처럼 초성에 경구개음소를 가진 일음절 어간이 /이/로 끝날 때는 활음소화 이후 활음소탈락이 적용된다. ③처럼 어간말의 /ㅎ/가 탈락된 후 /y/삽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y/의 삽입이 관찰되지 않는다. /위/나 /외/로 끝나는 어간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 어미 /어/와 통합되면 어미를 동화시키거나 모음소축약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곡용형에서도 활음소 /y/가 삽입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역어에서는 규칙으로 삼지 않는다. 곡용의 경우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에 처격 어미 '에'가 통합될 경우 활음소가 첨가되어 [예]로 실현될 수 있으나 곡성 지역어에서 그러한 예를 찾기 힘들며, 창녕 지역어서는 이음절 이하에서 [예]는 실현되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59)]

또한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호격 어미 '-아'가 통합될 때 활음소가 첨가되어 [-야]로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야]가 실현되는데, 본고는 이때 활음이 첨가되었다고 보지 않고 어미의 기저형을 복합 기저형으로 잡아 /야/가 선택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활음소 /y/삽입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활음소 /y/ 삽입
◆ 어간말음 /위/, /외/, /이/가 어미의 모음소 /어/나 /아/와 통합될 때 활음소 /y/이 삽입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

4.4. 축약

축약이란 두 음소가 통합하여 하나의 음소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음소의 축약은 자음소축약과 모음소축약으로 나뉜다. 자음소의 축약에는 유기음소화와 경음소화가 있고, 모음소의 축약으로는 이중모음의 단모음소화가

59) 실현된다고 하여도 음성적인 특징을 보인는 것일 뿐, 음소적인 의미는 없다.

있다. 자음소 축약부터 차례로 논의하기로 한다.

4.4.1. 자음소축약

4.4.1.1. 유기음소화

유기음소화는 /ㅎ/이 평음소 /ㅂ,ㄷ,ㅈ,ㄱ/과 통합하여 유기음 /ㅍ,ㅌ,ㅊ,ㅋ/으로 축약되는 현상을 말한다. 유기음소화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는 용언에서 어간말의 /ㅎ/과 어미초의 평음소 /ㅂ,ㄷ,ㅈ,ㄱ/이 통합할 때와 곡용에서 평파열음소와 곡용어미 /-하고/의 /ㅎ/이 통합할 때이다. 전자는 순행적 유기음소화이고 후자는 역행적 유기음소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유기음소화의 환경이 없는데, 곡용의 경우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없기 때문이며, 활용의 경우에는 /ㅎ/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용언 어간말의 /ㅎ/이 어미초의 평음소와 통합할 때의 예를 보자.

(1ㄱ) 곡성

① /좋ㅣ고/ → [조코]

/좋ㅣ드라/ → [조트라]

② /귀찮ㅣ고/ → [귀찬코]

/귀찮ㅣ드라/ → [귀찬트라]

(1ㄴ) 창녕

① /좋ㅣ고/ → [조코]

/좋ㅣ더라/ → [조터라]

② /옳ㅣ고/ → [올코]

/옳ㅣ더라/ → [올터라]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활용의 유기음화가 관찰된다. /ㅎ/으로 끝난 어간은 물론이고 /Xㅎ/형의 자음소군으로 끝난 어간에서도 유기음화가 적용되는데, /ㅎ/이 포함된 자음소군은 자음소군탈락을 겪기 전에 먼저 후행자음소를 유기음소화 시킨다. 다음으로 곡용에서의 유기음소화를 살펴본다.

(2ㄱ) 곡성

• /밥 | 허고/ → [바버고]　　　/국 | 허고/ → [구거고]

(2ㄴ) 창녕

• /밥 | 하고/ → [바파고]　　　/국 | 하고/ → [구카고]

곡용의 경우에는 곡성과 창녕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곡성 지역어에서는 어미초의 /ㅎ/과 어간말의 평음소가 만나도 유기음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성문음소 /ㅎ/이 탈락한 것으로 본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활용에서와 마찬가지로 /ㅎ/과 평음소가 만났을 때 유기음소화가 적용된다.

유기음소화

◆ /ㅎ/이 평음소 /ㅂ,ㄷ,ㅈ,ㄱ/과 통합하여 유기음 /ㅍ,ㅌ,ㅊ,ㅋ/으로 축약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내용에 차이가 있음.

- 곡성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축약(ㅎ+ㅂ→ㅍ)만이 적용된다.
- 창녕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축약(ㅎ+ㅂ→ㅍ)과 역행적 축약(ㅂ+ㅎ→ㅍ)이 모두 적용된다.

4.4.1.2. 경음소화

자음소 축약에 속하는 경음소화란 /ㆆ/로 끝나는 어간이 경음소를 대립짝으로 가지는 /ㅂ,ㄷ,ㅅ,ㅈ,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경음소로 축약되는 것을 말한다.[60] 곡성 지역어에는 /ㆆ/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창녕 지역어에만 해당되는 음운 규칙이다. 다음에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60) 축약에 속하는 '경음소화'와 교체에 속하는 '경음소화'가 구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경음소가 아닌 음소가 경음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교체에 속하는 경음소화는 음소의 수가 동일하나 축약에 속하는 경음소화는 음소의 수가 하나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운 규칙으로서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상이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음소화도 축약의 일종이므로 경음소화와 더불어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유기음소축약, 경음소축약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현상에 대한 정밀한 용어라고 생각되나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3) 창녕 지역어의 /ㆆ/에 의한 경음소화

① /풓ㅣ고/ → [푸꼬] (피우-)
/좋ㅣ고/ → [조꼬] (줍-)

② /풓ㅣ더라/ → [푸떠라]
/좋ㅣ더라/ → [조떠라]

어간말의 /ㆆ/와 어미초의 /ㄱ/와 /ㄷ/가 축약되어 /ㄲ/와 /ㄸ/로 실현되고 있다. 이를 평파열음소화 이후 경음소화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ㆆ/을 음소로 설정한 이상 같은 성문음소인 /ㅎ/은 축약으로 처리하고 /ㆆ/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처리이다.

축약에 속하는 경음소화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ㅎ/과 평마찰음소 /ㅅ/이 통합될 때의 현상도 경음소화로 설명하기로 한다. 앞서 평파열음소화를 논의할 때 설명한 것처럼 /ㅎ/이 가진 자질 [+지속성, +긴장성, +유기성]에서 [+긴장성, +유기성]이 평음소에 더해지면 유기음소가 되나 /ㅅ/의 경우 유기음소의 짝이 없으므로 /ㅎ/와 축약되어도 유기음소로 실현될 수가 없다. 대신 /ㅅ/에 /ㅎ/의 자질 중에서 [+지속성, +긴장성]이 더해지면 /ㅆ/의 자질과 같아지므로 /ㅆ/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61]

이렇게 보면 축약에 속하는 경음소화는 /ㆆ/에 의한 것과 /ㅎ/에 의한 것으로 나뉘는데, 창녕지역어에서는 /ㆆ/에 의한 경음소화가 존재하며, 곡성지역어에서는 /ㅎ/에 의한 경음소화가 존재한다.

---

61) 이런 입장을 취하면 두 가지 다른 음소에 의한 축약이 결과가 동일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우선은 창녕 지역어에서는 /ㅅ/과 /ㅆ/가 이음절 이하에서 변별적이지 않으므로 /ㅅ/에 경음소화가 적용되어도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된다. 곡성 지역어에서는 /ㆆ/가 음소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ㆆ/에 의한 경음소로의 축약은 없고 /ㅎ/에 의한 경음소로의 축약만이 관찰되어 축약의 결과가 같아진다는 문제점이 한 지역어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음소화

◆ 성문음소(ㅎ,ㆆ)로 끝나는 어간이 경음소를 대립짝으로 가지는 /ㅂ, ㄷ,ㅅ,ㅈ,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경음소로 축약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내용에 차이가 있음.

- 곡성 지역어에서는 /ㅎ/에 의한 경음소화가 존재
- 창녕 지역어에서는 /ㆆ/에 의한 경음소화가 존재

4.4.2. 모음소축약

◆ **/여/의 /에/화**

모음소축약은 두 개의 모음소가 통합하여 기존의 어느 한 모음소와 같게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우리의 논의 대상에서 발견되는 모음소축약은 어간말 /이/가 어미초 /어/와 통합할 때 만들어진 이중모음소 /여/가 단모음소 /에/로 축약되는 현상이다. 이 축약을 '/여/의 /에/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음운과정은 곡성 지역어에서만 관찰된다.

(4) /여/의 /에/화

① 일음절 어간 /이 | 어/ → [이어] /히 | 어/ → [히어]
/비 | 어/ → [비어] /기 | 어/ → [기어]
/지 | 어/ → [지어] /찌 | 어/ → [찌어]
/시 | 어/ → [시어] /피 | 어/ → [피어~펴]

② 이음절 어간 /갈기 | 어/ → [갈게]
/뉘비 | 어/ → [뉘베]
/느리 | 어/ → [느레]
/따시 | 어/ → [따세]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음소의 축약은 음절수의 제약을 받는다. 일음절 어간의 경우 대부분의 예에서 모음소 축약이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활음소화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의 경우에만 활음소화가 적용되어 [펴]로 실현되는 경우가 관찰되었지만 이 역시 /에/

로의 축약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이음절 어간에서는 예외없이 /에/로의 축약이 발견되는데, 어간 말음절의 초성 모음소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모음소의 축약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모음소의 축약에는 /워/의 /오/화도 있다. 이는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여 활음소화된 /w/가 포함된 [워]가 [오]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특수한 어간형 '주-, 누-, 두-' 등과 어미의 통합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된 자료 안에서 곡성 지역어에 경우에는 실현형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조가지고(줘 가지고)] 와 [노옫따(누었다)]의 경우에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어간 /주-/와 어미 /-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주얻따], [주보마(줘보면)], [조가지고] 등 일정하지 않은 활용을 보이며, /우/말음 어간 중에서 /누-/만이 [노X] 형태로 축약되기 때문에 따로 음운 규칙으로 삼지 않고 예외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62)

/여/의 /에/화
◆ 어간말 /이/가 어미초 /어/와 통합할 때 만들어진 이중모음소 /여/가 단모음소 /에/로 축약되는 음운과정 ◆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

4.5. 요약

4장에서는 3장에서 정리한 어간형에 기초하여 어간과 어미가 통합될 때 적용되는 음운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체, 탈락, 삽입, 축약으로 나누어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두 지역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음운과정은 한국어의 기본적인 음운과정이라 할 것이다. 차이가 있는 음운과정이 두 지역어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전라도 방언과 경상

62) 물론 /오/로의 축약이 생산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할 경우에는 관찰되는 예가 한 가지일지라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나 본고에서는 예외로 처리하고 넘어간다.

도 방언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음운과정을 논의할 때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로, 어떠한 음운 규칙이 해당 지역어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비교한다. 즉, 음운 규칙 자체의 존재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음운 규칙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고, 특정 지역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로, 음운 규칙의 적용 환경을 비교한다. 즉, 여러 가지 음운 규칙이 있을 때 특정 환경에서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가를 비교하여 논의할 수 있다. 규칙의 적용 범위와 순서 등이 비교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음운과정의 유형에 따라 교체, 탈락, 삽입, 축약으로 나누어 두 지역어에 적용되는 음운과정의 유형을 비교한다. 공통적인 음운 규칙은 무엇이며 한 지역에서만 관찰 되는 음운 규칙은 무엇인지 살핀다. 이후 어간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지 비교하여 두 지역어의 특징을 보이도록 한다.

1 교체

(1) 자음소의 교체와 관련된 음운과정에서는 두 지역어의 차이가 없다.

평파열음소화는 어간말의 자음소가 그 위치에서나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 /ㅂ/, /ㄱ/, /ㄷ/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으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벗 | 드라/ → [벋뜨라]
- 곡용: /꽃 | 도/ → [꼳또]

<창녕>

- 활용: /벗 | 더라/ →[벋떠라]
- 곡용: /옷 | 도/ → [옫또]

비음소화는 그 자체나 일정한 음운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간말 자음소 /ㅂ/, /ㄷ/, /ㄱ/이 어미초의 비음소 /ㅁ,ㄴ/ 앞에서 각각 동일 조음위치의 비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으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뽑 | 네/ → [뽐네]
- 곡용: /입 | 만/ → [임만]

<창녕>

- 활용: /꼽 | 내/ → [꼼내]
- 곡용: /입 | 만/ → [임만]

연구개음소화 그 자체나 일정한 음운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간말 자음소가 어미초의 연구개음소에 동화되어 연구개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으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있 | 고/ → [익꼬]　　/잡 | 고/ → [작꼬]
- 곡용: /꽃 | 까지/ → [꼭까지]

<창녕>

- 활용: /잇 | 고/ → [익꼬]　　/잡 | 고/ → [작꼬]
- 곡용: /꽂 | 까지/ → [꼭까지]

양순음소화는 그 자체나 일정한 음운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간말 자음소(치경음소나 경구개음소)가 어미초의 양순음소에 동화되어 양순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으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곡용: /돈 | 만/ → [돔만]　　/옷 | 보다/ → [옵뽀다]

<창녕>

- 곡용: /돈 | 만/ → [돔만]　　/옷 | 보다/ → [옵뽀다]

유음소화는 /ㄹC/로 끝나는 어간에서 자음소군단순화에 의해 'C'가 탈락된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초의 /ㄴ/이 /ㄹ/로 되는 음운과정으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ㅀ자음소군 어간: /끓 | 네/ → [끌레]

<창녕>

- ㅀ 자음소군 어간: /싫ㅣ내/ → [실래]
- ㄼ 자음소군 어간: /밟ㅣ내/ → [발래]
- ㄺ 자음소군 어간: /밝ㅣ내/ → [발래]

경음소화는 일정한 환경(평파열음소 뒤, 비음소 뒤, 자음소군단순화 이후 /ㄹ/ 뒤)에서 어미 초의 평음소가 경음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으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뽑ㅣ고/ → [뽁꼬]
  /담ㅣ고/ → [담꼬]
- 곡용: /입ㅣ도/ → [입또]

<창녕>

- 활용: /꼽ㅣ고/ → [꼭꼬]
  /담ㅣ고/ → [담꼬]
  /굵ㅣ고/ → [굴꼬]
- 곡용: /입ㅣ도/ → [입또]

(2) 자음소의 교체와 관련된 음운과정은 두 지역어에서 차이가 있는 과정과 차이가 없는 과정으로 나뉜다. 먼저 차이가 없는 음운과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원순모음소화는 양순음소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으(어1)/와 만나면 양순음소의 자질에 동화되어 어미모음소가 /우/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으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남ㅣ은다/ → [나문다]

<창녕>

- 활용: /남ㅣ엉깨/ → [나뭉깨]

어미초 /으(어1)/의 **완전순행동화는** 어간말의 /ㅎ/가 탈락된 뒤 어미초의 /으/가 어간말의 모음소로 동화되는 음운과정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

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낳 | 으먼/ → [나아먼]

<창녕>

• 활용: /낳 | 어먼/ → [나아먼]

(3) 모음소와 관련된 음운과정 중 두 지역어에서 차이가 있는 음운과정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는 어미초의 /아/나 /어/가 그 앞 어간말의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으로 두 지역어에 모두 적용되는 음운규칙이나 곡성 지역어에서는 어간말음이 /애, 에/일 때 적용되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애/말음 어간과 /이/말음 어간에 적용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깨: | 어서/ → [깨:서]
  /데: | 어서/ → [데:서]

<창녕>

• 활용: /깨 | 어서/ → [깨애서]
  /기 | 어서/ → [기이서]

/w/활음소화는 어간말 모음소 /우, 오/가 어미초 /아/나 /어/와 통합하여 /w/로 교체되는 음음과정으로 활용에서만 관찰된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창녕 지역어에서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일음절 어간 /오-/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곡성>

• 활용: /고 | 아서/ → [과서]
  /꾸 | 어서/ → [꿔서]
  /매우 | 어서/ → [매워서]

<창녕>

• 활용: /오 | 아서/ → [와서]

/y/활음소화는 어간말 모음소 /이/가 어미초 /아/나 /어/와 통합하여 /y/로 교체되는 음음과정으로 활용에서만 관찰된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환경에 차이가 있다. 곡성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음절 초성에 경구개음소가 있는 경우나, 이음절 이상의 어간말 음절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음절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일음음절 어간(이-)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곡성>

• 활용: /지ㅣ어/ → [저]
/씨치ㅣ어/ → [씨처]
/느리ㅣ어/ → [느레]

<창녕>

• 활용: /이ㅣ어/ → [여]

전설고모음소화는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 뒤에 있는 음소 /으/가 /이/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한다.

<곡성>

• 활용: /잇ㅣ은다/ → [이신다]
/업ㅆㅣ으니께/ → [업씨니께]

(4) 장모음소와 성조소와 관련하여 두 지역어의 음운과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두 음운과정이 서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단(短)모음소화는 어간말의 장모음소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될 때 단모음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한다.

<곡성>

• 활용: /줄:ㅣ어/ → [줄어]
줄:고, 줄어서, 줄:먼

고조소화는 어간말의 저조소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될 때 고조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으로 창녕 지역어에만 존재한다.

<창녕>

• 활용: /줄(L)ㅣ어(L)/ → [줄어](HL)

줄고(LH), 줄어서(HLL), 줄먼(LH)

2 탈락

(1) 탈락과 관련된 음운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탈락이라는 현상 자체가 형태소의 일부인 음소를 삭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격한 음운규칙에 의해 적용되고 있고 이는 한국어의 전반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인 탈락현상은 다음의 네 가지 음운 현상에서 관찰된다.

성문음소 탈락은 유성음소 사이에서 어간말의 성문음소 /ㅎ,ㆆ/이 탈락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옇 | 어서/ → [여어서]

<창녕>

• 활용: /옇 | 어서/ → [여어서]
/푸ㆆ | 어서/ → [푸어서]

유음소 탈락은 어간말의 /ㄹ/이 어미초의 /ㄴ,ㅅ,ㄷ/ 앞에서 탈락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알 | 니까/ → [아니까]

<창녕>

• 활용: /알 | 나/ → [아나]

어간말 /으(어1)/ 탈락은 활용 어간말 음절의 /으(어1)/가 /어(어2)/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어간말의 /으(어1)/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크 | 어도/ → [커도]

<창녕>

• 활용: /커 | 어도/ → [커도]

어미초 /으(어1)/ 탈락은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어간과 /으(어1)/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경우에 어미의 /으(어1)/가 탈락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모더 ǀ 으믄/ → [모더믄]
/알 ǀ 으믄/ → [알믄]

• 곡용: /나무 ǀ 으로/ → [나무로]
/쌀 ǀ 으로/ → [쌀로]

<창녕>

• 활용: /보 ǀ 어마/ → [보마]
/알 ǀ 으마/ → [알마]

• 곡용: /나무 ǀ 어로/ → [나무로]
/쌀 ǀ 어로/ → [쌀로]

(2) 두 지역어의 차이를 나타내는 탈락은 자음소군단순화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도 두 자음소 중 하나는 남아 있기 때문에 형태소의 모습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ㄹX/형 어간 말음의 경우 곡성 지역어서는 /ㄹ/이 탈락하고 창녕 지역어에서는 /X/가 탈락한다.

자음소군단순화는 음절말과 음절초에서 하나의 자음소만 음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에, 자음소군에서 자음소가 탈락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규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 활용 어간말에 /ㄹX(ㄺ, ㄼ)/ 자음소군이 있는 경우 곡성에서는 /ㄹ/이 탈락하고 창녕에서는 /X/가 탈락한다.

<곡성>

• 활용: /볿 ǀ 드라/ → [봅뜨라]
/밝 ǀ 드라/ → [박뜨라]

<창녕>

• 활용: /밟 ǀ 더라/ → [발떠라]
/밝 ǀ 더라/ → [발뜨라]

(3) 활음소의 탈락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각 지역어에서 활음소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의 제약과 관계가 있다. /y/활음소의 탈락은 곡성 지역어에서 관찰되는데, 경구개음소가 초성에 오는 경우 활음소화된 /y/가 탈락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창녕 지역어에서는 이러한 환경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y/활음소 탈락은 활음소화에 의해 생성된 활음소 /y/가 경구개음소 뒤에서 탈락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찌ㅣ어서/ → [쩌서]
  /문치ㅣ어서/ → [문처서]

③ 삽입

◆ 본 논의에서 관찰되는 삽입 규칙은 /y/활음소 삽입이 유일한데, 이는 곡성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삽입의 환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활음소 /y/ 삽입은 어간말음 /위/, /외/, /이/가 어미의 모음소 /어/나 /아/와 통합될 때 활음소 /y/이 삽입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뀌ㅣ어서/ → [뀌여서]
  /쇠ㅣ아서/ → [뀌야서]
  /비ㅣ어서/ → [비여서]

④ 축약

(1) 자음소와 관련된 축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곡성과 창녕 지역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적용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유기음소화는 /ㅎ/이 평음소 /ㅂ,ㄷ,ㅈ,ㄱ/과 통합하여 유기음 /ㅍ,ㅌ,ㅊ,

ㅋ/으로 축약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내용에 차이가 있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축약(ㅎ+ㅂ→ㅍ)과 역행적 축약(ㅂ+ㅎ→ㅍ)가 모두 적용되는데 비해 곡성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축약만이 적용된다. 역행적 축약의 환경이 되는 경우에는 /ㅎ/이 탈락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좋 ǀ 고/ → [조코]
- 곡용: /밥 ǀ 허고/ → [바버고]

<창녕>

- 활용: /좋 ǀ 고/ → [조코]
- 곡용: /밥 ǀ 하고/ → [바파고]

경음소화는 성문음소(ㅎ,ㆆ)로 끝나는 어간이 경음소를 대립짝으로 가지는 /ㅂ,ㄷ,ㅅ,ㅈ,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경음소로 축약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내용에 차이가 있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ㆆ/과 평자음소가 통합하여 경음소가 되는 현상이고, 곡성 지역어에서는 /ㅎ/과 /ㅅ/이 통합하여 /ㅆ/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놓 ǀ 소/ → [노쏘]

<창녕>

- 활용: /놓 ǀ 소/ → [노쏘]
  /풓 ǀ 고/ → [푸꼬]

(2) 모음의 축약은 곡성 지역어의 '/여/의 /에/화'가 유일하다. 이 규칙은 이음절 이하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곡성 지역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음운과정이라 하겠다.

/여/의 /에/화는 어간말 /이/가 어미초 /어/와 통합할 때 만들어진 이중모음소 /여/가 단모음소 /에/로 축약되는 음운과정으로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곡성>

- 활용: /갈기ㅣ어/ → [갈게]
  /뉘비ㅣ어/ → [뉘베]

4. 결론

본고에서는 전라남도 곡성 지역어와 경상남도 창녕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공시 음운론적 연구를 행하였다. 공시 음운론적 연구를 통해 음소 목록을 확정하고 기저형을 설정하고 음운과정을 연구하여 두 지역어의 공시적인 말소리의 모습을 밝히고, 그 개별 음운론적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비교·대조하여 두 지역어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논의의 내용을 장별로 정리하고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가 음운론적인 면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보이도록 한다.

2장에서는 음소 목록을 확정하였다. 두 지역어에서 음소 목록에 차이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방언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의 음소 목록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단모음소	곡성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10개
	창녕	이	에(E)				어(ǝ)		아	우	오		6개
이중 모음소	곡성	여	야	예	얘	유	요	워	와	웨	왜		10개
	창녕	여	야	예		유	요	어	와	웨		위	9개
자음소 및 유음소	곡성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창녕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곡성	ㄱ	ㄲ	ㅋ	ㅁ	ㄴ	ㅇ	ㄹ	ㅎ				19개
	창녕	ㄱ	ㄲ	ㅋ	ㅁ	ㄴ	ㅇ	ㄹ	ㅎ	ㆆ			20개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는 단모음소 목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모음소 /에/와 /애/의 구분이 없고 /어/와 /으/의 구분이 없으며 /위/, /외/ 단모음소가 존재하지 않아 총 6개의 단모음소를 가지는

데 반해 곡성 지역어는 10개의 단모음소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 국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모음소 체계를 이룬다.

이중모음소의 수는 10와 9개로 숫자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인다. 그 목록상에서는 창녕 지역어에서 /위[wi]/가 이중모음소에 속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재 이중모음소가 어떤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는 일음절 어간인지 이음절 어간인지에 따라,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목록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두 지역어의 이중모음소의 분포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자음소에 있어서는 창녕 지역어와 곡성 지역어의 숫자가 같다. /ㅆ/의 경우 창녕 지역어에서 일음절에서 음소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음절 이하에서는 /ㅅ/과 별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형태론적 논의로서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기저형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활용 어간말 모음소	곡성	이	에	애	위	외	으	x	아	우	오		9개
	창녕	이	에(E)				어(Ǝ)		아	우	오		6개
곡용 어간말 모음소	곡성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10개
	창녕	이	에(E)				어(Ǝ)		아	우	오		6개
활용 어간말 자음소	곡성	ㅂ ㅍ ㅁ	ㄷ ㅌ	ㅅ ㅆ	ㅈ ㅊ	ㄱ	ㄴ ㄹ	ㅎ	ㄻ ㄼ ㄺ	ㅀ ㅄ			18개
	창녕	ㅂ ㅍ ㅁ	ㄷ ㅌ	ㅅ	ㅈ ㅊ	ㄱ ㄲ	ㄴ ㄹ	ㅎ ㆆ	ㄻ ㄼ ㄺ	ㅀ ㅄ	ㄵ ㄶ ㅇㅎ		22개
곡용 어간말 자음소	곡성	ㅂ ㅁ	ㄴ ㅅ	ㄱ	ㅇ	ㄹ							7개
	창녕	ㅂ ㅍ ㅁ	ㄴ ㅅ ㅈ	ㄱ ㄲ ㅋ	ㅇ	ㄹ	ㅄ ㄳ						13개

각 지역어에 음소로 존재하는 모음소는 곡성지역어의 /어/를 제외하고 모두 어간말에서 관찰된다. 자음소의 경우에는 두 지역어의 차이가 확연한데, 창녕 지역어에서 어간말에 올 수 있는 자음소의 종류가 곡성 지역어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곡성 지역어에서 어간말 자음소의 유형이 적다는 것은 창녕 지역어에 비해 어간의 재구조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복합 기저형의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논의했다.

4장에서는 음운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곡성 지역어와 창녕 지역어에 존재하는 음운과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인 음운과정도 있고 차이가 있는 음운과정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적용 환경이나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 음운과정도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지역어는 한국어의 하위 방언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으나 차이점도 있다. 이 차이점이 각 지역어의 특징을 드러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table>
<tr><td rowspan="14">공통적인
음운과정</td><td rowspan="8">교체</td><td>평파열음소화</td></tr>
<tr><td>비음소화</td></tr>
<tr><td>원순모음소화</td></tr>
<tr><td>어미초 /으(어1)/의 완전순행동화</td></tr>
<tr><td>경음소화</td></tr>
<tr><td>연구개음소화</td></tr>
<tr><td>양순음소화</td></tr>
<tr><td>유음소화</td></tr>
<tr><td colspan="2"></td></tr>
<tr><td rowspan="5">탈락</td><td>성문음소 탈락</td></tr>
<tr><td>유음소 탈락</td></tr>
<tr><td>어간말 /아/, /어/탈락</td></tr>
<tr><td>어간말 /으(어1)/탈락</td></tr>
<tr><td>어미초 /으(어1)/탈락</td></tr>
</table>

차이가 있는 음운과정	교체	전설고모음소화	곡성에만 적용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	곡성: /애,에/말음 어간에 적용 창녕: /애/말음 어간과 /이/말음 어간에 적용
		/w/ 활음소화	창녕에서는 초성에 자음소가 없는 경우에 수의적으로 적용
		/y/ 활음소화	곡성에는 초성에 자음소가 있는 일음절 어간에만 적용 창녕에는 /이-/에만 적용
	탈락	자음소군단순화	곡성: /ㄹX/형의 경우 /ㄹ/이 탈락 창녕: /ㄹX/형의 경우 /X/이 탈락
		/y/활음소 탈락	곡성에만 적용
	삽입	/y/활음소 삽입	곡성에만 적용
	축약	/여/의 /에/화	곡성에만 적용
		유기음소화	곡성에는 순행적 유기음소화만 적용
		경음소화	곡성에는 /ㅎ/의 경음소화 창녕에는 /ㆆ/의 경음소화

두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대비 연구를 통해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여러 방언들이 사용되는 모습을 더욱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음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법론과 의미론적인 부분에서도 체계적인 대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운율적인 부분이나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음운론 연구도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진정한 한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여 논의를 맺는다.

참고문헌

강희숙 (1997). "장흥방언의 모음조화". 언어학 4, 1-24.

강희숙 (2000). "전설모음화의 발달과 방언 분화". 한국언어문학 44. 521-542.

강희숙 (2005).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분화". 우리말글 33, 1-32.

곽충구 (1984).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1, 1-22. 국어국문학회.

곽충구 (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20세기 러시아의 카잔에서 간행된 자료에 의한. 태학사.

곽충구 (2002). "방언연구사". 국어국문학회 50년. 국어국문학회. 423-480.

구현옥 (1994). "Glide화와 함안 지역어". 동남어문논집 4, 3-15.

국립국어연구원 (2002). 한민족 언어정보화-한국 방언검색 프로그램.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권창섭 (2009). "'ㅎ'의 음소 표시와 음운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세관 (1981).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세관 (1989). "국어 Glide화의 제약성". 제효 이용주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 한샘. 132-148.

김경아 (1990). "활용에서의 기저형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경아 (1998). "용언어간말음 'ㅎ'의 교체에 대하여". 언어 23(1). 한국언어학회.

김경아 (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김봉국 (2000). "강릉•삼척 지역어의 활음화". 한국문화 26. 한국문화연구소. 1-33.

김봉국 (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봉국 (2005). "체언 어간말 중자음의 변화 양상-동해안 방언 및 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 45. 국어학회. 17-40.

김봉국 (2008). "경남방언의 복수기저형의 유형". 방언학 8, 37-67.

김선철 (1993). "전북지역어의 '어간+자음소 어미' 음운론과 '음운삭제'의 음운론". 언어연구 7·8, 43-54.

김성규 (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25-44.

김성규 (1999). "빠른 발화음에서 음절 수 줄이기".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109-137.
김성규 (2003). "'여>예>에'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61-182.
김성규·정승철 (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세환 (2005). "청송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배 (1984). 평안방언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김영배 편 (1992).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김영송 (1963). "경남 방언". 국어 방언학. 형설출판사. 322-325.
김옥화 (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옥화 (2004). "전북 서부 지역어의 격조사".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5-118.
김완진 (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김완진 (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 11, 271-299.
김인택 (1995). "창녕지역어의 특성". 한국문화연구 7. 부산대.
김정대 (2000). "음운면에서 본 경남 방언의 구획". 인문논총 13.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97-114.
김정우 (1994). "음운 현상과 비음운론적 정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진우 (1971). "소위 변격용언의 비변격성에 관하여". 한국언어문학 89.
김충회 (1992). 충청북도의 방언지리학. 인하대학교 출판부.
김택구 (1991). "경상남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 (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민원식 (1982). 문경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경래 (2000). "충청북도 방언의 특징과 하위방언권. 충북개발연구원.
박경래 (2003). "충청북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박정수 (1999). 경남방언 분화연구. 한국문화사.
배주채 (1989). 음절말 자음과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배주채 (1991). "고흥방언 '-아'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373-398.
배주채 (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181-204.
배주채 (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배주채 (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배주채 (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배주채 (2008). 국어 음운론의 체계화. 한국문화사.
국어연구회 (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성인출 (1984).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강춘 (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손상률 (1986). "경남 창녕 방언의 음소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송철의 (1982). "음운현상의 기술을 정밀화시킨 국어음운론연구에 대하여". 한국학보 28(2), 2002-2020.
송철의 (1985). "음운". 국어국문학연구사. 우석.
송철의 (1995). "국어의 활음화와 관련된 몇 문제". 단국어문론집 1, 269-292.
송철의, 유필재 (2000). "서울방언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학연구 15. 서울시립대.
신승원 (1982).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활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승원 (2000).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분화 연구. 홍익출판사.
유필재 (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병택 (1983). 선산 방언의 제1부사형 어미 음운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기갑 (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이기갑 (1982). "전남방언의 하위구획-문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한국어문학 21. 379-395.
이기갑 (1988). "전남방언 연구의 현황과 문제". 전남문화재 창간호. 183-198.
이기갑 (1992). "방언분화". 국어학연구백년사 3. 일조각. 624-638.
이기갑 (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이기갑 (2009). 전남곡성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 (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이기문 (1972). 국어음운사연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이기문, 김완진, 최명옥, 곽충구, 이승재, 김영배 (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논문집 30, 45-143.

이동화 (1984). “고령지역어의 모음순행동화”. 영남어문학 11, 207-219.
이병근 (1969). “방언 경계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2, 47-56.
이병근 (1973).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133-148.
이병근 (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1-29.
이병근 (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이병근 (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이병근, 박경래 (1992). “경기방언에 대하여”.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15-40.
이병근, 최명옥 (1997). 국어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이상규 (1996). “국어 방언 구획론에 대한 검토”. 내일을 위한 방언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25-258.
이상신 (2007). “영암지역어의 활음소화 및 관련 음운현상”. 방언학 6. 한국방언학회. 139-162.
이상신 (2008). “전남 영암지역어의 공시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재 (1980). “구례 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국어연구회.
이승재 (1992). “방언 음운론의 동향”. 국어학연구백년사. 일조각.
이익섭 (1972).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87-119.
이익섭 (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진호 (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진호 (2003). “국어 ㅎ-말음 어간의 음운론”. 국어국문학 133.
이진호 (2004). “국어 활용형에 적용되는 모음 축약”. 어학연구 4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77-194.
이진호 (2005).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진호 (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이혁화 (2002).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59-80.
이혁화 (2005). “무주, 영동, 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정 (2008). “산청 지역어의 음운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석규 (1999). “영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석규 (2002). “음운탈락과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0. 국어학회. 113-140.
임석규 (2004). “동남방언 음운론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국어학 43. 국어학

회. 63-95.
임석규 (2007a). “경북북부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석규 (2007b). “‘Xi+əY’의 방언권별 형태음운과정”. 우리말글 40. 우리말글학회. 175-199.
임석규 (2007c). “다음절 어간에서의 방언권별 부사형어미 실현 양상”. 한국언어문학 62. 123-143.
전광현 (1979). “경남 함양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9, 37-58.
전광현 (1981). “전라북도 옥구 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국문학논집 10. 단국대, 3-27.
전광현 (1997). “전라북도 익산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어학 4, 71-92. 전북대 어학연구소.
전상범 (2004). 음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영주 (1987). “경상남도 창녕지역방언의 세대차에 의한 음운현상”. 건국어문학 11,12.
정승철 (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정승철 (2004). “j계 상향이중모음의 변화-형태소 내부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9-1. 제주언어학회. 43-58.
정의향 (2008). “서북방언의 어미 ‘-아/어(Y)’ 교체의 실현 양상에 대하여-철산지역어를 중심으로. 방언학 7, 153-180.
정인호 (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인호 (1997). “ㅂ-불규칙 용언 어간의 변화에 대하여-서남방언을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145-178.
정인호 (2003). “평북방언에서의 ‘ㅈ, ㅅ’의 음변화”. 한국문화 21. 한국문화연구소. 23-47.
정인호 (2006). 평북방언과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국어학회.
정철 (1990). “부사형어미 ㅏ/ㅓ의 사용”. 어문론총 23, 139-149.
최명옥 (1974). “경남 삼천포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32. 국어연구회.
최명옥 (1976).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 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61-83.
최명옥 (1980). 경남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최명옥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출판부.
최명옥 (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

로". 국어학 14. 국어학회. 149-188.
최명옥 (1992).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부사형어미 '-아X'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3, 139-163.
최명옥 (1993).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 24. 1599-1642.
최명옥 (1994).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 우골탑. 862-892.
최명옥 (1995). " 'X ㅣㅣ$_{Vst}$ 어Y'의 음운론". 진단학보 79, 167-191.
최명옥 (1996).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최명옥 (1998).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최명옥 (2000). "경남 김해지역어의 음운목록과 음운동화".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도서출판 월인: 1181-1212
최명옥 (2004). 국어음운론. 태학사.
최명옥 (2005a). "한국어 음운규칙 적용의 한계와 그 대체 기제". 인문논총 5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85-311.
최명옥 (2005b). "국어방언학의 체계". 방언학 1. 한국방언학회. 35-72.
최명옥 (2006a). "국어의 공시형태론: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설정을 중심으로".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집. 태학사. 13-39.
최명옥 (2006b). "경북 상주지역어의 공시음운론". 방언학 4. 한국방언학회. 193-231.
최명옥 (2008). 현대 한국어의 공시 형태론: 경주지역어를 실례로.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전승 (1998). "용언 활용의 비생성적 성격과 부사형어미 - '-아/어'의 교체 현상". 국어문학 33, 115-163.
최전승 (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최학근 (1976). "전라도 방언 연구(음운편 '모음')". 국어국문학 7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한국방언자료집 Ⅰ- 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성우 (1996). "당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성우 (2003). "의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허용 (2001). "모음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지배음운론적 접근". 한국어문학연구 13, 293-314.
홍종림 (1976).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김정규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Bybee. Joan. (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Hooper, J. 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Kenstowicz, M. and C. Kisseberth. (1979). *Generative Phonology.* London: Academic Press.

Roca, I. and W. Johnson. (1999). *A Course in Phonology.* Blackwell.

Schane, S. A. (1973). *Generative Phon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Singleton. David. (2000). *Language and the Lexicon.* Oxford University Press.

Skousen, R. (1975). *Substantive Evidence in Phonology: The Evidence from Finnish and French.* Hague: Mouton.

Abstract

A Contrastive Phonological Study of Goksung and Changnyeong Dialects in Korea

Ha, Shin You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contrastive phonological study on dialects used in Goksung and Changnyeong in South Korea. Goksung, located in Joellanamdo province, represents southwestern dialect of Korean, and Changnyeong, locat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represents southeastern dialect of Korea. In this study, phonological commonness and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ional dialects are closely examined by comparing the list of phonemes, the types of word-stem final phonemes, and the phonological processes in each dialect.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in all. Chapter 1 examines the purpose, the object, the method and the history of the study in general.

Chapter 2 determines the phonemes of the two dialects.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list of consonants, and we found 20 consonants; p, p', p^h, t, t', t^h, s, s', č, č', $č^h$, k, k', k^h, m, n, ŋ, h, ?, l. As for the vowel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ist. In Goksung dialect, there are 10 single vowels (i, e, æ, o, ö, , ɯ, ə, a, u, ü) and 10 diphthongs, (yə, ya, ye, yæ, yo, yu, wə, wa, we, wæ) and in Changnyeong dialect, there are 6 single vowels (i, E, o, Ǝ, a, u) and 9 diphthongs (yƎ, ya, yE, yu, yo, wƎ, wa, wE, wi). Another difference is that consonant can be pronounced in front of

diphthongs in Goksung while it is not in Changnyeong.

Chapter 3 discusses the types of word-stem final phonemes of the two dialects. In the frame of generative phonology, the synchronic phonological process is observed when th underlying representation of stem combines to ending. Based upon this fact, the characteristics of stem final phonemes are examined, by which Goksung's noun stems are sorted into 7 types (p-, m-, s-, n-, k-, ŋ-, l-final) and Changnyeong's into 13 types (p-, p^h-, m-, s-, n-, č-, k-, k'-, k^h-, ŋ-, l-, ps-, ks-final). The same observation applied to complex underlying forms, and they are sorted into 7 types in Goksung, and 6 types in Changnyeong.

Chapter 4 examined phonological phenomena found in the two dialects and discusses commonness and difference of the two. The result shows that the phonological process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First one is the common phonological process in two dialect; syllable final unreleasing, nasalization, vowel rounding, assimilation of /ɯ(ɜ)/, glottalization, palatalization, labialization, lateralization, deletion of /h, ʔ/, deletion of /l/, deletion of stem final /a, ə/, deletion of stem final /ɯ(ɜ)/, deletion of ending initial /ɯ(ɜ)/. Second one is the phonological process exists in both dialect but has different limitation on application; assimilation of ending initial /a/, consonantal cluster simplification, aspiration, glottalization as coalescence. Third one is the phonological process which exists only in one dialect; vowel fronting, deletion of /y/, insertion of /y/, /e/ alternation are applied in Goksung and /w/ glide formation is applied in Changnyeong.

keywords : Goksung dialect, Changnyeong dialect, contrastive phonological study, phoneme list, underlying representation of stem, phonological process

Student Number : 2004-30011